

# 성경 공과

제1권

성취반 (Advance Class 2)



홍해를 건너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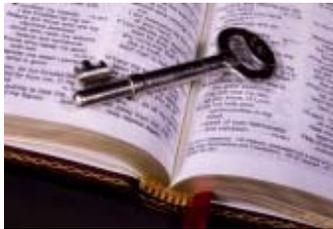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1권

Advance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원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1권 제5반, adult class만을 가지고 성취반, Advance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날을 오래 전부터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의 구름에 이미 오셨기에 아무리 자연계의 하늘을 쳐다본들 헛수고 일 뿐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상응으로 씌어진 말씀(the Word)의 글자에 담긴 속뜻을 밝히 알 수 있게 해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속뜻(inner sense)의 파악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서 해석과 그에 따른 참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에 담겨 천천히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고 싶은 성서 독자가에게 도움을 주고저 위 선견자의 저서를 기초로 본권은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선택한 성서는 공동번역인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거한 해석은 직역된 글자여야 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여 취득하기 바랍니다.

##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9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21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28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35
5.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42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48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58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65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72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79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86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93
13. 예리고 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104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112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120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127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136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43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150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장 9-24절	164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169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175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182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189
25. 성전의 재건	하깨 1장	194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18-25; 2:13-23	200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15절	207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214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220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227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232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242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248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257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263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270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282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289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296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305



# 1

## 창조에 관하여

###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교리 요점」은 공부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바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요점은 교회의 4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4가지의 교리인 주님, 말씀, 믿음, 생활(charity)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낱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옛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서는 옛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 \*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계시이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 \*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는 어떤 진정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모든 선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 상응 연구 (Correspondence)

빛 = 진리

물 = 진리

마른땅, 땅, 대지 =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경험

식물계 = 우리의 생각들  
 동물계 = 우리의 감정들  
 암흑 = 무지  
 해 = 주님을 사랑함,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옴.  
 달 = 주님을 믿음  
 별들 = 천국에 대한 지식  
 창공 위의 물 = 영적인 진리 즉 영혼의 삶을 위한 진리  
 창공 아래의 물 = 자연적인 진리 즉 세상의 삶을 위한 진리  
 바다 = 기억 속의 진리  
 물고기 = 세상적 지식에 끌리는 마음(세상적 지식을 향한 애착들)  
 새들 = 영적 지식에 끌리는 마음(영적 지식을 향한 애착들)  
 동물들 = 유용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애착들

## 해설

창세기 1장에 대한 새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교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회의 가르침은 상응을 기본으로 하여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새 교회의 가르침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없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근대의 무신론자의 대부인 Jean Astruc (1684-1766)의 작품이 나오기 몇 년 전에 스웨덴북의 「Arcana Coelestia」 1권이 발행되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성경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때에 맞추어 스웨덴북을 부르심으로 이러한 과학주의적 무신론과 비판들을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는 진리를 공개하신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성서의 대부분이 상응에 의해서 속뜻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의 1~11장까지의 내용은 직역주의적인 해석으로는 어떤 의미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면 그의 시대에 유행하던 과학적 성서 비판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였을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창세기의 1~11장은 고대의 말씀에서 발췌하여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고대 말씀은 현재의 성경 이전에 존재했던 말씀으로 온전히 상응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대 이전의 시대 즉, 태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과 직접 교통하였고 두 세계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계에 있는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은 끊어졌고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계의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므로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고 그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악이며 불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와 교리의 근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말씀에 담겨진 내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되찾길 원하셨고 그것은 스웨덴봄을 통해 이뤄졌다. 새 교회 사람들에게는 창조 이야기가 생소하고 이상하여 말씀을 신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리 각자의 영혼의 유래와 그것의 진정한 성장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이다.

새 교회의 어린이들은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단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봄은 창조의 목적이 인류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말씀의 첫 절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다. 하늘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속성을, 땅은 자연적인 속성을 상징한다. 창조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그린 것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 안에 보다 높은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 즉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상호관계의 중요성과 그들의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이 모두 이루어 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 영혼의 발달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각 개인의 발달 과정과 인류의 발달 과정이 서로 상응한다. 그 이유는 인류가 개인으로 구성되고 각 개인은 인류의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새 교회가 가지는 특수성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믿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원리를 스웨덴북은 상응(corresponde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새교회인들조차도 아직은 이러한 원리와 이해를 생활에 적용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상응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말씀을 읽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활상에서도 그저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씀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읽고 스웨덴북의 설명을 들으면 상응을 이해하고 체계성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창조 이야기의 첫 절에 쓰인 하늘은 사람의 속 부분을, 땅은 사람의 겉 부분을 의미한다.(AC16) 여기서 겉 부분이란 단순히 몸(bod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련이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포함한다. 속사람은 보다 높은 영혼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로 이를 의식하지는 못하며 주님과 영적인 것에 관한 생각과 느낌으로 이뤄진다. 이 두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땅 - 겉 사람 - 은 태어날 때 그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은 “공허”처럼 백지 상태이다. 즉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내면에 있는 보다 높은 속성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든 어른이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자연)의 삶 보다 더 높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내면 즉 속 사람은 암흑 속에 있게 되고 설령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더라도 진정한 선과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다 높은 삶이란 영적인 삶과 알맞은 관계를 이를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속사람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자애가 우리에게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다.

다시 태어남 -천국적인 인격의 형성- 의 첫 시작은 빛이 오는 것이다. 암흑은 모르는 상태를 뜻하고 빛은 아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서는 인류 전체가 암흑, 즉 모르는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을 상징하는 밤에 태어나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던 것이다. 6일 간의 창조의 이야기는 영적 발달의 각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즉 어둠에서 빛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저녁 또는 어둠은 무지를 뜻하며 아침 또는 빛은 앎을 뜻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 창조의 시작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 말씀을 “사람이 선과 진리라는 더 높은 것을 알기 시작하는 첫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한다.(AC20)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는 단순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즉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작용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빛(앎)과 어둠(무지)로 나누신다.

두 번째 날에 우리는 세상에 관한 일과 천국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진정한 어떤 것(창공)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뉘는 것은 물로 상응되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체계화되어 이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물이 언급되어 지는데 물은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 하느님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여느 책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선과 진리에 대한 관념 또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의미 외에는 무의미 하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의 존재와 보다 높은 삶에 대해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선과 진리는 영적인 실재로 그에게 존재하게 된다.

셋째 날 또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창공 아래의 물은 바다로 모아지는데 “바다”는 기억은 되었으나 이해되지 않는 단순한 기억 속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지식과

단순한 기억적 지식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마른 땅”으로 상징되는 “사람으로서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관념”이 형성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듯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식물이 창조 되는데, 이에 대한 상응을 공부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와 이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살펴보자. 씨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며, 씨는 주님의 말씀 속의 진리, 땅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열매는 씨인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삶 속에 자라 선하고 쓸모 있는 일로 결실이 맺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식물들은 다양한 진리들을 뜻한다. 모든 식물과 나무는 어떤 특정한 진리로부터 자라난 삶의 규율들을 뜻하며 과실은 규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결과로 나타난 선한 행위를 뜻한다. 모든 과실이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가능성을 가진 씨를 그 속에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람의 올바른 행위 안에 있는 규율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위를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 식물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것을 재조명해 보자. 처음에는 씨에서 “연약한 풀잎”이 자란다. 그 후 이 풀잎이 씨를 내포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작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말 듯 한 미미한 진리에서 시작해 점점 더 중요하고 풍성한 진리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날까지의 성장에서 우리가 행한 선은 신의 존재와 영적인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체계를 잡은 규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과 그의 뜻하시는 바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진다. 넷째 날에는 큰 빛(해), 작은 빛(달)과 별이 세상에 나타난다. 큰 빛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작은 빛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별들은 천국에 대한 지식을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으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행하거나 혹은 악을 행한 후에 오게 되는 공포가 두려워서, 또는

남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를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을 행하게 하는 진리(빛)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근원이 주님이심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옳은 일은 동기부여가 스스로의 판단과 이득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의 선한 행위의 근간은 의무감, 공포감, 존경 받고 싶은 욕심, 또는 자기만족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들린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궁극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현신 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자연적인 욕구와 취향에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인품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때 우리의 내면의 하늘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보고 난 후에도 때때로 욕망 때문에 내면의 하늘을 가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계명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상징되는 “달빛”에 해당된다. “달빛”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해 유혹이 사라질 때까지의 일시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만약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상징되는 “별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별빛”은 주님과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배워 가지게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도하던 상태에서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발전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스웨덴 북은 “진정한 선은 주님의 사랑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앎을 상징하는 식물계 수준으로부터 애착이 담긴 삶을 상징하는 동물계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부터 깨우침으로 확신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이 그 두 단계들 사이에서 창조되는 이유이다. 상응으로 볼 때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들은 진리와 함께하는 애착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스웨덴붉은 창세기 1장 20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이 켜지고 그 불이 속사람 안에 놓여진 후, 겉사람은 속사람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다”고 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선을 행하고 스스로의 판단에서 비롯된 진리를 말하는 동안은 그는 진정으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인간)”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 안에는 악과 거짓밖에는 없으며,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AC39) 그러나 사람이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의 기억의 바다 속에 있던 표면적인 지식도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한 표면적인 지식들도 주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진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다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로 상징된다. 그리고 우리 이성의 높은 부분은 새들처럼 공중을 날기 시작한다. 바다의 큰 물고기는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큰 원리를 상징한다. 물고기와 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더 이상 마음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행동의 근원인 의지에 속한 것들 즉 선한 애착들을 상징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의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행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좋은 육지 동물들이 창조되는 것으로 상징된다. 새와 물고기들은 마음속에 있는 높고 낮은 일들을 의미하며 동물들은 애착이나 의지를 뜻한다. 우리 안에 선한 애착이 생겨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지성과 의지의 양면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정한 인간이 된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기본 상응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말씀에서 남자는 지적인 면을, 여자는 애착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의 모든 생각과 애착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면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들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의 세계, 곧 내적왕국이 있는 데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내적인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 있는지에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을 잘 간직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날 -안식일- 은 완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천국적인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 있어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 대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천국적인 행복의 상태를 맞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유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이러한 갈등과 시련에서 자유로워져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웃에 봉사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휴식이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의 휴식”이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시던 주님께서도 휴식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숫자 7은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 8)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9)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10) 셋째 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 11) 셋째 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 12)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 13)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 14) 몇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셨을까?
- 18) 주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 19) 주님이 첫 장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 20)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 21)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에 상응될까?

#### 질문의 답

- 1) 성경 2) 하느님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4) 한 처음에 5) 창조
- 6) 육일 7) 아니다 8) 빛 9) 창공 10) 바다와 마른 땅 11) 풀, 나무들
-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느님
-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9)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 20)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 21)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 2

# 에덴의 동산

###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여러 평면에 적용된다.
- \* 우리에게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을 찾지 말고 항상 주님께에서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응 연구

- 강 = 주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오는 진리
- 나무들 = 일반적인 원리들
- 생명나무 = 주님의 선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원리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스스로 슬기롭고 선행될 수 있다는 원리
- 네 방위 =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 동쪽 =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과 가까운 상태
- 서쪽 =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보다 적은 상태

남쪽 = 주님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함  
북쪽 = 주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희미함  
광물계 = 삶의 밑바닥 수준에 속하는 일들  
금 = 사랑

## 해설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류나 각 개인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태초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며 그들을 스웨덴붉은 태고교회라고 이름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로서 다른 말로는 이들을 천적 사람들(Celestial People)이라 구분 짓는다. 천적 사람들이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삶의 원리로 하여 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이들은 3층천국의 천사들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천국과 직접 교통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 “천적”인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매개체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스스로의 판단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판단은 대개 세상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이러한 욕망은 대부분 악에 속하기 때문이다. 첫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만족했으며 그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지혜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선하고 순수한 애착만 갖고 있었다. 스웨덴붉은의 저서들은 그들의 순수함과 행복한 삶, 결혼에 대한 높은 이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 어린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심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태고교회 시대에는 사랑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화처럼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학자들은 고대의 “황금시대”라 명명한다. 여기서 “황금”은 사랑에 대한 상응인 금이 인류의 무의식에 반영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세기에서

는 주님이 만드신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의 동산이 이 태고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상응이다. "에덴"은 즐거움 또는 기쁨을 뜻하며 “동쪽”은 항상 주님에게 가까운 것을 뜻한다. 동산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혜의 강으로 적셔지며 그 곳의 모든 나무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이 동산의 것들을 돌보고 가꾼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이 자의식에 눈을 뜨거나 이기적인 것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류의 초기 단계 또한 유아기처럼 여길 수 있겠다. 초기의 사람들은 주님께 늘 가까이 있었으며 그들은 부모의 철저한 보호 하에 있는 아이처럼 걱정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짐은 주님이 우리 마음 모든 곳에 진리를 상징하는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강줄기인 '비손 - Pison'은 “흘러넘친다”는 뜻이며 믿음에서 나온 지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강물이 공급된 땅은 금이 넘쳤던 곳으로 이는 선한 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강줄기는 '기혼 - Gihon'으로 “갑자기 흘러나온다”는 뜻이며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히데켈 - Hiddekel'은 “급류”를 뜻하며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성을 상징한다. '유프라테스 - Euphrates'는 “결실이 풍부함”을 뜻하며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토대가 되는 기억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선과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셨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 지각(perception)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각력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유아들은 이 지각력과 유사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동산에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동산에

두었는지 의아하며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 나무를 심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 종종 “주님께서 사람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평을 갖는 것과 같다.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아를 인식한 후 창조주인 주님 앞에 자신이 주님과 별개인 독립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깨닫는 것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그의 영혼의 동산에 선악과가 존재해야만 한다. 주님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행복은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른 창조물은 생명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존재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음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요 사람은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의 능력이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느끼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먹지 않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선악과로 상징하는 것에 신뢰를 두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옳고 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선과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봄은 “우리는 기억이나 개념으로 믿음의 신비를 논해서는 안된다. 이는 천적인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한 의지와 이해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이 태고교회로 상징되는 높은 지점에서 추락하는 첫 단계를 보여준다. 즉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착각하여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 주님께에서 멀어지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섭리로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마저도 선용하시어 인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것”이란 천적인 사람들의 상태로서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살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악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이 홀로 산 것은 유아기의 삶과 같다. 주님은 사람이 외부적인 것에 눈을 뜨고 흥미를 갖게 됨을 아시고 그에게 세상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람이 스스로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의 특성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와 세상에 관해 배워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만을 중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높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사라져간다. 이것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란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본성을 뜻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자아와 그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스웨덴봄은 이것을 푸로프리움(Proprium)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푸로프리움은 인간의 하부 구조/framework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과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안의 푸로프리움은 살이 입혀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일부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인품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밖으로 끌어냄”, 다시 말해 “남의 눈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이나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듬질되어야 하는 도구로 보게 되며 이것은 곧 우리 안의 영적 뼈대에 살을 입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의 죽어있었던 자아가 아름다운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같다. 스웨덴봄은 “사람의 자아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뼈만 있는 어떤 것과 같아 생명력이 없고 흉한 모습이며 죽은 존재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생기를 갖게 되는데, 비로소 살로 옷이 입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AC 149) 우리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39)

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의지만이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 15) 무슨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지말라고 말해졌는가?
-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19) 에덴의 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 20) 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 21) 두 개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1) 하느님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느님 9) 에덴의 동산 8) 휴식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15) 선악에 관한 지식 16) 동물과 새들 17) 갈비뼈 18 )여자 19)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20)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21) 「생명의 나무」: 주님께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한 것과 슬기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 3

# 노아가 방주를 짓다

###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젠가

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든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 교리 요점

\*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애착들을 믿어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 상응 연구

홍수(나쁜 의미의 물) = 이기심으로 인해 거짓으로 변한 진리  
 3 = 의지, 사고, 행동이라는 세 측면의 완벽함 (의지+ 사고=행동)  
 40 = 시험의 상태

### 해설

앞장에서 첫 사람들 즉 태고 교회가 주님에 의해 발달된 과정과 그들의 순진하고 행복한 생활이 주님에 의해 인도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세계에 속한 것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바램을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시험으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에 의해 인도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추론하기까지 이르러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들의 심정을 통하여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마침내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고 영계와도 교통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천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변명하거나 확증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느님의 아들들 사이의 결혼”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천적인 진리들을,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이기적 사랑으로부터 온 악한 애착들을 상징한다. 그 결합의 결과가 거인족이며, 이것은 타락한 태고 교인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고 생각하기에 신들(gods)과 같이 위대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성서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과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 거인족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다윗과의 결투로 유명한 거인인 「골리앗」은 신체적 거인들 중 마지막 후손인 셈이다. 천적인 것을 악용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판단하던 타락한 태고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도 거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악용(곡해, 타락) 또는 거짓들은 궁극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괴했고 내재하던 영으로서의 삶을 질식 시켰으며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 치고 받아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로부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들이 비롯된다는 것이 모든 산들을 꼭대기까지 덮어버린 홍수가 상징하는 것이며, 이 거짓들을 추구하는 것 즉 홍수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익사시켜 버린다.

본장의 서두는 외견만의 진리(apparent truth)로 시작된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듦을 탄식하고 후회하셔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회 또는 인류의 멸망을 생각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신데, 마치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구절들을 스웨덴붉은 외견만의 진리 곧 겉보기에만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견만의 진리는 언뜻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태고 교회의 파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악과 거짓에 의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섭리는 인간을 위해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섭리도 변화하는 인간을 따라 움직일 때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나 자식의 행실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이 심히 악해져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을 때는 주님께서도 그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옳은 것을 추구하고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시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옳은 것을 추구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노아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도 선한 것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천적인 차원에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천적인 상태 즉 근원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 수단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방주는 전나무(gopher wood)로 지어졌으며 나무는 자연적 선함(natural goodness)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태고교회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자연적 선함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의하면, 전나무는 불타기 쉬운 나무로 이것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연적 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천국의 신비 제 643항) 방주는 그 안에 “방들(rooms)”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방들"은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의지를 통해 주님께서 선으로 직접 인도하시던 태고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해성을 통해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고대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태고 교인들의 사고는 그들의 내적 바램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들의 가장 깊은 바램은 주님만을 섬기려는 것이었으므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사고에 실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기적인 바램이 그들의 의지를 지배할 때 그들의 사고는 거짓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님은 생각의 근원인 이해성을 의지로부터 분리시키셨는데, 이로 인해 그들이 마음으로는 옳은 것을 원치 않더라도 이해성을 통해 진리를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다. 진리를 배우고 깨우친 진리를 살아냄으로서 즉 행동 안에 진리가 실재하게 됨으로서 주님은 타락한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상징되는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의지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각을 통하는 대신 인간의 이해성 안에 새로이 주어진 의지인 양심(conscience)에 의하여 옳은 길로 인도 되었다. 의지와 이해함(will and understanding)의 분리는 방주 안에 여러 칸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음으로 상징되고 있다. 방주의 3층이란 마음의 세 가지 평면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식(knowledge), 추론(reason), 이해함(understanding) 또는 행동(act), 사고(thought), 의지(will)를 상징한다. 방주 위에 난 창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얻도록 마음이 열려 있음을 뜻하고, 방주 옆의 문은 진리를 듣고 순종함을 의미한다. (AC651-658)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계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참조)

방주의 내부는 태고교회의 일부로 고대교회의 시초였던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방주는 주님께서 태고 교회의 길을 잃은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주신 것인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성을 통해 진리를 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서 주님(진리)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교회는 심정(heart)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근원이었기 때문에 천적 교회였다. 두 번째 교회 즉 고대 교회는 이해성을 통해 받아들인 진리가 근원이었기에 영적 교회였다. 새로운 질서로 세워진 양심을 가진 마음(mind)은 멸망을 상징하는 거짓의 홍수로부터 인간 내에 자연적인 선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인류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역사)에도 적용된다. 유아기는 에덴의 동산의 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 자의식이 발달하여 우리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기 원하게 되면 그동안 잠재해있던 우리 안의 악들이 우리 의식 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종종 제멋대로이고 고집불통인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곧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상징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상태와 비슷하다. 이들은 자기 이익만 집착하며 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하게 되면 그들은 이성을 잃고 광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이기심은 그들을 스스로 망치게 하는 지경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들은 모두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악한 생각에 집착하거나 그 쪽으로 동의하기 시작하면 악은 우리의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해 놓으신 주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응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옳은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자녀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것들을 꼭 실행하는 버릇을 육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녀들에게는 서서히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옳은 방침을 실행하도록 인도하는 양심이 발달하게 된다. 방주는 주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셔서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인간 내의 갖가지 애착들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애착들은 각 개인이 개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거듭나는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들과 주님에 대한 인식을 상징한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주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사고(思考)들과 애착들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험을

상징하는 홍수가 물러가고 방주가 산꼭대기에 안주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방주를 파괴시키려 하는 거짓이 없어져 진리로부터의 삶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mind)은 주님 안에서 휴식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다. “자유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임을 기억해 두자.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 1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 20)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1) 방주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6)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는 것 (eat of tree of knowledge)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썸,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19) 자아에게서 올바름을 찾음  
20) 진리가 거짓이 되어 파괴적이 됨 21)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성된 좋은 인격

## 4

# 아브람을 부르심

###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기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겟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 교리 요약

\*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며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역사시대는 제 12장부터 시작된다.

### 상응 연구

갈대아의 우르 = 우리의 자아로 본능적 상태

가나안의 땅 = 천국적 상태

하란 = 자연적으로 선한 상태

이집트 =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 해설

스웨덴붉은 천국의 신비 제 1140항과 1343항에서 창세기 1~11장까지는 모세가 고대 말씀으로부터 발췌해 온 것이며 성경에서 실존 인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람은 창세기 11장 14절에 있는 에벨(Eber)이라고 서술한다. 에벨로부터 히브리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다. 그는 고대 교회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하며 이 교회는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 시대까지이다. (천국의 신비 제 1343항 참조) 아브람은 고대 교회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새로운 교회 즉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후에는 유대 교회가 시작된다. (1360 참조) 두 번째 고대 교회인 히브리 교회도 첫 번째인 노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며 예배에 속한 모든 형태를 상응(correspondence)을 기반으로 하여 그 가치를 파악했다. 제물(sacrifices)이 예배 의식을 구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도 에벨로 상징되는 고대교회의 두 번째 단계부터다. 그러나 세대가 지남에 따라 예배가 상징하는 것과 다양한 예배의식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했다. 결국 사람들은 제물이나 사람이 만든 형상들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모두 잊고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했다. 이러한 퇴보로 인해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정과 지성(hearts and minds)에 가르침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적 생각을 갖지 못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 결과 지상에 진정한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단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표현적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과의 계약을 기억하셔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특별히 마음의 동기가 선한 이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와 그 다음에 오는 유대 교회를 구성하셨으나 이러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즉 그 안에 천국과 인류의 영적 교류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 서간문에 보면 “율법에 의거 봉헌물을 제공”하는 유대 성직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 8:5)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교회는 주님께서 인간들이 주님과 말씀을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지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 보다 나아져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외적인 사람들로 상과 벌에 의해서 이끌어 졌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강제하지는 않으셨으며 그들의 영적 자유(freedom)가 간섭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참된 예배에 상응하는 특별하고 구별된 형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다. 아브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존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아브람의 삶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상징성이 강한 인물로, 말씀 중에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주님의 삶과 연관되며 우리의 삶에도 연관되어 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람의 역사가 의미를 갖고 말씀에 기록되도록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브람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발견은 자연적 지식 면에서 흥미로울 수 있지만 말씀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덴의 동산 이야기는 천적 타입(type)에 속한 교회의 발생과 퇴보를 다루며, 노아의 이야기는 영적 타입에 속한 교회의 발생과 퇴보를 그린다. 우리는 본장에서 자연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차원의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며, 이 자연적 수준에서 성장하여 발달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본장에서 다룬 이야기는 우리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보여줌과 함께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성경에서 주님과 유대인이 밀접하게 관련됨과 같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진보 또한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생명의 책인 이유이기도 하다.

아브람은 주님으로부터 여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의 여행이 인생을 상징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은 우리의 영혼이

진보하는 과정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번얀의 천로 역정 (Bunyan's Pilgrim's Progress)은 이러한 상징적 요소들을 잘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진보 (prograss)」라는 단어가 영혼의 성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성서의 내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는 상응(correspondence)은 우리가 말씀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인생길은 때로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때로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우리를 인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진, 전진 또는 정지하기도 한다. 간혹 우리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전경을 살펴듯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 우리 삶의 전체를 차분하게 관망하며 가야 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주님은 스웨덴붉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의 내적 세계를 더욱 넓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아브람의 여행에 관련된 성경의 세부 사항의 의미들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아브람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우리가 태어난 땅은 자연적 상속물인 악과 거짓이며 가나안의 땅은 천국적 상태이다. 천국적 상태는 우리가 타고난 본능적 또는 이기적인 유혹과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아래 천국적인 것을 감지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람이 가나안의 땅으로 가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음은 천국 그 자체를 향해 여행하기 위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다. 아브람이 여행 중 하란에서 머무른 것처럼 천국적 상태로 가는 여정은 멀고 힘들다. 우리들 중 일부는 나홀과 그의 가족이 하란에 정착했던 것처럼 천국적 상태에 이르는 도중에 멈추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아브람처럼 계속 전진해 목적지까지 가고자 한다면, 아브람이 세겔 골짜기에 잠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된 첫 번째로 맛보는 천국적 상태에 멈추지 않고 베델이라는 더 높은 상태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감지하는 천국적 상태의 매 단계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 되는데, 이는 곧 아브람이 도착지마다 제단을 쌓는 것으로 상응된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적인 상태에 더욱 가까이 이르게 되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말씀가운데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로 표현되고 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즉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흉년과 상응한다. 아브람은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곳은 자연적 상태의 학식을 뜻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1461항에서 이집트는 “지식 중에서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이집트에 곡식이 풍부할 수 있었던 것은 강우량 때문이 아니라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정기적인 범람으로 농지가 비옥했기 때문이다. 수확된 열매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창고에 꾸준히 저장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흉년이 들 때도 이집트로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주님 역시 어린 시절 헤롯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 간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성서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면 이집트로의 여행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의 여행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안에 저장해 놓으신 것으로부터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을 상징한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흉년이 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고 새로운 진리들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적 힘을 주신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을 배우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브람이 새로운 풍요함을 얻기 위해 여행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 우리가 얻은 풍요함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3) 아브람이 두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4) 아브람은 멈춘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 16) 가나안 땅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람의 여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8) 에집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주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아니다 2) 에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 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겜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16) 생활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방법 17) 상속된 이기적 경향을 떠나는 것 18) 말씀 속에서 필요한 진리를 얻는 것 19) 우리는 진리를 꾸준히 더 배워 나가야 할 것

## 5

# 이사악의 출생

###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는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는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는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는 히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덩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 교리 요점

\*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이성을 얻어야 한다.

### 상응 연구

헤브론 = 선에 관한 교회

광야 =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영적 상태

아브라함 = 단순하며 순진한 상태 (유아적 상태)

이스마엘 = 추론하는 능력의 자연적 상태

이사악 = 추론하는 능력의 보다 높은 상태 (영적 상태)

활 = 논쟁에 쓰여지는 거짓들이나 진리들

## 해설

스웨덴북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는 것들을 나쁘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면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나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결론만 놓고 보기에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동기가 선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것은 보호하여 막으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삶이 보호되도록 늘 애쓰고 계신다. 주님은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악들에 저항할 수 없음을 예견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식들을 없애 버리신다. 결국 그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옥이라는 더 낮은 수준에서 살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원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 히브리 나라는 사람들의 내면이 단혀 오로지 세상에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지경에 이른 후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영적 지식을 상실하고 태고교회나 고대교회에서 나쁜 것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옳은 것처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가 일부다처제이며 성경에는 복잡한 결혼에 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식이 없어 대를 잇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고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 큰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출신 여종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14년 후에 기적을 베푸셔서 사라가 90세의 고령에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사악이 젖을 떼 후 이스마엘은 그를 놀려 댔는데 이에 대해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아브라함의 첫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에 머무르도록 허락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게 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떠나도록 하셨다.

넓은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우리들 삶의 세 평면(단계) 혹은 세 층(겹)을 상징한다. 이 세 층은 천적(the celestial), 영적(the spiritual), 그리고 자연적(the natural)평면을 뜻한다. 어린 아이였을 때의 우리는 천적인 상태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상태에서 살았다. 그때의 우리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 스스로의 생각과 통제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에 의존해 있었다. (마태복음 18:10 참조) 우리의 이 시기는 아브라함으로 묘사되며, 이후 우리의 추론능력이 발달된 시기는 이스마엘과 이사악으로 묘사된다. 그 후 우리의 사상이 일상생활이나 직업분야를 통제하는 시기가 오며 그 사상들은 실용화되어 현실 안에 있게 된다. 이 시기는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로 묘사된다.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 이러한 발달의 단계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충분히 성장하여 가장이 되었을 때의 이사악은 우리의 이성이 올바르게 발달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할 때에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지식은 표면적이며 그들의 새로운 능력을 타인에게 자랑하기만을 원하고 타인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능력의 형태가 이스마엘로 묘사된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들(자연적 추론능력과 영적인 추론능력)이 모두 주님께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 단계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출신의 노예였다. 여인들은 애착 (affections)들을 의미하고 이집트는 표면적 또는 기억적인 지식(memory-knowledge)을 의미함을 상기 해보면 하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상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모든 분야의 것을 열심히 배우며 정보들을 구별 없이 기억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 때문이다. 우리의 첫 추론능력인 자연적 합리성은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으로부터 이뤄지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하같은 단순히 노예였을 뿐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어린 아이의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의 성숙한 사고나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은 되지 못하며 노예처럼 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제구실을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

자연적인 애착이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면 그것은 쉽게 영적인 애착들을 경멸해 버린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갈이 사라를 경멸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결국 자연적인 애착과 그로부터 비롯된 자연적 합리성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영적인 합리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삭)의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겨 나아만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갈과 그녀의 어린애를 두 번씩이나 보호하셨다. 배움을 사랑하고 그 배움에서 나온 추론이 제 분수를 지키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자연적 지식을 사모하며 시작된 것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함을 뜻한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아라비아 사막인 바란 광야에서 거주했다. 광야는 건조하며 바람과 밤낮의 일교차도 심했다. 우리의 자연적 합리성은 끊임없이 발달되어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용함에 있어서의 위치란 외적 삶의 변화무쌍한 환경가운데 있을 뿐 우리의 내적 사고나 느낌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은 아니다. 우리의 영적 발달은 영적 진리를 사모하는 이사악으로 상응되며 이는 보다 높은 합리성 즉 영적 합리성을 통해 이뤄진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연적 합리성을 주시고 그것이 발전하여 우리의 외적 삶에 기여하기를 원하신다. 정확한 분별력, 예측능력, 집행능력 또는 설득력 등은 모두 이스마엘에 속한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갖게 된 자식이 이사악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합리성은 오랜 기간을 거쳐 발달된다. 그리고 이 영적 합리성에서 시작되는 생각이나 애착들은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영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천국적인 삶인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이사악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을 우리의 경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게 되고 마는 것이니 가능한 한 빨리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쾌락도 즐겨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사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뿐이다. 허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기에서 발달한 인격이 살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은 돈이나 명성, 쾌락 등등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였고, 스스로가 제일임을 내세우기 위해 날카로운 논쟁을

사용한다. 반면 이사악은 조용하게 가나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려 하고 그분의 뜻을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사악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라반의 딸 리브가이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께 의해 금해졌다. 이것은 영적 합리성은 가능하다면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그의 고결함을 유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3)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라를 불쾌하게 했는가?
-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 22)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 25) 이집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6) 이사악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벨탑 2) 흘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래, 롯 8) 세겜, 베델 9) 기근
- 10) 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줌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25) 기억적인 지식
- 26) 이스마엘 - 자연적 또는 첫 번째 합리성, 이사악 - 영적 또는 두 번째 합리성

## 6

### 야곱과 에사오

####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취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탄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쌔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구나.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못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못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례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말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헛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헛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었습니까?”

### 교리 요점

- \*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다.
- \*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본보기들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 상응 연구

에사오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선

야곱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진리

### 해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모든 인간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 하는데

가장 깊은 속에는 속사람(internal man), 중간에는 합리적 사람(rational man) 그리고 겉에는 겉 사람(external man)이 있다. 주님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상징되어 진다. (AC 1893)”라고 언급했다. 우리를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유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속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들로 채워져 있다. 남겨두신 것들(remains)이란 주님께서 장차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 놓으시는 순진함과 신뢰하는 심정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우리는 이삭으로 표현된 합리성을 갖고 발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쌓아 올린 지식과 애착 (affection, 끌리는 마음)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준비가 끝나게 된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가져와서 천국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 이전의 단계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선조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상징하지만, 그들(세 사람)의 후손들은 “야곱의 씨” 또는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후에 야곱에게 주님이 주신 이름임)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장의 주제는 야곱과 에사오이며 어떻게 야곱이 형 에사오 대신 족장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리 삶의 두 영역, 두 개의 방(rooms) 또는 의지와 이해성에 대해서는 노아의 방주를 공부할 때 이미 설명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영적 평면(spiritual plane)에 속하며 에사오와 야곱은 우리의 자연적 평면(natural plane)에 속한다. 에사오는 자연적 평면에서의 선을 묘사하고 야곱은 진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쌍둥이 형제인 이유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에 있어서 선과 진리 혹은 의지와 이해성은 처음부터 평행선처럼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사오가 형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그는 의지를 상징하며 의지는 우리 행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주님으로부터 또는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유입되는 것이 우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해성

을 상징하는 야곱이 의지를 상징하는 예사오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로 주관되는 바른 삶을 살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성이 주관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이해성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게 느끼도록 하시는 이유는 거듭남을 시작하는 우리 안에서 주(심성)과 객(이해성)의 순서가 바뀌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의 근원인 심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성이 강조되어 먼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심성을 바로 잡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심성을 상징하는 예사오 대신 이해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집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사오가 언젠가는 야곱이 씌운 멍에를 떨쳐 버리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는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의지(new will)를 주실 때까지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우리는 새 의지에 의해 통치되면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삶의 본보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기적인 이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행동의 열매가 잘 보관되게 하였고 급기야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민족의 선조가 되도록 하셨다. 하지만 스웨덴북에 의하면 이렇게 언뜻 읽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아직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 되어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거듭남의 초기단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주님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는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악한 이들 또한 많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타고난 심성의 안과 밖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의 인물들의 악한 품성이나 행위를 선용하신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예견하여 우리의 심정 상태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악 조차도 선용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주님의 신성화 하심과 공생애를 상징하는 말씀의 가장 깊은 속뜻은 진리와 아름다움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말씀의 속뜻은 자꾸만 뒷걸음질 하려는 인간 본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서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안에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마치 아주 잘 그린 초상화처럼 상응으로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모든 악이 즉각적이며 명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관습적 반작용이다. 이러한 것은 주님의 의지가 아닌 아주 세상적인 것이다. 주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모든 악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금 악들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실 뿐 우리에게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악은 그 안에 스스로를 향한 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벌은 때로는 즉각적이지만 대체로 명확치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악을 행한 결과는 언제나 확실하다. 야곱이 행했던 악의 결과는 형에 대한 공포로 즉각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형과 재회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에사오 역시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을 수 없다. 그는 스스로의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장자의 권리를 팔아 버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당장 스스로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인격과 장래의 가망성(prospects)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감에 있음을 알면서도 때때로 부주의함, 게으름, 소심함,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진보가 주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적 성취욕과 쾌락에 빠져서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물이 갖지 못한 영적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동물보다 나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동물처럼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에사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자연적 평면으로 볼 때 에사오는 선 그리고 야곱은 진리를 묘사함을 앞서 공부했다. 에사오는 형으로서 가족의 마땅한 우두머리이다. 우리는 야곱과 에사

오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지니게 된다. 주님께서는 왜 야곱이 예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왜 진리를 배우려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대되는 바대로 되지 않는가 등의 의문이다. 이에 대한 진정한 답은 다음에 있다. 우리들 각자는 참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유전적으로 세습되어온 악들이 잠재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천성적으로 선하여 주님의 가르침 없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져서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진리이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하다고 믿게 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결점을 볼 수 없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개선 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잘 훈육 되었다하더라도 과오 없는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행동의 경지에는 도달치 못한다. 그 이유는 '자아'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것도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의지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그 진리들을 적용해 가야 한다. 우리의 지상 생활이 끝날 때 까지, 이해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내 집의 가장이 되어야 하며 심정을 상징하는 예사오는 야곱을 섬겨야 한다. 거듭남이 완성되어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기꺼이 만족하는 경지에 이를 때 즉 천국적인 곳에 도달할 때, 우리의 심정(예사오)은 원래의 위치 즉 형(상속자)의 위치를 되찾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형은 누구인가?

-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 13) 에사오와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주님께서는 왜 야곱이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용 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 7) 팔죽 8) 에사오 9) 야곱
-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 13) 에사오는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의지, 야곱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성
- 14) 우리가 이기적인 의지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 7

# 요셉과 그 형제들

###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을 살피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나?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꾸는 꿈이 대체 무엇이나?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나?”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20.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었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예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 교리 요점

\* 스웨덴봄에 의하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시험,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회전의 연속이다.

### 상응 연구

야곱의 열두 아들 = 인간 발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생각들과 애착 들  
 요셉 =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들  
 베냐민 = 영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는 애착들

### 야곱의 가족구성도

야곱의 아들들을 출생순서로 보면 르우벤(Reuben), 시몬(Simeon), 레위(Levi),

유다(Judah), 단(Dan), 납달리(Naphtali), 가드(Gad), 아셀(Asher), 이싸갈(Issachar), 스블론(Zebulun), 요셉(Joseph), 베냐민(Benjamin)이다.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			
라헬	레아	빌하 라헬의 몸종	질바 레아의 몸종
요셉	르우벤	단	가드
베냐민	시므온	납달리	아셀
	레위		
	유다		
	이싸갈		
	스블론		

※야곱은 레아로부터 딸 디나도 낳았다.

## 해설

야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의 열두 아들은 이러한 노력 과정 중에서 발달되는 모든 선한 애착들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 알기 위해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과정을 분석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들을 읽는다. 하지만 우리는 스웨덴뵘을 통해 주님께서 밝히신 야곱의 열두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도 심리학적인 윤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외적 생활 가운데서 더 높거나 더 낮은 애착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사랑함과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면 분명히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음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애착이나 음식 역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음식에 대한 애착 또한 선한 애착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에 대한 애착과 천국적 지식에 대한 애착은 다른 모든 애착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헬의 두 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애착이고, 레아의 아들들은 제일 높은 애착쪽으로 점차 유도되는 바깥쪽 애착이다. 그리고 몸종들의 아들들은 위의 두 애착들을 보조하게 될 가장 바깥쪽의 애착들이다.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은 하란에서 태어났고 베냐민만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사랑 받는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해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 주었다. 색깔(colors)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진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상징한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형들의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고, 형들의 나쁜 감정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함으로 미움이 된다. 후에 형들은 요셉이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 크게 분개한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그들의 안부에 관해 알아봐서 자신에게 보고 하도록 심부름을 보낸다. 그때 요셉의 형들의 첫 마디는 “보라, 꿈장이가 오는 구나” 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를 얽잡아 보는 경향이 있으며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상적인 것을 한쪽으로 밀어두기도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악을 들추어내자 그분을 저 버린 것 또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생애를 예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AC 제 4669항)에서 “요셉은 주님의 인성 중 신성한 영적 부분, 즉 주님의 신성한 영적 인간(Lord's Divine Spiritual Human)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분의 신성한 인성(His Divine Human)이 표현 하는 신성한 영성(Divine Spiritual)” 또는 “천국과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하느님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요셉의 이야기는 실화로,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리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이 실화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실용적인 교훈을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시험을 통해 그가 더욱 위대해지도록

하셨고 후에 그의 가족까지 구원되도록 배려하셨다. 앞서 공부했듯이,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 기억적 지식은 세상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적 지식을 쌓기 위해 열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이란 표현은 이 사실에 대한 예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긴 어린 시절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또한 이집트에 내려 가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질서라는 것과 그분이 입으신 인성(Human)은 「배움(learning)」-즉 성경의 글자-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은 많은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분 역시 어린 시절에 모든 성경을 그분의 외적 기억(external memory)속에 저장해 두셨다. 스웨덴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직접 흘러가지 않으며, 또 이 진리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기억적 지식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기억적 지식이란 우리가 외부로부터 습득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말씀의 글자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 주신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자기의 이론 혹은 연설을 보조하는 자료로써 읽거나 성경의 어느 구절이 내 주장과 일치해 그것만을 반복해 읽는다면, 그것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깊게는 주님의 생애와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 또한 말씀의 속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애착들을 상징하며 이 애착들이 잘 사용되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들은 때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쁜 방향으로 움직여진 애착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우리들 안에 있는 요셉은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부분 즉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에 대해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부분이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심정 상태 때부터 계속

저장해 두신 “남겨 두신 것(remains)” 중의 하나에 속한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고 꿈들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순수한 애착으로 주님께 대해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종속되어 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위에서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세상적인 애착들(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요셉)을 그에게 있는 보다 더 나은 것을 뺏은 후 기억적 지식이라는 영역(이집트)에 쳐박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를 위해 요셉을 보호하고 강건케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시도하면서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완전한 실패로 이르게 되면 요셉을 찾거나 재발견하려고 한다. 이 때 우리는 요셉이 더 이상 약한 어린애가 아닌 권위 있는 통치자로 그 권위 하에 보호 받아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 질문 정리

-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 9) 요셉이 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리 12) 죽이기로
- 13) 르우벤
-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16) 기본이 되는 모든 정신적 자질
- 17) 영적 원리
- 18) 영적 원리가 우리의 외적 기억 속으로 추방당하는 상황

## 8

### 모세의 출생

####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

지 떨어지게 됐다.

###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룬,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 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샅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 교리 요점

\*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 상응 연구

왕골(rush): 올바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생각

송진(pitch): 이기심

모세(Moses): 하느님의 법

### 해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파라오」의 요셉에 대한 신임으로 인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땅을 얻었다. 이 이야기 줄거리는 주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사실이 주님의 방향에 맞춰 질서 정연해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평화롭고 행복하며 아주 유익한 상태로 우리의 유아기가 이런 상태라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말씀을 읽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을 통해 특별히 주님과 이웃에 어떻게 해야 유익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적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또한 우리가 말씀이 생각의 방향을 잡는 기초임을 염두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로이 하면 이러한 상태는 지속될 수 있다.

배우는 상태가 진보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요셉 역시 그가 죽기 전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옮겨다오”라고 후손에게 단단히 다짐 했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되풀이 하여 약속 하셨다.

가나안은 “약속된 땅”으로 불리며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상속물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적 인격이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번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세상적 부귀신성화에 전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높은 영적 지각을 우리의 기억 속에 버려두고 더욱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집중한다. 이것은 요셉이 썩지 않게 관에 넣어져 이집트에 보관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후손은

이집트에서 번영하였지만,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죽은 후에 새로운 「파라오」들은 점점 요셉을 모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이 “여호와”임도 잊어 버려서 주님 스스로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세상적 지식만 추구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임을 잊고 이기심과 세상적 원리 밑에 놓이게 되어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것은 곧 우리의 높은 속성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교리를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선택되어졌고 마음이 영적 교훈에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도록 주님에 의해 규율되었음을 염두해야 한다. 「파라오」들의 억압이 고조됨에 따라 노예화된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소리는 높아졌고 노예로부터 풀려나고 싶은 그들의 소망이 간절해졌다. 이것은 선한 생활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노예화 되어버린 스스로를 자각하고 불만족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히브리족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은 「헤로데」왕이 베들레헴의 사내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또한 그 명령은 우리 안의 세상적 본성이 갖는 발악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세상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진리의 씨앗의 성장을 두려워하여 아예 그 씨앗을 없애 버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보존되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그 요소란 주님의 법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그것은 모세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이 지식을 간직하려는 순수한 마음(애착)이며 모세의 친어머니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유아기에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있는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에 저장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며 타인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지켜줌으로써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애착)이며, 이것은 「파라오」의 딸로 묘사된다.

모세를 담은 왕골 상자는 법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것 즉 역청이 칠해진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의 법을 글자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식은 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왕골 상자는 역청으로 인해 보존되며,

역청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법이 보존됨을 뜻한다. 그 이유는 법에 대한 무지 역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순간과 모세를 담은 왕골상자가 강가에 내 버려지는 순간이 일치되는 순간은 가장 적절한 기회로 주님께 의한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못을 수정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때를 만든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40년씩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시기는 이집트에서 보내졌으며, 그것은 그의 출생과 더불어 왕골 상자 안에 보존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왕골상자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지식을 뜻한다. 왕골 상자를 물 위에 잘 뜨게 해주는 역청의 의미 중 하나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 지식으로 양육되어지지만 우리 내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인에게서 양육되었으나 히브리인의 전통 역시 간직하고 있었음과 같다. 모세의 첫 시기는 히브리인을 때린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하며 끝나는데, 이는 스스로의 느낌들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첫 충동적인 시도와 우리와 영적 생활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모세가 미디안의 땅에 머무른 시기이며, 이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얻은 「크투라」에게서 난 아들이다. 좋은 의미에서 미디안은 단순한 선(good)에 속한 심정 상태와 생각들이며 모세는 거기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수련이 된다.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이 상징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순수함과 단순한 선한 의지가 옳다는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았다는 것은 단순한 선일지라도 삶으로 살아 내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이라는 것이 40(시험의 완결)이라는 수로 상징되며 단순한 선일지라도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님께 가깝게 한다는 것이 목자로 상징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모세가 불붙은 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에 끝난다. 세 번째 시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기이며 그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다.

출애굽 이후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이 천국적인 상태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선하고 진실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기억 창고 안에 방치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반추해 봄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오랜 세월을 요구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광야의 여행은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막연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리들(십계명)을 실천하겠다는 원칙하에 우리의 외적 생활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적인 상태(가나안 땅)로 이르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상징한다.

### 질문 정리

-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 10)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이집트에서의 속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2)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쪽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 속에 놓아 둬”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10)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1) 세상적 지식, 사업, 쾌락 등의 노예가 됨 12) 하느님의 법(Divine Law)

## 9

# 홍해를 건너다

###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일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일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어 머리 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막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룻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룻 근처 바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  
였다. “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  
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  
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 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 교리 요점

\*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 선은 사랑되어야 하는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해서 안된다.

### 상응 연구

빵 = 선함

누룩 = 거짓

불 =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진리

구름 = 지상에 형체를 가지고 있는 진리 또는 말씀을 담은 글자

홍해 = 악으로부터 나와 축적된 거짓 또는 지옥

### 해설

과월절과 그 의미를 재정리하며 시작하도록 하자. 먼저 이와 관련된 민수기 9장 1-5절, 여호수아 5장 10-12절, 열왕기하 23장 21-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30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들은 과월절의 첫 기념이 「시나이」광야에서 있었다는 것,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거룩한 땅에 입성한 직후 길갈에서 기념되었다는 것, 잃어 버렸던 율법 책을 발견한 직후 「요시아」왕 아래서 과월절 행사가 있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녁 때 주님께 의하여 과월절 기념이 있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 네 군데에 있는 과월절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과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개종(conversion)"과 연관이 깊다. 일부 기독교 교파는 개종, 즉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을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교의 목적으로 삼아 이를 위해 부흥회와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호소하는 수단들을 동원한다. 하지만 새교회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개종이라는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새교회가 강조하는 개종의 의미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많이 다르다. 새교회에서의 개종이란 자아 중심적인 삶의 한계와 악함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첫 단계로 어떤 감정적인 감화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의 결과라고 스웨덴북은 설명한다. 따라서

개종은 거듭나는 삶을 내딛기 위한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세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애착들의 굴레를 벗어나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동시에 나의 인격이 천국적인 인격이 되도록 재구성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긴 여정에 첫발을 내딛어야만 한다. 과월절은 이 결정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은 어떤 영적 생활도 자연적 생활 그 자체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묘사한다. 과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재앙이 건너가는 것은 모든 영적 삶을 위한 지식과 힘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늘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번덕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 때마다 과월절로 상징되는 바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성찬식에 경건하게 참석하여 몸과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또한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하게 되는 참된 길을 주님과 말씀에서 찾으며 또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풍요로웠음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져 더 이상 주님과 내적 결합이 불가능해지자, 주님은 말씀의 상응을 통해 그분과 인간이 연결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유대교회를 통해 비록 걸 부분에 불과한, 즉 표현적인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과월절의 모든 행사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분 스스로 이 빈자리(gap)를 채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과월절이라는 형식적인 행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드실 때 잔을 드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분부 하셨다. 스웨덴붉은 이것이 유대 교회의 마지막 과월절이며 기독교회의 첫 번째 과월절이라고 설명한다. 즉 과월절은 유대인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만찬식은 주님께서 지옥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것으로 구원이 실제임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 가운데 빵은 과월절의 어린 양 고기에 해당되며 포도주는 양의 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는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과월절의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셨다.

주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완료하도록 명령하셨다. 우리는 어떤 난관을 극복할 해결점을 찾는 첫 순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계획 또는 생각들로 인해 기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첫 번째 열의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지 못했던 경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해결 방안을 찾은 순간, 그 자체는 우리의 인격의 재구성을 위한 길고 긴 시기의 한 점, 즉 한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생활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의 근처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법도에 따라 우리의 외적 삶을 순리 안에 정돈해 놓아야한다. 이스라엘 후손들의 40년간 여정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해 주며 인도해주는 말씀을 담은 성경의 글자를 의미한다. 구름기둥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한 낮의 상태를 그리고 불기둥은 의심과 의혹으로 짙은 밤의 상태를 인도하는 주님의 배려임도 알아야 한다. 스웨덴붉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한 그 두 기둥들을 하느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말씀을 담은 글자를 의미하며 불을 가진 구름(불기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글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즉 우리의 심정에 와 닿는 하느님의 진리를 뜻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결심에 대해 처음으로 오게 되는 시험과 같다.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한 자신의 검증은 우리의 긴 영적성장의 여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입증해 주는 생생한 증거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성급하고 조급했던 모습은 이렇게 대단한 기둥들에 의해 인도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 그들이 고센 땅을 서둘러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작스럽게 길을 가로막은 홍해와 뒤쫓아 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건널 수 없이 깊게 보이는 홍해를 건너거나, 이집트 군대에 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보다 높은 곳으로 발전시키려 하면, 과거의

습관은 재빨리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옛 습관 들의 힘은 곧 바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른다.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즉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 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건너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홍해처럼 느낀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만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한다. 홍해란 세상적 혹은 이기적인 삶에 있는 악과 거짓이 바닷물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곧 지옥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세의 팔 즉 하느님의 법이 홍해 위에 이르자 위협적으로 보였던 바다가 주님이 일으킨 동풍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선한 인격의 단단한 기초를 구축하게 된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자마자 자신들이 극복한 유혹이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는 얼마나 무기력한 과거의 습관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는 홍해 안에 침수되는데, 이집트인의 병거는 세상적 사람을 움직이는 거짓 원리를 뜻하며 병거 바퀴는 우리의 영적인 목적에 대항해 전진하려는 힘을 뜻한다. 우리는 본장의 내용과 우리의 새로운 결심에 뒤따르는 첫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중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즐겼던 “좋은 것”(민수기 11:5)을 갈망하며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았음도 기억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 10)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11) 홍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이집트 군대가 파멸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질문의 답

- 1) 재앙들을 내림 2) 과월절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6) 홍해 근처에서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넜음 9) 물에 빠져 죽음
- 10) 세상에 속한 것만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함을 묘사한다.
- 11) 악에서 나오는 거짓이 축적된 상태 12) 세상적 삶의 노예가 되었던 것과 영원히 이별함

## 10 십계명

###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

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들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떡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 교리 요약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며 사람이 지어낸 법이 아니다.

### 상응 연구

우리의 아버지: 주님

## 해설

본장의 말씀은 이집트를 뒤로 하고 삭막하고 생소한 광야에 진입해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 나쁜 습관을 한번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전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용감히 돌진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얻었을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두 달 동안 여행하는 모습은 우리가 인격을 재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묘사한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적 형태를 갖추며 국가의 근본이 될 법을 얻게 되는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 겪어야만 했던 것들이다.

십계명이 외형상으로 구체화되었던 때는 모세 시대 훨씬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법전들의 기초였다. 성경을 인간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나이 산에서 계명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왜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 박히도록 아주 인상 깊은 방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계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명이 하느님의 법임을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중의 하나인데 그이유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읽어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의해서 써진 역사적, 종교적 기록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는 계명의 어떤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책을 쓴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에 대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천둥과 번개가 있게 하였고 시나이 산을 연기로 뒤덮으셨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계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후 하느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계명들을 쓰셨다. 계명들은 모든 옳음과 행복한 삶의 반석인 하느님의 법이며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해당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개의 돌판들을 발견한다. 첫째 돌판의 법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사항들이며 둘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을 말해 주고 있다. 계명은 대부분 금지 사항들이다.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어투가 눈에 거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적인 어투는 거듭남을 시작하여 영적인 여정에 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인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또는 어떤 시기에 우리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이 명령적이고 단호한 어투는 우리가 거짓과 악에 속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본문 중의 사람들은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취해진 돌판 위에 주님이 손수 새기신 이 진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때로 친구나 가족이 주는 조언 또는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때도 많다. 우리가 이와 같을 때는 똑같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똑같은 충고도 강경한 명령형이나 거친 금지 조항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된다. 다시 써진 돌판은 시나이 산 밑에서 준비된 것으로 모세가 다듬은 돌판이었다. 이것은 생활 속의 진리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를 수 있는 형태로 놓여 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준비가 되기 전에는 강경한 글자의 어조를 통해서라도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기 전에 악한 행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사야 1:16-17).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만약 우리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거나 계명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해 질 수가 없다. 계명은 곧 행복한 삶의 반석이다. 우리는 운전 중 도로 표지판들을 통해 가고자 하는 길을 찾게 되거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지표지판과도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이 운전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지표지판은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그것을 지키며 운전할 것이다. 앞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은 우리의 타고난 인격이 천국적 인격인 약속된 땅으로 가는 여행을 상징한다. 계명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내자로 주어졌다. 계명은 그들에게 그것에

순종하면 번영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곤란함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에게도 계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계명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짓에 유혹되어질 때, 또는 사고가 빈번한 십자로로 질주하기 전에 가까스로 멈춤 표지판을 보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위험한 영적인 십자로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억된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게 된다.

주님은 계명이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역사의 증언이나 이성적인 추리, 그리고 우리 일상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도 계명이 깨어지면 그러한 삶에는 어떤 평화도, 행복도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명들과 더불어 신명기 6장 24절을 함께 마음에 담아 두도록 하자. “우리를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이렇게 복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느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은 계명의 글자에서 보여지는 진리이지만, 사실 계명들은 글자 안에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예로 셋째 계명을 생각해 보자.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첫 번째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면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 계명에서 이름이란 사람 또는 사물이 가진 속성(quality)을 뜻한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속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단지 그것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책의 일부로 여기며 말씀의 이야기들을 일상 중의 농담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결국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자기 합리화로 변호하게 되는 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성 모독은 특별히 새교회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 이유가 새 교회인들은 상응을 통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그것을 악용할 때는 더욱 큰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지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경외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명의 전체 내용을 통달해야 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8859-8912 항을 찾아보면 오늘의 본문이 다뤄지고 있으며,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283-331항」에서도 그 깊은 의미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계명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위엄과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자.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 4) 석 달 쯤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 14) 주님은 왜 시나이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15) 광야의 여행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질문의 답

-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4) 이 계명들이 하느님의 법임을 보여 주시려고  
 15) 재형성 - 영적 삶을 위한 준비시기

## 11

# 나답과 아비후

###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성 서 본 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7. 그대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요.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여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 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 교리 요점

\* 이기적 동기에 근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킨다.

### 상용 연구

불 = 사랑 또는 미워함  
 큰 제단위의 불 = 주님을 사랑함  
 이상한 불 = 자아를 사랑함  
 향 = 기도 또는 공적예배

### 해설

1884년경 주일 성경공부를 위해 출간된 책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헤이든 (Wm. B. Hayden) 목사는 레위기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기서를 「와이이크라(Vayyikra)」라 불렀는데 이 단어는 레위기서의 첫 말씀으로 부터 인용한 것이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야훼께서 만민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사실상 이 레위기서의 요점이다. 하느님의 음성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름(call)”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서의 모든 항목과 법령의 첫 머리에서 반복되며, 사실상 거의 전 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로 레위기서를 마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로부터 근원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명 레위기(Leviticus)는 그리스어의 레위티케(Leuitikon), 의미상으로는 레위인에 속한 것(Levitical, or that pertains to the Levites)에서 파생된 라틴어이다.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폭 넓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직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치는 것에 관련된 8-10장까지의 역사적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이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들은 제물과 헌납, 순수함과 불순함, 거룩한 날과 기념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교도 국가를 구분하는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26장에는 야훼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는 서약에 관한 규정이 쓰여 있다.

출애굽기 3장을 상기해 보자. 주님이 모세를 불붙은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주님이 내리시는 사명을 사양한 이유는 “말재간(설득력)이 없는 것과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표현하며 이것은 인간의 심정이나 감성에 즉각적으로 호소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그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4장 14-16절에서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 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 주고 그의 입에 넣어 주어라. 나는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 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성막과 성막에서의 예배에 대한 지시를 시나이 산에서 받았다. 그리고 아론은 대체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보조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모든 레위족은 성막과 성막에서의 예배에 관한 봉사를 위해 따로 분리되었다. 대체사장은 아론의 가문이 물려받도록

지시되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첫째 아들은 나답, 둘째 아들은 아비후, 셋째 아들은 엘르아잘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엘르아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속성 중 신성한 선(Divine Good)을 상징한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그는 “영적 교회(Spiritual Church)의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반면 모세는 “내부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말씀에 근거한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인도하며 주님께서 산에서 보여 주신대로 가르치고 하느님의 법도에 의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이었다. 고대 히브리 교회는 단지 참된 교회를 표현 할 뿐임을 상기해 보자. 이 표현적 교회란 인간들이 예배의 깊은 의미를 모두 잃은 후 주님이 이 교회가 가지는 표현성에 상응으로 깊은 의미들을 담아 주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던 과도기적인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는 고대 교회 이후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시기까지 존재했는데 예배를 이루는 외적인 형태만을 유지했으므로 외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배에 관한 세부사항 조차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지해야 했으며, 세부사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하게 실천되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진 처벌의 공의로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한 명령 역시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 백성들은 슬퍼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혹은 외적 상태로는 악의 결과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다 높은 이해성은 이러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 그 이유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것을 악용했을 때의 결과 또한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안에서 향이 바쳐질 때 향로에 담을 숯불이 성막 뜰에 있는 큰 제단으로부터 취해져야 된다는 규율을 어겼다. 제단은 사람이 스스로의 자아는 악하며 무지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뜻한다. 제단 위의 불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향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찬양을 의미하나 특별하게는 공적 예배 때에 드리는 기도나 찬양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의 무가치성과 주님의 절대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한”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은 우리의 예배를 자극시키는 이기적 동기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함”,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사업적 영리를 위함” 혹은 “이성적 만남을 위함” 등과 같은 동기들로 주님 대신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목적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향로에 부정한 불을 담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자아사랑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이것이 예배를 관장하게 되어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의 불로 타 죽었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캠프는 항상 시나이 산에서 명령된 대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배치도는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상징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캠프 밖으로 속옷을 입은 채 던져진다. 여기서 사제의 겹옷이 아닌 속옷임을 강조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것은 외적 예배(겹옷)가 모독될 때 내적 예배(속옷)에 내려 올 모든 가능성도 함께 파괴되어짐을 뜻한다.

본문의 끝부분은 문자적으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속뜻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연속성이 보여 말씀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 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적 혹은 천적을 막론하여 진리로 예배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선으로만 예배해야 함을 뜻한다. 이후의 내용에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파괴하거나 모독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현대의 생활과 필요성으로 볼 때 시대와 뒤쳐지고 무관한 것처럼 여기며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아주 깊고 가장 필수적이며 실용적인 것에 대한 내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는 그 상징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쉽게 기억되고 글자적인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정에 와 닿을 수 있으면서도 레위기가 주는 가르침의 중심을 담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성막이란 무엇인가?
-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 18) 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큰 제단 위의 불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이상한” 또는 기록하지 않은 불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e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12) “이상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8) 기도 19)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20)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 12

### 발람

####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뵈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뿔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람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람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뿔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갈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숯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 가 이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인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요?” 하고 대답하자 13.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

서 이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꾸밈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뵘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번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요?

21. 야곱에겐 재앙일량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량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종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갑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 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뵈고 엿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굵이굵이 뺨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율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은 싫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 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엿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뺏치고 19.야굽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켈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함대가 기뻐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다. 발람도 자기 길을 갔다.

### 교리 요점

- \* 고대 교회의 말기에 상응에 관한 지식이 악용되었는데 그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마술의 시작이다.
- \*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상응 연구

- \* 일곱 = 거룩한 것들
- \* 나귀 = 자연적 추론

### 해설

발람의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것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나귀에 관한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일 것 같지만, 이것은 단지 진정한 가르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여행을 끝내는 곳 즉 “에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진을 쳤음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무력으로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요술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후 동쪽에 사는 유명한 마법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다. 모압은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과 혈연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이 해치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라 중의 하나로 자연적 선을 표현한다.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의 모압족은 스스로 높은 영적인 것에 맞서려고 일어날 때에 선을 간음질(섞음질)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연적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친절한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인격을 재구성하고 자비롭게 되는 데 충분하므로 굳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들을 반쪽 진리로 이끌게 되어 결국에는 이렇게 주장하게 만든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낫다.” 이것이 반쪽이나마 진리인 이유는 이러한 주장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동안 행해진 또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위선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발심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쪽의 진리로는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적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며 언뜻 보기에는 거룩한 듯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적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 즉 이들은 외적 예배로부터 선과 진리를 찾아내면서 내적 예배에 속한 것들은 거절하거나 무시 한다”라고 말한다. (AC 2468)

본문의 이야기에서 발람의 위선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그의 위선이 주님께서 해야 할 말을 주지 않으시면 말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위선은 발락을 만족시키고 발락이 제공한 보상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상응을 악용하여 저주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주님께에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람에게 가르친 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 절에 대해 스웨덴북은 이렇게 설명한다. 발람은 아람, 시리아 또는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 지역에는 고대 말씀에서 내려 온 지식의 일부와 고대 말씀으로부터의 상응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선한 자들은 이 지식을 소중히 간직했으며, 이것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동방박사들로 인해 절정을 이룬다. 이 지식은 악한 자들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마술이나 점술과 같은 것으로 변해 버렸는데, 발람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발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음과 주님의 권능이 역사 될 때는 상응을 통하여 이뤄짐을 알고 있었다. 발람은 이러한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발락을 시켜 일곱 제단을 쌓게 하여 각 제단 위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발람은 주님이 상응을 통하여 자기에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헤아리고 있었다. 발람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별은 진리로서 오실 주님을 뜻하며 왕권은 왕으로써 오실 주님을 뜻한다. 주님이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세 후손의 정수리를 부순다 함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악과 거짓을 주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발람이 발람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땅의 근접까지 도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해하고 전복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영적인 것들에 대항하려는 자연적 인간의 마지막 발악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 마음의 지상적이며 자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적 인격형성을 위한 외적인 재구성을 완료했을 때 즉 주님께 순종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정착 시켰을 때, 우리 내에 영적 원리를 건설할 마지막 단계를 취할 준비가 완료 되어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천국적 삶에 “나의 본향”을 만들 때, 곧 이러한 모든 일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꿈틀 거리며 빠져 나오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상적이며 자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침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며 말씀으로부터 논쟁을 찾아내 외적인 삶이 내적인 삶보다 훨씬 중요함을 확증하려는 시도까지 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이 자연적 빵과 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발람과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위에 있게 됨을 명확하게 묘사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려고하면 우리에게 경고들을 주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경고한다. 본문에서 “하느님이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의 경고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나쁜 것을 행하길 주장한다

면 주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여 이를 허용하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뒤를 따라 오시며 우리의 더 낮은 마음에 호소할 방법을 찾아 우리 앞에 놓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더 높은 층의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차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다. 나귀는 자연적 이성(추론, reason)을 상징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연적 추론이 우리가 계획한 악한 행위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곤경의 일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천사를 세 번씩이나 나귀 앞에 세우시면서 까지 발람에게 그 여행의 목적을 재검토할 기회를 주셨다. 천사의 경고가 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집하는 악한 길의 여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 결과까지 추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이다. 나귀는 물론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자연적 이성에 호소하는 것을 상징한다. 발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눈은 길 가운데 있는 천사를 보도록 열렸다.

발람은 이러한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갔고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봤을 때 그의 저주는 막상 입에서 나왔을 때는 축복으로 변하여 버렸다. 이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파가 배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진영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진영은 천국적인 질서에 따라 조직화된 삶을 의미하며 천적인 질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중심에 종속되어 우리의 애착들과 생각들이 적당히 배치되는 상태이다. 발람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주신 모형에 따라 조직화 된다면, 영적 삶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외적 요인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유혹되어지며 유혹 당할지도 모른다.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민수기 31:8),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인들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악(발람)을 식별할 수 있는 빛이 주어져서 결국 그 악을 짚어 넘기게 된다는 뜻이 된다. 마음속 깊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선한 사람은 지속적인 거짓 예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여기 저기 존재하는 외적 악들에도 빠지지 않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주어 악과 거짓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힘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속뜻에 의해 마음 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 중의 일부를 내세워 성경을 인간이 만든 책으로 격하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발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글자 그대로의 뜻만 받아들여 이것을 오히려 말씀을 불신용 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말씀을 이렇게 모독한다면 그들을 향해 바른 뜻을 외칠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도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보다 진실 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
-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 19) 나귀는 무엇을 표현 하는가?
- 20) 이스라엘 진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질문의 답

-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9) 자연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 추론함 20) 진실로 잘 정렬된 삶 즉 삶의 중심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두는 상태

## 13

### 예리고 성의 정복

####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켈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켈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켈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켈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켈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켈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돌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견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만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 교리 요점

\*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으며 심정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 \* 시험에 부딪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 \*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신실한 자세로 행해야 한다.

### 상응 연구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truth fighting)

성 = 체계적 교리 (a system of doctrine)

예리고 =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해성  
나쁜 면에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부정

종려나무 = 악을 극복하는 승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원칙

수양 = 차차 성숙해 저서 강건함을 가진 순진함

수양나팔 = 옳은 것을 외침

### 해설

거룩한 땅의 점령은 영적인 삶에 대한 성취를 표현한다. 이 점령 과정의 첫 단계는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과 예리고를 정복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의 차이점을 알기란 꽤 힘든 일이다. 특히 자연적 삶이 선행으로 가득하고 질서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별이 더 어렵다. 자연적 삶은 자연적 생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기쁨과 만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적 인식과 이에 따른 예배의 주된 동기는 악한 행실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선한 행실에 뒤따르는 보상을 기대하여 순종하는 원리에 국한된다. 영적인 삶은 주님과 그분의 목적을 삶 속에서 의식하고 일시적인 가치를 영원한 것으로 대체 시킨다. 그리고 심정과 지성이 영원한 가치들을 간직하려 애쓸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삶도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자연적 사람은 세상에서의 고난을 자기를 벌하기 위해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간주하고 죽음을 비운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정도로 성공을 측정한다. 또한, 자연적 사람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를 해치는 자는 적이며 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영적인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영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보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죽음을 질서에 따라 참된 행복을 얻는 하나의 단계로 여긴다. 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삼으며 예배는 주님이 내리신 특별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 또 그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나 자기를 좋아하는 자나 모두 주님의 자녀로 간주하며, 잘못된 것을 가진 자는 방향을 바꿔 의를 행하도록 도와야 함을 인식한다. 자연적 인간은 주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으로 만족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배우기를 원한다. 자연적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삶이 질서에 맞으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여기지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의 악들을 성찰하며 이 악들을 모두 다 제거하려 애쓴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스웨덴봄은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순종함으로 행동하나, 거듭난 후에는 애착(affection)으로부터 행동한다”고 말한다. (AC 8505참조) 찬송의 한 구절인 “천사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도 생각하게 해 주시고 천사들이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는 영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바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일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이 천사들도 느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이미 천국의 백성들인 천사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요한복음 15:15). 즉, 천사들은 이미 영적으로 주님의 벗에 준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면 인간인 우리는 아직 종의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천국적 인격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악과 거짓으로 향하는 유전적 경향성(all sorts of inherited tendencies)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것은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과 같으며 정복해야 하는 성벽을 두른 성들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을 적처럼 대하는 것 대신 순수한 종교적 측면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타인으로 인해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되고 스스로의 적들 즉 결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적대시 당한 느낌이 성벽과 같이 내 마음에 들어서지 않도록 배워 가는 것과 나아가서 마음의 응어리를 상징하는 성벽의 그림자조차도 내 마음에 드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적대시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내가 그를 도울 어떤 방법이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하셨다.(마태복음 10:36) 우리는 말씀에 언급된 악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실히 자기반성과 자아 성찰을 행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성서의 “거인들”로 상징되는 우리안의 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단단한 벽을 가진 성”이란 우리 안의 악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짓 추론이 만든 보호벽 같은 것이다. 오늘 예리고성의 정복이라는 이야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선 요르단 강까지 이르러야 한다. 요르단 강은 “내려오는 사람(물건, descender)”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헤르몬(Hermon)산의 눈이 녹은 다음 돌진하듯이 흘러내려 가 사해에 이르러 증발된다. 이 강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묘사한다, 즉 주님의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와 천국을 통해 내려와서 다양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삶의 아주 낮은 상태에 접촉될 때까지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알려 주는 단순한 진리들은 거룩한 땅의 경계선으로 묘사된다. 거룩한 땅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요르단 강이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군대를 막는 것처럼 보여 질 때는 진리가 거꾸로 된 상태 즉 거짓들이 우리 안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가 전투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짓들로 인해 우리는 “나는 그 친구를 도울 수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인가!” 혹은 “인간 본성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중지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호수아 5:10-12) 만나란 시련의 시기 동안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천국적으로 이뤄진 충분한 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충분한 만족은 가나안에서의 과월절과 소출로 표현된다. 사람들이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중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재구성(reformation)될 때에 갖게 되는 영적 만족은 천국적 삶에 있는 영원한 기쁨(joy)을 잠깐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 만족감이 줄 수 없는 깊고 연속적인 행복으로 산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상기해 보라. (요한복음 15:11)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셨다. (여호수아 1:6-9) 그것은 법을 성심껏 지키라는 것, 힘을 내어 용기를 갖고 적을 공격할 것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 줄 것을 믿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는 요르단 강을 건널 때와 예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 이행되었다. 요르단 강을 건너도록 인도했던 것은 계명을 담은 케이다. 요르단 강 바닥에서 가져온 열 두 개의 돌은 모든 입문적인 진리들을 뜻하며, 그 돌들은 후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가에 세워졌다. 그들이 예리고성을 돌 때 그들 앞에 간 것 또한 케이었다. 케를 멘 사제들은 강 앞으로 똑바로 가도록 명령되었다. 그리고 사제의 발이 강물에 닿을 때까지 강물은 갈라지지 않았다. 예리고성을 일곱 바퀴 돈다는 것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방어하는 거짓들을 완전히 정복해야함을 표현 한다. 요르단 강은 기적으로 갈라졌다. 과월절을 지내도록 명령된 것은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일곱 수양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는 하느님의 선에서 나온 그분의 진리가 발휘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들이 예리고를 돌 때 앞장 선 것은 케이며, 예리고는 기적에 의해 그들에게 넘겨졌다.

예리고의 정복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안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주님의 보호 없이 무사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모든 악을 탐닉하려는 상태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서 다르게 바뀌는 것을 의미 한다. 예리고는 “종려나무성”이라고도 불려진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영적 삶을 위해 배워야하는 일차적 교훈을 말한다. 자만심과 자존심으로만 향하는 경향은 우리의 타고난 속성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우리는 더 전진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극복해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약속된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발견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어떤 강이 이스라엘백성을 거룩한 땅으로부터 분리시켰는가?
-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 8) 케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 11) 칠일 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예리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예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는가?

## 질문의 답

- 1) 요르단강
- 2) 기적에 의하여
- 3) 길갈
- 4) 과월절
-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 6) 예리고
- 7) 케
- 8) 일곱 명
- 9) 수양 뿔 나팔
- 10) 하루에 한번
- 11) 일곱 번
- 12) 성벽이 무너짐
-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 14) 파괴해 버렸음
-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 16) 거듭나는 생활의 시작
- 17) 자연적인 자만
- 18) 자만으로 빠지려는 경향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정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14

## 드보라와 바락

###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맡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불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데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밤의 지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불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꽃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놀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구원하신다.
- \*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된다.

### 상응 연구

베델 =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라마 =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텐트 = 예배 속의 어린 시절 같은 상태

야엘 = 이스라엘을 돕는 자, 즉 천적인 천국을 돕는 자,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 해설

신명기 6장 10-12절에서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써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들이실 때가 되었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너희가 가꾸지

많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리라. 그리 되더라도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너희 하느님 야훼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판관 시대는 신명기에서 예견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그 땅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정복 전투는 그들에게 잠깐의 평화를 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들은 자유로이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이 될 마을과 도시들을 건설하며 그 땅의 소출을 즐겼다. 이것은 그들이 늘 갈망하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삶속에서 주님이 염려하여 오래 전부터 당부한 것에 대한 시험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던 동안과 주님의 기적들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던 동안은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결혼했다. 마침내 그들은 이방인들의 우상까지 숭배했다. 이것은 거둬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오는 시험에 관한 묘사다. 영적 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우리는 처음에는 무언가 잘 해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여호수아(싸우는 진리를 상징함)가 살아있고 주님이 시험에서 건져 내신 여러 증거들을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간직한 이스라엘 후손들과 같다. 따라서 열정을 가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승리해 나가며 영적 동기들로부터 사는 삶에서 오는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 우리는 마치 올바른 삶에 정착된 듯 느끼며 긴장감을 잃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와 싸워왔던 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님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감에 취해 새롭게 발견한 안전과 평화로 자신만만해 하는 동안 적들은 다시 일어나 세력을 얻어간다.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으니 적의 심중은 간파하고 있다”는 식의 과신은 과거의 무자비한 악한 감정, 또는 세상적 추론과 타협되도록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주 우리의 하나님 대신 세상이 숭배하는 성공, 쾌락, 돈, 권력 등등 진짜 우상들이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판관시대이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되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뒤에서 추츨거리며 억지 동행을 한다. 그러다가 우리는 소멸됐다고 생각했던 적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되며, 한동안 적을 스스로 무찔러 볼까하고 투쟁하

다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특수한 진리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것은 주님이 판관들을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의 의미이며, 한 명의 판관의 지휘 하에 적들을 토벌하게 되고 다른 적이 등장 할 때 까지 평화를 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경향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주님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악을 침묵시키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 판관기 2장 22절을 통해 주님이 왜 거룩한 땅에 이러한 적들이 남아 있도록 허용하셨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이 백성이 조상들처럼 내가 가르쳐 준 길을 명심하고 바로 가는지 시험해 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가운데 강인한 인격을 얻게 됨을 뜻한다. 시편 55편 19절의 “그들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옵니다.”라는 기록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표현한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꾸준한 운동으로 단단한 근육을 얻듯이 시험을 통해 강인함을 길러 나간다.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빛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은 의견을 갖는다. (고린도전서 10:13) 이와 더불어, 주님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험을 강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더욱 깊은 악의 뿌리를 보고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의 저술에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시스라가 등장한 이 전투의 줄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나 「계시록 설명 제 477-4항」편에서 이 전투는 “악에서 나온 거짓과 선에서 나온 진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설명 제 434-13항」에서 시스라는 “교회를 파괴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북쪽에 있는 적들은 이해성 부분에 해당되는 거짓들이다. 이 거짓들은 계속적으로 자라서 우리가 그 성장의 빠름을 눈치 채기도 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굳이 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예로 들어 보자. 신실한 신앙인들이 보기에 이 주장은 아주 명백한 거짓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멀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대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썩 마음 내켜 하지 않거나 한번쯤 참석해 보고는 다시는 참석하기 싫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한다. “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야, 그러니 교회에 안 가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든 일을 하니 주일 만큼은 꼭 자거나 아니면 차라리 교외로 나가 다음 주일의 힘든 일을 위해 좀 쉬어야만 해.”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교회에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교회에 참석 안 해도 세상에서 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거짓인 이유는 세상의 삶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며 거듭남을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징하는 영적인 거듭남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드보라는 여관관으로 예언자였고 “라마와 베텔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살았었다. 라마는 천적인 것에서 나오는 영적 진리에 속한 것을 상징한다. 베텔은 내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원리로 삼음을 뜻한다. 따라서 드보라에 관한 내용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찾는 내적이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한다. 이 애착은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우리를 이끈다. 지휘자와 군대가 선발된 두 지파는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부딪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됨을 의미한다.

야엘에 의해 시스라가 죽는 모습은 옛 화가들이 그리기를 즐긴 주제이다. 이 장면은 아주 격렬하며 잔인한 그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는 이들의 이해성에는 하나의 큰 장애물과 같을 것이다. 제 5장의 드보라의 승전가에서 야엘이 어느 여인보다도 복을 받은 자로서 표현되며 마치 살인 행위가 기쁨에 넘치는 행위인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이 잔인한 행위를 어떤 좋은 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며 잔인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다. 스웨덴봄은 이를 주님이 최하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이 와 닿도록 하기 위해 그분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우리 주위에는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보다 높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속뜻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 야엘은 켈족 헤벨의 아내며,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야엘은 거짓에 속하면서도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에 존재하며 꿈틀거리는 애착을 뜻한다. 야엘의 마지막 타격을 살펴 보자. 타격을 가하는 야엘이란 우리 안에 있는 야엘 즉 주일 성경 학교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던 어린 시절 속에 있던 애착이 시스라를 강타하게 되는 것이다. 텐트는 거룩한 것을 표현한다. 텐트의 말뚝은 선한 삶 즉 거룩한 것들이 보편적 상태 안에 정박(anchor)하는데 쓰이는 특수적 진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한 진리는 계명의 하나 또는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어느 성경 구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강타(a blow)란 위협하던 거짓이 안심하며 잠든 짧은 순간에 “퐁”하고 일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적(enemy)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의 악과 거짓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가면 전쟁에 관한 것, 적을 전멸시키는 장면, 정복, 각 성읍의 파괴 등등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특별한 교훈임을 알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8) 여관관은 누구인가?
- 9) 여관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 15) 누가 승리했는가?
-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 18) 판관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묘사하는가?
- 19) 북쪽에 있는 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 20) 천막 말뚝은 무엇을 뜻하는가?
- 21) 야엘의 영적 뜻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판관 8) 드보라
-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8)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
- 19) 거짓 사상을 생산해 내는 시험 20) 예배와 일상생활을 묶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단순한 진리
- 21) 이스라엘(천적인 천국)을 돕는 사람,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 15

## 사무엘의 출생

###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판관은 사무엘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중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몹몹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젓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나?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 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혀었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때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뵈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낼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떼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머니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 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인생을 체계화해야 한다.
- \*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우리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를 회복시켜 보존해야 한다.

### 상응 연구

사무엘 = 주님이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에서 같은 믿음 상태를 통해 말씀하심  
머리털 = 가장 바깥 측면(행동), 말씀의 글자

### 해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스웨덴북이 말하는 이스라엘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된다. 판관기의 전쟁들은 거룩한 땅에서 고향을 발견한 이들 즉 하느님의 법도에 따른 삶과 바램을 정착시킨 이들을 습격하는 시험들을 묘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과신으로 빠져 하느님의 법에 부주의함으로써 세상적인 유혹들에 빠져 영적으로 퇴보해 내려감을 그려주고 있다.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은 내. 외의 모든 측면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부주의함은 자기 과신의 산물로서 처음에는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주의함을 유혹에 복종한 뒤에서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타파해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 판관기에서는 영적 진리를 뜻하는 베냐민지파까지 전복되어 거의 파괴될 지경에 도달할 정도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나빠져 간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때때로 미미한 사건이라 방심하다가 우리를 퇴보하게 하는 거것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퇴보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음을 지각할 때 까지 계속된다. 심지어는 우리와 주님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삶의 내적 의미에 대한 감각이 강탈될 때 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미 퇴보해 버린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발점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시발점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순종을 일시나마 회복해야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사랑 받아 온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The Sower」라는 책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모든 시대의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음이 지적된다. 부모에게 자녀란 그들이 바르게 자라서 장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시게 하기위해 주님이 부모들에게 잠깐 빌려주듯이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듯이 부모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자녀들을 바쳐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사무엘로부터 단순한 순종심과 신뢰심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자세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무엘의 삶의 초기는 주님의 생애 초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자.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누가복음 2:52).

본문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 이상의 넓은 의미를 내포함을 알아야 한다. 순진, 신뢰 그리고 순종과 같은 어린 아이의 상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려져 있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멀어져 배회하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와 같음을 깨닫고 한나처럼 새로운 헌신을 서약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면, 어린 아이의 상태는 우리 안에서 되살아서 우리를 영적 삶의 새로운 발달로 인도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이 뜻하신 바인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8:3-4)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사무엘의 초기 목회생활 즉 섬기는 생활은 우리가 겸손한 심정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심정상태에서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수한 신실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삶의 길잡이로 교회를 찾게 된다. 그리고 3장 19절의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두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 감동적인 상황의 어두운 배경은 경시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배경을 살펴보자.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 나이 들어 눈이 잘 안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서의 예배 순서를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망나니로서 야훼를 몰라보는 자”였다. 그들은 제물이 주님에게 바쳐지기도 전에 빼앗고 제물에 대한 그들의 몫 이상을 착복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모독하였다. 이것은 2장 17절의 “이렇게 그들이 시종들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엘리는 그의 가문을 사제직에서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 받았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몹시 혼냈지만,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고 권위도 없었다. 엘리는 그의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예배를 사리사욕과 스스로를 높이는데 이용하여 예배의 의미가 격하된 상태를 묘사한다. 제사장이란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내적 지령(inner dictate)을 의미하지만, 엘리가 아들들의 추행을 제거 못했듯이 이 제사장은 악을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무력한 우리 안의 제사장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것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며 더 이상 주님의 소리를 직접 받을 수 없게 된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앞서 인용한 2장 17절은 이 같은 상황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됨을 암시한다. 교회 내의 소수가 행한 위선과 자기욕구 충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등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의무는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 밖에 놓아두어야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의 글자 그대로 보면, 주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사제직을 영원히 맡기겠다

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네 집과 네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사무엘상 2:30)라고 말씀하셨다. 예배가 타락된 상태는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즉 사무엘의 순종의 섬김과는 직접적으로 대조된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사제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들은 우리 안의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오게 하는 것 즉 주님을 섬기고 싶은 바램을 표현한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비교하면 그들은 무지해 보인다. 그러나 사무엘의 부모들은 진정한 종교의 근본이 되는 겸손과 순종을 지녔다. 「천국의 신비 제 9325-8항」에는 한나의 예언적 감사 찬양 (사무엘상 2:5)과 관련된 흥미 있는 상응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음”이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선 가운데 있지 못한 이들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선 가운데 있고 싶어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 시편 113편 7-9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구절들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란 새로운 교회 안으로 부름 받아질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옛 교회가 교회로의 의미를 잃게 될 때 즉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더 이상 진정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선행이 없는 믿음이 되었을 때,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이양될 것임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의 어린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결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즉, 겸손과 순종만이 주님과 우리가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사무엘 상 3:21)”하여 다시 한 번 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 9)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카나와 하나 3) 실로 4) 엘리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7) 실로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9)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 속에 주님이 아껴두신 것(remains)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말씀

## 16

### 사울을 선택함

####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 성서본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중손이요 스를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맥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뭇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쉐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요.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판사람이 될 것이요.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작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얹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 교리 요약

\* 우리의 성인 생활은 주님을 섬김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첫째가는 원리가 때로는 우리의 파생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 상응 연구

기름 = 사랑  
왕 = 이끌어 가는 진리  
사제(제사장) = 지휘 감독의 원칙은 사랑임  
사울 =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치함

## 해설

본문은 고대 히브리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의 역사적 윤곽을 정리하여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족장 계열로 이어지며, 이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뜻한다. 이 족장들의 삶은 우리의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표현한다. 이러한 세 시기 동안 우리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며 우리의 이해성과 독창성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간다. 두 번째 시기는 이집트에서 체류한 후로 법을 상징하는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 형태가 도입된다. 이 시기는 스스로 강박감을 느끼는 심정상태이다. 이것은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심정상태와 같다. 이 시기에는 질서 있는 생활 혹은 순리적인 생활의 결과와 불순종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확신하게 되어 계명에 대한 외적 순종이 모든 일상생활의 당연한 귀결로 된다. 이후에 우리는 다음 단계를 취할 준비가 완료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내적 삶에 있는 악을 공격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 앞서 배웠듯이,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이다. 우리는 선한 생활을 이룰 때까지 즉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여호수아를 따라야 한다.

판관기는 아직도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만약 시험과 싸우는 것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적들(악들)이 우리의 안팎에서 기세를 다시 얻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각기 다른 진리를 앞세워 각기 다른 안과 싸우는 갖가지 전투들의 연속인 것이다. 이것은 판관기에서 한 명의 판관( 특수한 진리)이 하나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잠시 동안 평화와 휴식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또 다른 판관의 지휘 아래서 전쟁을 치르어야 만 하는 것으로 묘사 된다. 모세로부터 판관기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와

지도자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선 그리고 지도자의 직무는 진리를 표현한다. 두 직무가 서로 협력하는 동안은 리더십이 공고해서 일이 잘 진행된다. 그러나 둘의 조화가 깨지게 되면 즉 어느 한쪽이 부패해지면, 결과적으로 방만함과 그에 따른 재난이 온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두 직무는 한동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8장 1절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결합되어 있던 직무들을 다시 나누어 일부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였다.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언제나 끊임없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인간적인 사상들은 마음속에서 서서히 움직여 우리가 잘 세워 놓았다고 생각한 하느님의 질서를 썩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즉 출발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바란다는 것은 청년기의 반항과 자기 과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실 때 그 뜻을 몰라 난감해 할 때가 종종 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이것은 하지 말라 하시고 저것은 꼭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는 저것이 이것보다 더 나은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 저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시원하고 명확하게 이해시켜줄 부동적인 행위의 원리이다. 이것은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젊은이들은 부모 또는 타인에게 그들 행동의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물어 보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영적 발달의 한 단계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예견하셨다. 주님은 신명기 17장 14-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고 주님이 선택한 왕을 받들도록 명령되어짐을 미리 말씀하셨다.

제사장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바람은 손실이 있게 된다. 천적인 상태는 아주 어린 아이와 부모의 관계처럼 주님만을 찾는 바람이다. 설령 자기 신뢰(자립)의 바람이 진리를 순종하는데 있다하더라도 무지, 실수 그리고 재난이 뒤따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이

단계에 이를 때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님은 이 단계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셨다. 또한 주님은 인간 왕 아래서의 생활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하셨다. 왕이란 판결하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 진리는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여서 언제나 어렵고 고된 상전과 같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AC 8770-2) 즉, 판관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판관이면서도 제사장인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는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한 하느님의 선이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제왕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을 포함하지 않은 채 하느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AC1672항에서 “국가(nation)”와 “백성(people)”의 차이점을 규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는 그들은 나라였다. 그래서 나라로서의 그들은 선 또는 천적인 것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원해 왕이 들어서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선 또는 천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리 또는 영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이 하나의 과실로서 그들에게 짐으로 지워진 이유이다.”라고 설명한다. AC2015-11항 또한 참조해 보자.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립적으로 판단하고자하는 바램은 부모의 권위와 자기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모든 권위에 대한 배척을 초래한다. 부모들은 이를 억제할 수 없다. 부모들은 단지 그러한 배척에 따른 위험을 알려주고 주님이 선택한 왕 즉 하느님의 질서에 일치되는 원리를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주님이셨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고, 미스바에서 벌어진 제비뽑기에서 제비가 사울에게 떨어지도록 하셨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한 사울의 시대는 짧았고, 전투에서의 그의 승리 역시 몇 건에 불과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은 부적당하였다. 우리는 주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와 그분이 왜 단번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 현명한 지도자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벨리알(Belial)의 아들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울이 왕이 됨을 기쁘게 승낙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젊은이들은 행동에 있어서 모순 없는 원리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리는 사랑에 근거한 법칙밖에 없다. 문제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노력과 피땀 흘린 경험의 병행한 결과로 사랑의 법칙을 재고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때로 자연적 선한 충동을 따르는 것이 사랑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선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의 법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사물의 외관 또는 자연적 충동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가진 탁월한 겉모습 때문에 그를 왕으로 쾌히 받아 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이 그들에게 적합한 왕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다.

사울은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하려 했고, 몇몇 적들도 멋지게 무찔렀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지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기대해볼 수 있다. 외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우는 교회의 교리, 논쟁 혹은 직접적인 결과들 즉 부흥회에서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광경이나 암 치료 등의 눈으로 확인되는 결과에 현혹되어 잘못 인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울이 가진 체격 즉 큰 키에서 풍기는 압도감이 그들을 사로잡을 뿐이다. 우리는 많은 상황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식으로 배운 것을 넘어서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경험들을 위해 준비되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 질문 정리

-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 12) 왕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사울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는 왜 통치했는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2) 통치하는 진리 13) 1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된 진리가 통치함을 의미한다. 2 사람들이 받아야 할 통치 수준이 상식적 즉 자연적인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

## 17

### 다윗을 기름붓다

####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뽑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 상응 연구

다윗 = 우리의 영적 이성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

베들레헴 = 선에서 나오는 진리

악기들 = 말로 표현하듯 진리들로 표현함

## 해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다윗은 하느님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계시록 설명(Apocalypse Explained) 205항 및 다른 여러 저서를 통해 다윗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구약성서는 깊은 의미로는 주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주도적인 상징들(인물, 사건 등등) 역시 주님의 여러 가지 면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 역시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타 사물이나 사람들도 표현적 상징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표현되는 상징들 즉 사건과 인물들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섭리가 크게 작용되어 있는 것들로서 그것들이(figures) 갖는 내적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윗은 실존했던 인물로서 우리처럼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었다.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을 아끼듯이 다윗도 아끼셨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주님과 연결되는 다윗에 대한 성경 속의 많은 예언들은 다윗이 주님에 대한 “표현적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을 참고하면 주님을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계보”라고 예언한 말씀들에 대해 이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41-46절을 읽어 보면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주님의 생애가 어떻게 관련 되는가를 꾸준히 연구하게 된다. 우리는 다윗이 우리들 속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왕들은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사울왕은 외모에 의해

선출된 왕이므로 외적 즉 표면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는 하느님의 진리이다. 한편, “주님은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라는 구절처럼 하느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겉을 보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겉이 아닌 속을 보고 선택하신 다윗왕은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함이다. 따라서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은 마음의 영적 수준 위에 모든 의미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다윗은 씩씩하고 용감한 용사로서 모든 문제(언어까지도)들에 있어서도 사리 분별했다. 그럼에도 그가 양을 지키는 목자였을 때는 순진한 애착들을 보호함을 뜻하기도 한다. 다윗은 또한 “하프 연주자”였는데, 이때는 “영적 진리”를 상징한다. (AC 419)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는 적을 소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곳으로 켈을 옮겼다.

하느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성은 그 진리에 대해 변한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인 자연적이며 외적인 이해성을 거치면서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이해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적 이해성은 더 깊은 악들을 노출시켜 그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서 우리 마음의 집이 질서 있게 건축되게 한다. 우리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게 될 때,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적당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꾸준히 보존한다면, 우리는 베들레헴 즉 “빵의 집”에 계신 새로운 왕을 찾도록 인도될 것이다. 스웨덴복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 왕이 “천적인 것에 근거한 영적인 것들 (the truth of good)”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AC 4594) 그곳은 동방박사가 육이 된 말씀(Incarnate Word)을 찾도록 인도된 곳과 같은 장소이다. 즉, 우리의 꾸준한 노력은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의 선한 바람이 좋은 결과와 부합되는 성취를 얻게 될 것이다.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는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현상(現狀) 즉 겉모양에 해당됨을 알고 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지침에 관련된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름을 뿔에 채워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실수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해성을 필요로 함을 표현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를 발견하도록 일하고 새“왕”을 기름 붓는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해왔던 판단의 습관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의 사울을 즉시 제거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거의 습관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한다. 우리는 단지 비관적인 상황에서만 새 지도자에 의존하고 그를 통해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이 우리를 통치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운 이해성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요구된다. 즉, 다윗이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통치했고 다윗이 왕으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옛 이해성의 결점을 인식하고, 통치의 권한을 새 이해성에게 이양해야 한다. 또한 권한의 이양을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함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첫 연고 관계에 관련한 스웨덴북의 설명 중 다음 대목은 매우 흥미있다. “하프(harp)는 영적 진리들(spiritual truths)에서 오는 고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 진리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Lord's spiritual kingdom)안에 있는 천사들을 감화시키는 진리들을 뜻하며, 그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짓들을 무능하게 만들며 흐트러 버린다. 따라서 사울 안에 있었던 악령은 다윗이 하프를 연주함으로써 사울에서 떠나 버렸다”라고 설명한다. (AE 323-12)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몹시 사랑했고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을 정도로 신뢰했다. 이것은 옛 이해성과 새 이해성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도와서 선악시비를 가리는데에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옛 이해성은 새 이해성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히는 명백한 거짓을 없애거나 또는 명백한 악들이 그를 덮쳐 오는 경우 숨통을 트여줄 도구로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경을 글자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겪게 될 때 말씀의 영적 해석을 수궁하며 시험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스러움을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들의 옛 사상인 직해석 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 따라 전체의 말씀이 해석되어 저야 한다는 원리를 거부한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한번 형성된 습관들을 깨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보좌위에 머물렀다. 처음에 그는 다윗에게 친절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을 보좌에서 밀어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다윗을 적대시하였다. 그러나 기름부어 진 후 다윗의 능력은 점차 커졌고 사울의 힘은 점차 쇠퇴해 갔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매우 관대했으나 보좌를 차지하지 못했다. 즉 우리의 자연적 이해성이 최상의 것을 낳더라도 그것은 더 높은 판단력을 건설함에 있어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를 기억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자연적 이해와 영적 이해 사이에는 불연속적 등차(discrete degree)가 있으며, 재구성(reformation)과 재탄생(regeneration)의 관계도 이와 같다 .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 16) 다윗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7) 다윗이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이 권좌에 머물러 있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베냐민, 예수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불이 붙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 15) 시편들 16)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영적으로 이해됨
- 17) 낡은 습관은 고쳐지기 힘들다

# 18

## 솔로몬의 지혜

###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헴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까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궤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잡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  
 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 교리 요점

\* 의를 사랑할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 상응 연구

귀와 듣는 것 = 순종

성전 = 주님이 거처하시는 진정한 인격

솔로몬 = 말씀에 순종함을 사랑하게 될 때 있게 되는 통치하는 진리

## 해설

솔로몬이 보좌에 오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태가 열림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 요점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의 아들 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 갈 때와는 다른 계보였다. 둘째는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 기름 부어졌고 즉각적으로 왕권을 승계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을 도와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건축하는 일과 영토를 치장하는 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요한 계시록 설명 654항 29번에서 솔로몬은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즉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은 다윗의 통치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다윗이 이룬 업적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사울과의 투쟁으로 지연되고 이웃한 적들과의 전쟁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통치 시기와는 판이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변화는 매우 느리며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이해성이 세워지고 거듭남에 반하는 악들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훈련과 힘이 축적되면, 우리는 투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된다. 이는 천적인 상태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행한다. 다윗의 죽음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스러움 또는 “천적(celestial)”상태는 솔로몬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심정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이 진리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ruth)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극복하는 이에게 나는 하느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노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가장 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며

여호와 외의 다른 신들까지도 숭배하도록 허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정한 행실들은 왕국이 분단되는 요인이 되며 또한 높은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는 시험들은 상존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시험을 저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솔로몬이 세상에 오신 후의 주님을 표현함을 기억한다면, 솔로몬의 다중 결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은 주님의 이름 혹은 인격에 관한 지식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적 원리 하에 의롭고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모든 종교의 선이 주님에게로 이끌리도록 애쓰신 주님의 사랑을 묘사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꿈속에서 주님에게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을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 바램이 솔로몬을 표현한다. 선한 것 안에 세워진 마음은 진리를 지각하게 된다. 지식(knowledge)과 총명(intelligence) 그리고 지혜(wisdom)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지식은 기억 안에 있는 사실(facts)들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에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명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명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 총명은 합리적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섭리(providence)가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지식들을 응용하며 배열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총명 없이 계명에 관련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지혜는 심정과 지성 양쪽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계명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계명에 맞추어 갈 때, 우리는 계명이 삶의 법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발달 단계는 본문 1절에서 파라오의 딸이 기억적 지식을 사모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흥미롭다. 또한 열왕기상 7장부터 9장 2절까지도 읽어 보자. 밀로는 예루살렘 성벽 중 하나였다. (사무엘하 5:9도 참조)

계명들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심정(heart)안에 새겨질 때 지혜로워진다. 진정한 우리의 존재는 심정으로부터 이뤄진다. (마태복음 12:34-35 참조)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백히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하더라도 선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 또한 계명을 준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러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복음 7:24-26)"는 말씀을 기억하자. "어리석은 자는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없도다.(시편 14편 1절)"라는 말씀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획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흑백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의 요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누가복음 12장 31절)"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한다.

동화 중에는 소원을 들어줄을 기초한 것들이 많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익숙하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슬기롭지 못한 선택과 그에 따른 재난의 결과들을 기초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반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즉 어른들은 동화를 통해 고대 말씀의 어떤 것을 찾고자하여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며, 어린이들이 피상적으로나마 슬기롭게 무엇을 소원해야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님은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너희에게 줄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라고도 하셨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것을 수행하는 자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주님은 동화 속 이야기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슬기로운 소원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 주시며, 어리석은 소원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지만 그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면 그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짧은 삶이 끝난 후의 우리는 영원한 가난 속에 직면하게 됨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선들을 소원하며 일해 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실패 없이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영원한 선들은 저 세계에서도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없이 큰 곱간을 짓고 그 곱간을 쉽게 채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너로부터 요구하리라. 그러면 네가 모아둔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것은 네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지 하느님을 향한 재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주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주님이 처음 우리의 바램을 물으실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이 누린 평화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 11) 기브온에서 꿇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16)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2) 음악, 시인 3) 시편 4) 평화 5) 예루살렘 6) 솔로몬 7) 다윗 8) 평화스러움 9) 기브온 10) 성막(tabernacle) 11) 주님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13) 이해력이 있는 심정 (understanding heart) 14) 성전(temple) 15) 40년 16)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랑함

## 19

### 엘리아와 아합

####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 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아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빨감을 짜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뉘주에 밀가루 한 줍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빨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뉘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뉘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던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 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썸과 계곡을 살살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비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

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종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서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거듭남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지성 부분은 심정부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시험에 복종 당한다.
- \*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 상응 연구

유다왕국 = 의지 부분  
이스라엘 왕국 = 이해성 부분  
엘리야 = 예언적 말씀  
바알 = 자아를 하느님처럼 여김

### 해설

스웨덴북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은 고대 히브리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다. 여기서 히브리 교회,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초기에 해당 된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며 히브리 교회는 점진적으로 발달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총독이 된 요셉의 비호로 이집트에 정착하였지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들의 고통을 가엽게 여기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호렙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계명들을 받지만 믿음의 부족으로 40년간의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뭉치게 만들었고 이 후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그 다음이 “모든 이가 자기 눈에 드는 대로 행동”하여 혼란과 고통, 그리고 관관을 통한 주님의 구하심이 반복되는 관관의 시대였고, 마지막 관관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열왕기가 시작되었다. 다윗의 정복 사업이 솔로몬의 현명한 통치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질서와 사회체제를 갖춘 진정한 국가로 거듭났고 내부의 모든 적들을 소탕했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그 후 긴 세월은 아닐지라도 강력한 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들이 공물을 바쳤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인간의 영적 발달과 연관이 아주 깊다고 설명한다. 진정한 영적 발달은 이기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아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데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연적 지식들 또는 세상의 쾌락들에 일시적으로 속박된다. 따라서 계명에 따르는 질서 있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쟁과 오랜 고통을 견디어야 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시지는 않아 우리를 인도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절반만 통과한 채 만족해 버리고는 우리 속 깊이 박힌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대신 그들과 타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로 우리 내면의 인격은 그것을 지배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들을 지각해감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점진적

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기까지 이르는데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맞보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태들은 이 세상 삶에서 거둬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오게 되며 저 세상까지도 연결된다. 우리는 이 같은 상태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높고 고귀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과의 싸움터 맨 앞에 서 계신다. 따라서 주님이 실제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영적 승리는 늘 새로운 시험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강하고 깊은 악들을 주님께서 노출시켜 인식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새로운 악과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면 그 악을 이길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된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통해 솔로몬이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절에서는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아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리의 실재와 그에 따른 즐거움과 평화란 승리들이 연출해낸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의 애착들에 악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악들이 노출되도록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신다.

스웨덴북은 교회라는 측면이 개별적이든지 일반적이든 간에 이스라엘 왕국은 교회 속에 있는 영적 또는 “생각” 측면을 표현하고 유다 왕국은 교회 속에 있는 천적 또는 “사랑” 측면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AC 4292) 주님께 관련해서는 이해성과 의지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8770항을 통해 이스라엘 교회가 표현적 교회임을 염두하고 분열된 두 왕국을 떠올리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흥미 있는 논리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개인적 생활과 말씀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본다. 분열된 왕국의 역사는 곧 성인 생활의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desire)과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understanding)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선한 바람(desire)들을 가지며, 행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나쁜 바람을 갖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분열된” 상태가 되는 데, 이 때 우리의 심정은 이쪽으로

향하고 우리의 판단력은 다른 곳에서 해매게 된다. 심정과 이성이 함께 할 때 만족이나 성취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길게 지속되지 못해서 우리는 자기만족 혹은 탐욕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분열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는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만 우리의 이기적 느낌을 인식하는 새로운 진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거듭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하셨다. 우리의 세상적 바램들은 이기적이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기적 마음에 항상 복종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이기적 목적에 맞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접근할 수 없다. 생각과 애착(affection)의 분리는 일시적이며, 조금 더 높은 평면에서는 재결합을 도모한다. 선한 바램을 가지려면 그를 수행할 지혜를 구해야 하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면 그것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바램을 육성해야 한다. 선한 바램에 적절한 지식이 더불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선도 성취될 수 없으며 자아 사랑으로 급속히 빠져들게 된다. 반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만족된 진리는 급히 열매 맺지 못하는 추론의 영역으로 빠져서 결국 상실된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두 왕국 모두 다른 왕국들의 포로가 되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다. 하지만 그는 첫 왕 여로보암의 후손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계보는 세 번의 폭동으로 이미 변해 있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은 영적 인격의 성장이 목적이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결국 새로 어떤 것이 나타나거나 혁명적인 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악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들 보다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워 놓은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를 지속했고 바알을 숭배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 땅에 바알 제단과 신전을 세웠다. 바알에 대한 숭배는 주님에 대한 예배가 거꾸로 되어 자아 숭배로 빠지게 됨을 뜻한다. (AE 324-21) 아합의 통치 하에 있음은 삶의 생각하는 부분이 금송아지를 세운 일 즉 “외향적 선한 일”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한 것보다 후퇴된 자기만족 혹은 희열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됨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가뭄과 기근이 뒤따른다. 자신만을 잘 섬김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에 문을 닫게 되므로, 우리 속에 자양분을 주어 키워야 할 영적 생명은 죽게 된다. 스웨덴북은 “천국을 통해 흐르는 하느님의 진리가 악 속의 거짓들 때문에 받아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다른 신들’ 또는 ‘바알’이 의미하는 바이며 그 신들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뜻이다.”라고 설명한다. (AE 644-8) 악에 근거한 거짓들이란 언제나 튀어 나오는 거꾸로 된 추론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길만을 고집할 때 타인의 좋은 충고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비는 물론, 이슬 한방울도” 그 땅에 내릴 수 없다.

주님은 이러한 위기에 엘리야를 보내셨다. 예언자들의 전도 여행은 악을 항상 질책하고 악에 대한 벌을 예언하며, 선한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용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고 선한 이들에게 흠모된다. 그 당시에는 엘리야를 제외하고도 예언자가 아주 많았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8장을 보면, 오바디야가 이세벨로부터 구원한 예언자만도 백 명에 이른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언자들로부터 외향적 지침에 관한 많은 직접적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말씀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은 항구적이며 보편적 의미를 전달한다. 그 중 엘리야는 예언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말씀의 예언서 부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지칭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의 법 부분과 예언 부분들을 상징하는데,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변모하셨을 때 주님과 대화하기도 했다. 스웨덴북은 천국도 이와 같아 엘리야라는 이름 대신에 “예언적 말씀”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S.S. 71) 엘리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예언되는 상황으로 나타나 악을 책망한다. 그리고 만약 악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보여준다. 또한 선한 삶의 보상도 보여준다. 신약성서에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 “장차 올 엘리야”라고도 불린다. (마태복음 11:14) 오늘날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서 시대와 같은 예언자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실 때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천적인 삶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이끄는 데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엘리야는 처음에 그 땅 안의 작은 그릇 개울가에서 주님께 의해 보호되었다. 그를 먹인 까마귀란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영적 삶의 어느 정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연적인 생각들을 표현한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처음 내어 보냈던 이야기를 상기해 보자.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는 그 땅 밖으로 보내졌다. 물이 다 마르는 때는 엘리야가 되돌아 올 시기가 가까워짐을 뜻한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 속의 어떤 것을 우리 안에 보존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살아있도록 배려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외적 영역, 우리 마음들의 배경 혹은 외적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하고 말씀의 어떤 것을 떠올리고 싶을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시며 기다리신다. 과부란 선하게 살기를 원하나 진리가 결핍된 상태를 뜻한다. 우리 삶의 상태는 아합 통치하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거룩한 땅 밖의 과부란 외적 형태에 조금 남아있는 부드러운 감정에 기대서라도 말씀이 호소된다는 것이다. 과부의 아들은 이러한 막바지 상황에서도 영적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약간의 씨를 의미한다. 엘리야는 죽기 전에 남아 있는 한줌의 밀가루와 기름을 먹으려고 장작 두 개를 줍고 있는 과부를 발견했다. 이는 외적 온정을 지원해줄 자양분조차 없어진 때를 표현한다.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 오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뭔가를 해 보라. 그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을 인식하면서 해 보라. 그러면 조금 밖에 안 남은 네 속의 선함이 곤경을 이겨내게 해주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리로 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지탱시켜 줄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에 관한 실제 지식이 없거나 자기만족 혹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 온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에 미치게 될지 모르는 말씀의 구절들을 기억들 안에 붙잡고 있다. 우리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 의해 보존되고 이와 반대로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존시키는 예들의 의미를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알게 된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고 낙심할 때 혹은 인생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용한 것처럼 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 후에 각 사람과 살아 남아있던 말씀이 위력을 보여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들어 올려져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다시 살아나 회복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의 출처를 확인하게 되어 주님에게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되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는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막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엘리야를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보존하셔서 우리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신다.

아합 역시 물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는 하느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궁내 대신인 오바디아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섰는데,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발견하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오도록 함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라는 인사말을 했다. 사리사욕은 언제나 주님의 소리가 자기를 망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따라서 대결은 불가피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가르멜 산으로 호출되었다. 이는 마음 전체가 영적 빛 안에서 명확하게 보고 판단될 수 있는 높이까지 이르러야 함을 표현한다. 엘리야는 대결할 쟁점에 대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라고 명백히 말했다. 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님을 사랑함과 자아를 사랑함은 직선의 좌우 극점처럼 서로 상반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리사욕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일에만 주님을 섬기며 6일간은 자아를 섬길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재산을 얻을 때까지 자아만을 섬기고 그 후에 모은 재산을 좋은 것을 위해 써도 만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느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공부하며 슬기로운 삶에 대해 그분 보다 잘 아는 이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섭리에 따라 주어진 그대로 받아 간직해야 한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들에 꿰맞춤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세상적 요구, 자극 혹은 이기적 추론에 상당히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해야 할 대담한 선택을 주저하거나 거절하게 됨을 표현한다.

바알을 위한 예언자는 수백 명이었지만, 주님의 예언자는 한 명뿐이었다. 이는 거짓된 방법은 아주 많으나 진실한 방법은 하나 뿐임을 의미한다. 세상적 추론의 소리는 많으며 꽤 떠들썩하다. 바알 예언자들은 한 낮이 되기까지 바알을 불러댔다. 그들은 절뚝거리는 춤을 추며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우리는 거짓 예언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그는 분명히 의로움에 틀림없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바친 걸 생각해 봐!” 하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불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의 번제물 위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로부터의 불이란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심정 안으로 오는 것을 뜻하며, 그 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반면, 자신만을 헤아리고 자신의 총명을 유일한 삶의 길잡이로 여기는 이들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엘리아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는 열 두 개의 돌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이는 순수한 선함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말씀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돌아가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선함이 행해져야 한다. 엘리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물 위에 물을 퍼부어 제단에 홀리넘치도록 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좋을 대로 논쟁함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논쟁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예배를 통해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들을 행복과 평화로 채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실재하심에 대한 참된 증거가 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아추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을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여긴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잊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 우리가 가르멜 산으로 올라가 이 대결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후에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을 잡도록 백성들에게 명령되었다. “그리고 엘리아는 백성들이 서로 잡아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함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분이 주님임을 인식하여 자아사랑을 방어해 온 모든 거짓 추론들을 찾아내고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의 빛으로 그것들을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후, 엘리아는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했다. 우리의 “개인적 특질”은 우리를 타락하게 했다. 그러나 비가 다시 오게 될 때 즉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상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원기가 회복된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 21)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엘리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20)비가 내렸다 21)이스라엘 - 지력 또는 이해력, 유다 - 심정 또는 의지 22) 예언의 말씀

## 20

# 아사왕의 통치

###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룬,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 교리 요약

\* 우리는 삶의 첫째에 주님을 섬김 이외의 것을 놓는 일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한다.

### 상응 연구

시리아 = 자연적 평면에서 쓰이는 합리적 능력

발 = 외향적 지침 (outward conduct)

## 해설

유다왕국은 주님과와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의 의지(will)- 바램(desire), 애착 (affections), 동기(motive) 를 그려준다. 이스라엘 왕국은 지성, 이해함을 그려준다. 왕국이 분열된 후 이스라엘이 유다 보다 더 빨리 타락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성은 의지 보다 더 타락하기 쉬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왕들은 모두 악했다. 반면, 유다는 다윗의 계보에 따르는 왕위를 유지했고 다섯 명의 왕들은 선했다.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을 좋아했고 악했지만, 선한 왕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우리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닐 때에 있게 되는 우리의 애착 측면의 삶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대신 세상적인 것에서 비롯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로 묘사한다. 유다의 경우 그 중심 원리 즉 왕은 오랫동안 주님을 신뢰하는 쪽에서 우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해진 바램과 애착, 즉 그 땅의 백성들은 흔들리는 생각들에 유도되어 더욱 타락되어서 선한 왕들마저도 그들을 질서로 되돌려 놓지 못한 상황에 이른다.

분단된 왕국의 지도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북쪽 국경 근처에 위치한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방어적 역할을 크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적으로 된 상황에서의 예루살렘은 공격받기 쉬운 처지가 되었다. 본문의 라마란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라마가 아니다. 여기서 라마는 “언덕 (hill)”을 의미할 뿐이다. 가나안 땅에는 몇 개의 라마가 있었는데, 본문의 라마는 이스라엘과의 경계에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게바는 아사왕이 라마에서 가져온 재료로 지었는데, 경계선 동쪽 지역에 위치한다. 아사왕과 바아사왕 사이의 작은 충돌을 지도를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착과 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지성이 그릇된 길로 벗어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애착들은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아사왕과 바아사왕의 충돌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사상들의 테두리에 괴팍한 추론이라는 요새를

견고하게 지어 놓음으로서 의지의 움직임을 조절시켜 보려고 애쓰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바 왕국의 초기 시대에 속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한 의지의 힘으로 괴팍한 추론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같은 재료 즉 같은 사실과 논쟁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요새, 즉 주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요새를 짓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바 역시 “언덕”을 뜻한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관계에 따른 모든 상세함은 우리 속의 생각과 바램의 상호 작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로 선한 왕이었다. 제 11절에서는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산당은 그대로 보존하였지만 아사는 일생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또,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또한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라고 한다. 아사가 보좌에 오르기 전의 유다 왕국은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얌이 있었다. 우리의 지적 부분이 주님께 대한 충절을 저버릴 때 또는 우리의 지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음을 중단할 때에 우리의 심정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결과는 당연히 나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선한 심정은 이를 인식하게 되므로, 악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를 위한 개혁도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이다. 스웨덴본은 “소돔인들은 선용이 눈곱만치도 없으며 자아추구만을 사랑함이 극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설명한다.

스웨덴본의 저서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 제 2722항에서는 “그러나 산당(high places)은 제거되지 않았다(14절)”라는 구절에 대해, “고대 교회(Ancient Church)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산 또는 작은 숲에서 거행되어졌다. 산에서 거행된 이유는 산들은 예배의 천적인 것을 의미했고 작은 숲은 예배의 영적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다양한 표현적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점차 흐려져서 후대에는 산이나 숲들이 마치 거룩함 그 자체인 것처럼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산당을 쌓고 나무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했던 것들을 우상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0-23절을 읽어 보자. 산당이란 좋은 면에서는 주님을 드높이는 것을 표현하지만,

나쁜 면에서는 자아를 드높이는 것을 표현한다. 분단된 왕국 시대 때 산당들은 전국에 퍼져 있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총명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산당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산당들을 남겨 두면, 우리는 인식하고 거절했던 옛 우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을 쉽게 세우게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산당을 제거함의 실패는 아사의 이야기 후반부와 직접 연결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왕은 그의 선한 의도를 죽기 전까지 지켰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대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심각한 실수를 행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성곽을 둘러쳐 아사를 위협했을 때, 아사는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 역대기하 16장 7절을 보면, 예언자 「하나니」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를 신뢰한 아사왕을 질책하고 그로 인해 아사왕이 몹시 화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 자만심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리아는 좋은 의미에서는 자연적 수준에서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올바르게 추론함을 표현한다. 시리아에는 고대교회(Ancient Church)의 잔류가 있어왔음을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나 동방박사(Magi)의 이야기에서 배웠다. 아사가 시리아에 의존하려 든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총명에 속하는 지식들에 의존하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에 원조를 구하면서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는 외적인 어려움의 극복과 진보를 구하기 위해서 내적인 선과 진리를 희생시키는 상황을 말해준다. 유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에서 같이 영적 총명이라는 성벽이 없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적들이 강해 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칫하면 보물을 하나씩 포기해 버리기 쉽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증명되는 진리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만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해준다고 단정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계시로서 오게 되는 영적인 보물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한다.

아사가 늙자 “다리에 병을 앓았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의존함에서 인간 총명이라는 번덕스러운 것을 신임하게 될 때 우리의 도덕적 인격마저도 하향길로 접어들어 감을 말한다. 발이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지침을 말하며 이 지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걷는다. 절름발이를 잠깐 멈추어 서서 치료받도록

주님이 몇 번이나 부르셨는지 상기해 보라. 우리가 진리를 테스트해 보는 식으로라도 인간적인 총명을 세우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술 취한 자의 걸음걸이 같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되고 만다. 주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길이니 그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사야 40장 말미를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 나리라. 날개 쳐 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 질문 정리

-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 9) 오늘의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0) 산당(high places)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 질문의 답

-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의 제거
-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 9) 돈, 권력 등등 같은 것에 “예배함” 10) 자기 자신의 총명을 자랑함

## 21

# 시편에 관해서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블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꾸준히 찾고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
- \* 우리가 무신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향한다.

### 상응 연구

강 = 주님께에서 나와 흐르는 진리  
 잎 = 원리들이 자란 생각들  
 열매 = 유용한 일들  
 겨 = 무가치한 생각들

### 해설

시편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먼저 읽어 두자. 유대인들은 시편이 율법서나 예언서와 같은 영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에 대해 주님은 이것을 주님께 대해서 쓰인 것이라고 강조 하셨고, 스웨덴북은 시편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는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시편 22편과 같은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주님의 생애를 생생히 보여주신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새교회의 정경(New Church “canon”)의 여부는 신구약의 책들 중 그 책의 내적 의미의 포함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교리적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무조건 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아 혼란을 준 경우도 있으며 논란의 쟁점이 된 경우도 있다.

정경의 절대적 신성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스웨덴북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였다. 그들은 신성한 영감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확인 되지 않은 책들을 케투빔(Kethubim) 또는 거룩한 저술 (Sacred Writing)이라고 따로 분류시켜서 일종의 문집 (collection)으로 엮었다. 따라서 그들이 율법과 예언서라고 말할 때는 이 문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또한 시편에 어떤 신성한 영감이 실재하고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시편을 성전 예배시에도 자주 사용하였지

만 시편의 절대적 신성함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편서를 우리의 찬송가 정도로 여긴 것 같다.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려는 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당연히 있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의 노래가 해외까지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역대상 15장 16-22절을 보면, 레위인 가문의 일부는 성악과 기악을 위해 특별히 훈련되었고 성막이나 성전 예배 때에 그것들이 동원되었음도 알 수 있다. 시편 150편에서는 시편에 따른 악기들이 소개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악기들도 발견된다. 단어 “셀라(Selah)” 는 시편의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음악적 기호법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영창을 위한 규율은 실제로 아주 단순하며, 영창식의 노래만이 말씀의 배열을 바꾸지 않고 부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질서와 그 연속이 파괴되지 않는 노래 방법인 것이다.

시편이 다른 말씀의 책과 달리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은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완전한 표현은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입술 위에 놓이기도 한다. 둘째, 시편은 진실한 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내적 경험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셋째, 시편은 우리가 자연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손과 인생의 매 사건 안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시편은 우리가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친근감을 준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노래 부를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시편을 하나하나의 기도문으로 여겨야 한다.

제 1편을 살펴보자. 이 내용이 시편의 제 1편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것 즉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선택이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부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고유의 자유선택권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한 쪽을 선택한 후에는 우리의 선택을 뒷받침 해줄 것 같은 많은 자료를 찾는 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란 간단히 말해서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선택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신다. 즉,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행복하며 그렇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는 것이다.

“악을 꾸미는 자리”는 “야훼께서 주신 법”과 직접적으로 대치된다. 이는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문제점의 시발점에 관한 것이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법과 세상적인 추론을 타협시키려고 하는 시험은 꾸준히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 시편은 우리가 악을 꾸미는 자리에 앉도록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되며 마침내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려 못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687-6항에서 이러한 단계들에 관한 윤곽을 밝히고 있다.

넷가에 심어진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그려진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는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한다. 이 나무는 열매가 죽어 있는 다른 나무와 대치되고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있던 생명나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2절은 스웨덴북의 “생활의 법칙”에 관한 첫 번째 즉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도록 한다. 마지막 구절인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보살피신다”는 전 성경책에 대한 열쇠에 해당된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주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것으로, ‘하느님이나 아니면 자신이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선택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와 대치되는 상황의 양면을 자주 볼 필요가 있음도 아시기 때문이다. 어두운 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거나 악에 대한 저주를 말씀 밖에서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법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악을 꾸미는 곳으로 향한다. 주님은 말씀을 쓰신 분이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만 반복해서 읽지 말아야 하며, 모든 시편을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기를 권고해본다.

## 질문 정리

-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 5) 시편이란 무엇인가?
-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 질문의 답

-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께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나무(tree) 13)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15) 주님이 법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 22

# 이사야를 부르심

###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돗(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

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에서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텔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케펠(Kefel)」에 위치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짝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짝히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 교리 요점

\*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얻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상응 연구

보좌 = 심판

스랍(Seraphim or Cherubim) =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얼굴 = 내면의 인격

### 해설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한다. 그들의 말이 비록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도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히브리인들과 모든 인류를 위한 내용이 표현되도록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구약성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의 말은 각 개인의 영혼의 삶에 대한 것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자들의 말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각 개인의 영적 생활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주님은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은 예언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사항은 악을 지적 또는 질책하고 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줌과 더불어 의를 지키는 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모든 예언서는 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반복되지는 않는다. 설사 글자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맥상으로는 아주 다른 의미를 내포하므로, 각각의 예언서는 특별한 조건과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 측면으로부터 각 예언서의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각 예언서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얻는다.

대 예언서의 저자들은 모두 유다왕국 출신이다.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말기시대에 살았으므로 포로가 되는 경험을 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일찍이 포로가 되었고 망명생활동안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직전 사로잡힐 운명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했다.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 왕에 의해 고향에 머무르도록 허락되었지만, 후에 잔류하던 나머지 백성들에 의해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정경(canon)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제키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에제키엘이 환상을 위하여 자기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 자주 언급하기 때문이다.

본문에 있는 이사야는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고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이스라엘 왕국과 대비 되는 유다 왕국이 우리의 심정적인 측면을 상징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삶의 애착 측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의 애착이 마음과 행동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아주 멀어져서 자아 사랑과 주님 사랑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때에 전달되는 것이다. 우찌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병환자였다. 선한 사람이 지닌 나병이란 순수한 선함을 식별하기 위한 지식이 결핍되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태를 각자 완전히 경험했을 때는 본문 1절의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속한다. 주님은 이때에 비로소 어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 이때야 말로 이사야가 부름 받는 적절한 시기이다. 그 후의 요담왕 역시 선했지만, 그는 사악한 아하즈(Ahaz)의 말을 따랐다. 이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의지력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은 하지만,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무기력함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혁신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서 그에 따른 통괄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자발적으로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는 히즈키야 왕이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이사야의 충고를 따랐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히즈키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개혁을 수행했다.

에레미야서는 국가의 과멸에 대한 예언이다. 에제키엘서는 요한 계시록의 요한의 환상과 흡사하며,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서 매우 인상 깊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 신실한 자들의 소리라 할 수 있고, 그들은 귀향이 허용해질 만큼 바빌론의 통치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의 탄생에 관한 아름다운 예언과 친숙해지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을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발견한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분은 예언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원리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근본원리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사야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즉 왕과 심판하시고 보좌위에 앉아 계신 분(Jehovah Zebaoth)으로서 천군 천사에게 호령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Seraphim)이란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뜻한다. 날개란 영적인 진리(AC 8765)를 뜻하고, 세 쌍의 날개란 우리속의 내향적인 것(interiors 얼굴)과 외향적(exteriors, 발)인 것을 보호하면서 자연적 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것을 끌어 올리는 영적 진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사야는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무서워 떨었다. 입이란 애착에서 나오는 생각(AE 580)이며, 입술이란 인간 속에 있는 내적인 것들(AC 1286)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580항을 통해 환상속에서 이사야의 순수함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사야는 그의 순수함으로 인해 주님의 전달자가 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7-19절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 이는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첫 부분은 복음서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마태 13:14, 마가 4:12, 누가 8:10, 요한 12:40) 이 대목은 주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성서의 말씀과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자연적 현상만 주시했을 뿐이며 만약 그들이 영적인 것을 지각했다면 신성모독을 범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용 가능한 만큼만 진리를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도 그분의 자비에 속한다고 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되면 진리에 대해서는 닫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러한 이기심의 해로움에 대해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11절)”고 하시는 것이다. 되돌아 올 “십분의 일(tenth)”이란 아껴두신 선(the remains of good) 즉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보존해 두시는 선을 뜻한다. 모든 새교회는 이와 같은 “십분의 일”에 기초하며, 이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껴두신 것들은 강직함과 항구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즉 참나무와 유사하다. 우리 역시 주님의 특사가 되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는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로서 보게 된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지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권능에 대해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후에 우리는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해주는 불 즉 주님의 이타적 사랑의 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동기(motives)들을 순수하게 해주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이

일으켜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전달된 메시지는 명료하게 되어 세상적이며 이기적이었던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천국적 인격이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두신 우리 속의 선한 그릇되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3) 어떤 관관이 예언자였는가?
-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13) 거룩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 23

### 활활 타는 화덕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었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요.”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엎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空空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空空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네 께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눈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웠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곤란과 시험의 상태일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 상응 연구

아시리아 = 마음의 합리적 평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

느부갓네살 = 자기충명, 거만, 자기 생각만 내세움, 자아사랑이 주도하는 원리

## 해설

본문은 구약성서를 따라 내려오는 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국가의 반쪽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해 동쪽으로 끌려갔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나머지 반쪽인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었다. 유다의 백성 중 일부는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예언되었고 되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지만, 이것 역시 외국 주인(왕)의 허락에 의해서였다.

유다왕국의 퇴조는 주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퇴보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의 퇴조로서 우리의 심정 안에 다른 동인들을 허용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야기 된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파괴하도록 허용 되지 않은 것은 세상적 추론은 우리의 선한 바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성이 이미 세상적 추론의 포로가 된 상태라면 이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퇴보하는 것을 가속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영적 진리와 영적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선한 심정의 필수 방파제이며,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악을 식별할 수 없다. 이는 아사왕이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청하고 그 대가로 성전의 보물들을 지불했던 것과 히즈키야 왕이 바빌론의 사절단을 친구처럼 우대하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도 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선함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생기게 되는 것쯤으로 무시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열의도 사라져 더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 예배 또한 형식적인 관습이 되어 버린다. 또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나”의 속에 들어있는 많은 악들을 인식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고 자신의 방법, 즉 사심이 가득한 방법으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려는 고집스러움으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는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상징하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1010항에서 “존경 받기를, 통치하기를, 탁월해짐을 사랑함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빛을 소멸시키며 지옥의 어두움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다니엘은 포로들 중에서 예언자였다. 그는 유다의 왕가 출신으로, 포로 초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를 포함한 세 명의 청년이 본문에 등장한다. 그들은 탁월한 정신적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양육되며 갈대아의 모든 지식으로 훈련되었다. 다니엘은 여호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대신으로 남아 있었고, 후에 벨사살과 다리우스 그리고 고레스왕의 대신들 틈에도 남아 있었다. 그는 대략 90세 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근접한 국가들의 언어인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Aramaic)로 쓰였다. 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다. 이 책은 타 예언서보다 대화체가 많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것, 활활 타는 화덕에 관한 것, 사자굴에 관한 것 그리고 벨사살의 축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로서 많이 인용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에제키엘서나 요한 계시록과 같은 기이한 환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국가들이 파멸하는 모습

으로 교회의 미래에 관한 환상도 담고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자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책의 적절한 지위를 회복시키셨다. (마태복음 24:15, 마가복음 13:14)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개인적 역사는 역경에 부딪힐 때 주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얻게 되는 보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첫째로 왕의 풍요로운 음식으로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거절했다. 바빌론 왕의 포도주와 음식은 자기 칭찬을 극도로 추구하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중에 “만일 너 스스로 진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자가 없다”라든지 “하느님은 자신을 돌보는 자 만을 돌볼 뿐이야” 등등과 같은 말이 있다. 포도주와 음식 그 자체가 악과 거짓을 상징하지는 않듯이 이러한 표현들도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의 공명심을 채우는데 쓰이게 되면 모든 업적과 성공의 근원이 바로 “나의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표현들은 이기적인 공명심을 채우는 거짓들이 되는 것이다. 네 명의 청년들은 왕의 음식대신 채소(pulse)를 먹었고, 포도주 대신 물을 마셨다. 이것은 심정의 선함과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단순한 원리를 함모함을 묘사한다. 이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궁중요리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살이 올라 보기에 더 좋았던”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용기를 갖고 자아보다 주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이들은 자기 이익만을 고집한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명예를 얻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바빌론은 “자아사랑에서 나온 지배욕”을 표현한다. 바빌론 왕은 자아만을 섬기도록 하고 모든 진리를 뒤집는 자아 총명의 원리를 의미한다. 스웨덴붉은 느부갓네살이 “진리의 모독과 더불어 파괴”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토록 하는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총명을 주님의 가르침보다 우월하게 여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신 인간의 판단을 예배하게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모든 진리가 나의 판단과 논리에 맞춰져야 한다고 여긴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암시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기들, 왕국 대신들

의 다양한 요구사항, 활활 타는 화덕, 세 청년의 갈대아어로 지어진 이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종의 최면술처럼 영향을 주며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세 청년들과 반대 되는 인간의 총명을 근원으로 하는 주장들이다. 그래서 제 16-18절에서 세 청년은 날카로운 주장으로 이러한 것들과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이다.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대체 뭐란 말이나?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느님의 진리로서 받아들고 그 안에 있는 명령들을 우리와 하느님을 엮어주는 접합제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갖는 크고 위대한 가르침들을 신앙심이 부족한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지각없이 꾸며놓은 정교한 학술적 용어나 합리화 시켜 놓은 교리들로부터 구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껴지는 느부갓네살의 협박에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한 분 하느님 외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소이다”라고 대답했던 것 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 뽕뽕 묶어서 던져진 세 사람이 멀쩡할 뿐아니라 ‘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그들과 불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이것은 시험은 진정한 믿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지상생활 중에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든 시험들을 겪으셨고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셨다. 이것은 시험을 극복하게 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 질문 정리

-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 4)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14)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 14) 자기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사랑
- 15) 자기 칭찬이나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

## 24

### 예언자 미가

####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뻘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만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려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 교리 요약

\* 선행(charity)은 삶의 근본이다.

### 상응 연구

베들레헴 = 선과 하나되는 진리

번제물 = 내적 예배의 표현물

희생 제물 = 파생적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적 예배

### 해설

소 예언서들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에 나열된 순서대로 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 순서는 연대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각 책의 연대는 책 내에서 몇 번 언급되었으나, 각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책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수록된 것이므로, 유대교의 정경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예언한 시대를 서술하고 있으나, 요엘과 오바디아 그리고 나훔서는 그렇지 않다. 요나서는 가장 빠른 시대로 추측된다. 요나는 엘리사 이후의 첫 번째 예언자이며, 다른 이들과 달리 그의 책에는 개인적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시간적으로는 요나 다음이나 같은 시대 사람으로 추정된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다. 스바니아는 유다의 웃시야왕 시대에 예언했고, 하박국은 여호야קים의 시대에 예언했다. 그리고 학개,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예루살렘 재건 시에 살았던 예언자들이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했고 그 외 예언자들은 유다왕국에서 예언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책들이 각기 매우 짧아서 한 묶음 안에 모두 기록했던 것이다.

문자적 의미에서 예언서들은 모호할 때가 많다. 문자적으로 예언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를 다루면서 하느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황폐함, 아껴두신 선한 것들(good remnant)의 보존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언급한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기이한 환상과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담고 있어서 상응에 의해서만 그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서는 어린이들이라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다. 열두 권의 소 예언서는 네 권의 대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질책하며, 자포자기에 이른 선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준다. 설령 소 예언서의 내용이 우리의 이해성에 설득적으로 와 닿지 않는 다 해도, 우리는 그 책들을 겸손하고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며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감 있는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상응하는 천국의 천사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 천사들은 말씀들을 섬김과 더불어 우리를 돕게 된다. 본반에서 다루지는 구절은 각 예언서에도 발견된다. 하지만 본문 속의 구절은 직접적이고 명확하여 우리의 사고와 지침의 꾸준한 길잡이로서 역사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라도 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본문에서 주님은 예언자 미가를 시켜 백성들에게 해 주신 당신의 일을 증언하도록 그들을 산으로 부르신다. 산이란 우리의 생각이 보다 높은 곳에 이르러 우리의 삶을 관조할 때 주님께 보다 가까워지는 우리의 심정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높은 곳)은 주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보호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반대로 산은 타락한 오므리의 정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 왕조를 본 따는 듯한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건망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 방법과 사리사욕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성급함에 대해 증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고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좋은 어떤 것 혹은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님은 선한 삶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사람이야,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 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는 구절을 심정으로 알고 자주 입으로 되새겨야 한다. 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선한 생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그 바깥 측면이 그 시작에 해당 된다. 정의를 실천 하는 것(공의를 행함, to do justly)이란 천국을 향한 첫 단계로 계명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순종을 뜻하며, 재구성(reformation)의 시작이며 물론 세례 받는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의 부자 청년처럼 이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자비를 사랑함, love mercy)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정의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받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자비(mercy)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며, 우리를 박해하고 심술궂게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선하게 대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이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한계로 멈춘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행동을 하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이상 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주님은 말씀 하신다. 아직 가장 깊은 평면(inmost plane)이 있다고... 이 평면은 가장 깊으면서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지침의 질(quality)이 결정지어 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 깊은 평면에 이른 사람의 삶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with thy God)”으로 묘사 될 수 있겠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과 상반될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겸손하게 하느님과 동행하며 모든 선함과 진리 그리고 능력은 주님께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의 안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불로 세례 받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은 삶을 살고 이웃에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아 만족을 즐기고 심지어 자기 심정의 문밖으로 주님을 내어 놓기도 한다. 천국이란 주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의 심정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혹은 나중에 천국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 (마태복음 22:37-38)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 질문 정리

-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
-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 질문의 답

-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5

# 성전의 재건

###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কে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 성서 본문: 하께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듯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냐?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냐?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 교리 요점

\* 건전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한다.

### 상응 연구

용기, 그릇 = 교리 (doctrine)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 =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의 교리들

### 해설

열왕기하 마지막 몇 구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포로가 된 후 37년 만에 바빌론왕의 친절함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작이다. 예레미야 27장 10절에서는 70년 후에야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에즈라서 1장 1절에는 "주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하여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쓰여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도록 했다. 이 후의 바빌론 정복자들인 메대왕 다리우스와 페르샤왕 고레스도 그것을 인정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세상적 견지에서 번영했으므로,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할 마음이 없었다. 고레스는 귀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금, 은, 가축, 의복 그리고 지원 예물을 내놓아 귀환자를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귀환하는 백성에게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취했던 금과 은 집기들도 되돌려 주었다. 첫 번째 귀환한 이들의 숫자는 하인과 하녀 7,337명을 빼고도 42,360명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즈루빠벨은 귀환 길의 지도자였다.

이 후 약 8년 뒤에는 아르닥사짜 황제 통치시대 때 에즈라의 지휘 하에 두 번째 귀환이 있었다. 남자만 최소 1,750명에 그들의 가족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에즈라는 서기관이며 사제였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기도 했다. 조세퍼스(Jesephus)는 에즈라가 바빌론에 체류한 이들의 대 제사장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에즈라가 페르샤왕의 후한 대접을 받았던 것, 귀환 여정과 성전재건을 위한 기금마련에서 충분한 성과를 얻었던 것, 예루살렘의 공공업무에 사람들을 임명한 것, 관관과 행정관을 임명한 것 그리고 범법자를 사형까지 언도한 것 등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에즈라서가 예언서적 위치에 있어야 함은 아니다. 이 책은 즈루빠벨 하에 귀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에즈라가 귀환하는 것까지에 관한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 느헤미야서는 (특히 8장)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대거로 모여든 군중이 있었음과 그곳에서 에즈라가 군중들에게 법전을 낭독했음을 알려 준다.

스웨덴붉은 요한 계시록 설명(AE 1029°)에서 교회의 소멸과 포로 생활의 관계, 그리고 귀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 참조) 여기서 스웨덴붉은 왜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말씀과 예배가 그 형체로나마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거룩한 땅에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귀환한

유다백성들은 더 이상 선과 진리에 관한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게 되었다. 세 예언자인 하깨,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백성들이 그들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소수의 선한 이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공포하기 위해 보내졌다. 그러나 예언서들 외의 많은 다른 역사적 자료들은 예언적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고 단지 주님의 삶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 할 뿐이다.

고레스왕은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귀환을 선포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가 놓인 후 거의 16년 동안 성전건축은 중단되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인들 대신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일조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즈루빠벨이 그 제의를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고레스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반역만 하는 성이었으므로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편지의 내용에 동의해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대 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서 성전재건은 마냥 지연되었다. 그러나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의 훈계와 간곡한 권유로 인해 백성들은 다리우스왕에게 대표단을 보냈다. 당시 관습은 메대와 페르샤의 법이 바뀔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대표단의 요구대로 다리우스는 과거 고레스의 비망기를 찾아내 확인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이후 4년 만에 완성되었다. 결국 성전재건은 기초가 놓이고 완성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 셈이다. 이리하여 큰 축제와 과월절 기념과 더불어 성전 봉헌 예배가 있게 되었다. 구약 성서에서의 과월절 기념의 의미는 국가적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것과 각각의 개혁의 성취를 알리는 신호이다.

성전이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인격체 즉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성전의 재건이란 악으로부터 벗어나 선함으로 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다. 예언자 하깨는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 온 뒤 그들의 높은 목적에서 얼마나 빨리 되돌아섰는가를 생생히 보여준다. 백성들은 그들이 누울 집은 지었으나 주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내용적 헌신은 결여되고 형식으로만 헌신하는 개혁의 생활상을 표현한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안락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재구성(reformation)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

은 본문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삐 돌아다닌 탓이다.”라고 표현된다.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의 궤(ark)가 없었다. 솔로몬 성전의 파괴 후 궤의 보존 혹은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님이 임하셔서 계실 중심부가 텅 비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귀환한 백성들의 국가적 형체의 회복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개혁을 시도할 때도 있게 된다. 되돌아가는 길 즉 주님으로의 귀환은 생각만큼 행복하거나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 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질서 있게 해 두어서 사회에서 존경받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다시 완전히 세워져야 하며, 그것은 긴 세월이 요구되는 아주 느린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야 만이 구원, 행복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할 때까지 주님은 새로운 성전에 오시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명성 혹은 눈에 보이는 영화로움으로 지어진 성전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즉 후에 즈루빠벨의 성전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의 강림 전 헤로데왕 때에 또 다른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이다. 이 성전 역시 A.D. 70년경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성전 회복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슬퍼하는 날의 끝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고히 공포했다. 즉, 말라기 4장 2절에서는(공동번역 3: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께서 2장 9절에서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서는 자아대신 주님을 찾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끝을 맺는다.

## 질문 정리

-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재건을 위함이다.

## 26

###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과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몰려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증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교리 요점

- \*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더 이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통해 인도하실 수 없게 되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 \* 어린 시절 주님이 받은 교육은 말씀의 글자에 관한 것이었다.

### 상응 연구

유다 = 교인들이 갖는 의지 또는 동기적인 측면  
 사마리아 = 사고적인 측면  
 갈릴래아 = 외향적 행동 측면  
 헤로데 = 심정 속에 자리 잡아 주도하는 이기심

### 해설

본문 1장은 주님이 처녀에게서 탄생됨을 강조한다.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지 않으려함에 기반 한다. 성경의 글자에는 이 사실을 의문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 주님은 자연적 아버지 없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주님이 신성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출생이 인간들의 출생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상속된 것에 의해 한정되어져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내적 마음(internal mind)의 형체를 상속받고, 어머니로부터 외적 마음(external mind)을 상속 받는다. 상속된 두 형체(form)중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악한 경향성들은(evil tendencies) 거의 정복될지 모르나,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악한 경향성들은 오로지 조절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주님은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배려하신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한계성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도 된다. 주님이 자연적 아버지를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유한한 혼(soul)을 지니며 모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발달과 성장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지 못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의 인성(His humanity)을 신성(divine)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했다. 즉, 생명이신 하느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룩한 아기라는 외형(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시게 되는 거룩한 역사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기의 내적 마음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나 아기의 외적 마음과 육체(body)는 마리아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태초부터 인성(humanity)에 누적 되어있던 모든 악한 경향성을 내포한다. 우리는 내적 마음과 외적 마음을 가진다. 우리는 보다 높은 것과 낮은 본성 사이의 수많은 투쟁을 경험한다. 내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느님 자체지만, 외적으로는 최초의 타락 후 인류가 쌓아온 모든 악을 가져야 하는 아기 예수가 성장하며 벌이게 될 영적 투쟁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주님의 세 이름은 주님이 인간 모습을 취하시는 성육신(Incarnation)들을 표현한다. 임마누엘(Immanuel)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를 의미한다. 예수(Jesus)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Jehovah Saves)”를 뜻하며, 그리스도(Christ) 혹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어진 자(Anointed one)” 즉 태초부터 약속된 구세주를 뜻한다. 주님께서 스웨덴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상응의 지식을 토대로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한다면 주님의 신격(dei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긴 영감( inspiration)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진리를 담은 이야기들을 소설이라도 쓰듯이 억지로 짜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니다. 25절이라는 짧은 구절들 안에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신약에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지를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어렵없는 일이다.

이집트는 자연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주님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옮겨지셨고,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갔었다. 기근(famine)이란 주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감이 결핍된 지식을 배우기 위함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것은 그분의 지상 삶 중에서 배우는 시기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요한 계시록 설명」에서, “주님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교육받아 졌으며, 그분은 단지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 세상의 누구보다 더 슬기롭고 총명하게 모든 것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서술한다. (AE 654-19) 그리고 윌리엄 브루스(William Bruce)는 그의 저서 「마태복음 주석」에서, “신성(Divine)은 혼(Soul)이 인간이라는 육체(body)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인격(person)인 인간(human)안에 계셨다. 우리의 혼은 지식을 가지며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외적 인간에게 영감( inspire)을 주지 않는다. 외적 인간은 단지 한 인격에게 영감을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을 줄 뿐이다. 혼은 육체 또는 외적 인간이 ‘지혜안에서 그리고 정신적 도덕적 발달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어 그 근본적인 씹씀이에 알맞은 도구로 준비될 때까지 혼이 갖는 힘은 우리의 외적 인간에게는 명백해지지 않는다. 이성(reason)과 자유(liberty)는 영에 속한 능력이다. 지식이 없을 경우 합리성(rationality)은 선택할 자유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서술한다. 주님은 어린 시절에 우리와 같이 감각적 지각을 통해 지식을 배우셔야 했다.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기억들 속에 성경의 글자를 저장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그 이유가 성경의 글자를 저장하는 것이 그분의 외적 인간이 자라는 척도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이성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케 해 주고, 더 나아가 이해되어진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선택을 가능케 하여 준다. 주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배우셨고 무한한 지혜로 성경의 모든

의미들을 이해하셨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 지혜가 이해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배우시는 과정은 완전한 내적 인간(internal)의 존재로 여느 인간 보다 더 빠르고 완전해졌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돌봄에 있어 천사의 계시에 따랐다는 것에 대해 어떤 억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주님은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오랜 동안 사셨는데, 그곳에서의 주님의 삶과 훈육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측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께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요한 7:15).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 그 자체에서도 우리는 요셉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아기 예수가 비범했음을 확신하게 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스웨덴복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주님은 말씀 속의 것들 외에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양육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AC 1461) 그러므로 주님이 이집트에 체류함은 그분이 어린 시절에 성경의 글자를 배웠다는 사실을 실감있게 그리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왕인 헤로데의 삶을 주도하는 원리는 이기심(selfishness)이다. 우리가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자마자 들이닥치는 시험은 우리의 이기심이 들고 일어나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하기위해 온갖 수단과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는 헤로데가 분노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구절의 내용이다.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를 죽였다. 숫자 둘이란 선과 진리의 결합(conjunction)을 뜻하고, 베들레헴은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교회 속에 남아 있는 순진함과 선함을 의미한다.

당시 거룩한 땅의 세 구역은 우리의 삶에 있는 세 가지 평면을 뜻한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던 곳으로,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 지상 생활을 그곳에서 마무리 하셨다. 유다의 땅은 천적(celestial) 혹은 의지(will)적 평면을 뜻한다. 주님은 갈릴래아에서 지상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시면서 선교 사업을 행하셨는데, 그 땅은 자연적 평면 혹은 외향적 지침이나 행동을 표현한다. 사마리아 땅은 유다 땅과 갈릴래아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으로, 주님은 그 땅을 통하여 올라가시기도 하고 되돌아오시기도 했다. 그 땅은 영적(spiritual) 혹은 생각하는(thought) 평면을 표현한다. 이러한 우리 삶의 세 가지 부분은 실제적인 외향적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

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정규적인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훈과 영적 호흡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두 평면 사이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주님을 예배함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뜻을 응용하도록 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13)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 21)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22) 주님은 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 질문의 답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1)성경을 배우심 22)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상응적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해

## 27

### 동방 박사의 방문

####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올(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헬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 \* 주님은 때가 찼을 때(in the fullness of time, plenituck temporis)오셨다. 즉 어떤 선과 진리도 인간 중에 더 이상 없을 때 주님은 오신 것이다.

### 상응 연구

금 = 사랑  
 유향 = 믿음  
 몰약 = 순종  
 헤로데 = 마음을 통치하는 거짓

### 해설

고대 교회는 고대 말씀과 상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고대 교회에 속한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대신 이기적 목적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상응에 관한 지식도 그들의 흥미만을 증진하는데 이용했다. 이것이 바벨탑을 짓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각종 형상이나 상징물 속에 있던 영적 의미를 거두어 버리심에 따라 그것들은 각양각색의 우상으로 전락되어 지상에 흩어졌다. 그들 중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교회의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 선택되었다. 이외의 다른 이들은 수많은 다신교의 국가를 형성해갔다. 스웨덴북은 고대 말씀의 잔재가 그의 시대에 「대 타타르(Great Tartary)」라는 지역(분명치는 않으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다고 말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 중 극히 일부는 고대 말씀의 잔재가 되는 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얻은 지식을 흠모해서 상응에 관한 일부 학문이 그들 중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동방에서 주님을 찾아 온 현인들은 위와 같이 선한 이들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등의 지식을 알고 기억했다. 또한 그들은 별을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조로 간주 했다. 별에 관한 예언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 기록된다. 발람 역시 동방박사와 같은 지역 출신이다. 발람이 상응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발람에게 제단이나 희생 제물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의 지식을 사용하려고 한 악인이다. 동방의 현인들은 별을 보았을 때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거룩한 땅까지 가는 긴 여행을 기꺼이 감수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며 그분 발아래 예물을 바쳤다. 그 예물은 그들의 상응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고 추측된다. 말씀에는 몇 명의 현인들이 경배하러 왔는가와 그들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단지 전통(관습)적으로 세 가지 예물이 있었으므로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질 뿐이다.

우리는 앞서 공부를 통해 해와 달과 별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뜻함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들에게 그분에 관한 지식과 천국적 삶에 관한 지식을 확실하게 주셨다. 별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자연적이며 아름다운 상징물이었으며 물질적 별은 아니었다. 동방의 현인들을 제외하고는 별을 보았다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별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보통의 질서 안에서는 사라졌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본 큰 빛은 별이 아니다. 빛과 별 모두는 영적 나타남으로, 목자와 현인들의 영적 눈이 별과 빛을

보도록 열렸다. 목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빛을 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선하며 순진한 심정 상태 속에서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방의 현인들은 오랜 전통을 제외하고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서 새로운 영적 시대의 빛을 보았던 것이다. 목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반면, 동방의 현인들은 아주 작은 지식도 흠모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표현한다. 목자들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길을 갔으나, 동방의 현인들은 기나긴 여행을 해야만 했다.

현인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파악하는데 희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으로, 진리적 측면에서의 교회를 표현한다.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현인들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왔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의 글자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교회는 사실 참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진리는 갖고 있었다.

베들레헴은 이전에는 「유브라테(Ephratah)」라 불렸다. 그곳은 베냐민의 출생지이며 라헬의 매장지이기도 하다. 베냐민과 같이 베들레헴은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the spiritual of the celestial)”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들 속의 지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 사이의 고리(link)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정 속에 있는 선함의 결과로 인해 얻게 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리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감정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풀리게 되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님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성의 하느님이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이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었는데, 이는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주님 즉 그분의 왕권적 특질을 표현한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이며,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빵)”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별들은 주님이 계신 정확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처음에 나타난 별 즉 처음 그들의 지식은 그저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즉 성경으로부터

터 가르침을 얻은 후에 별(지식)은 구체화되었다.

성서에서 주님께 바쳐지는 모든 봉헌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 삶의 헌신을 표현한다. 동방 현인의 세 가지 예물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에서의 헌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었다. 금(gold)이란 심정(heart)의 예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느낌들 즉 자기 자랑, 미움, 복수심, 시기심 혹은 탐욕 등을 우리의 심정으로부터 몰아내는 노력이다. 유향(Frankincense)이란 지성(mind)의 예물로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빛으로 자신의 사상을 검토하려는 결정과 더불어 자신의 사상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거짓으로 여기며 그를 거절하는 노력이다. 즉, 하느님의 지혜는 언제나 불변하여 그것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신뢰하는 노력의 예물인 것이다. 몰약(Myrrh)이란 우리가 행동적인 면에서 드리는 예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같이 남에게 하려는 것을 꾸준히 노력함이다.

동방 현인들은 예물을 바친 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헤로데의 부탁을 무시하여 그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 주님을 찾으려는 현인들을 도운 헤로데의 동기는 아기 주님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인들은 계시를 통해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섬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동기(motive)들을 이용하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거나 친구를 전도하는 이유가 주일 학교에서 성탄절에 주는 선물 때문이라면 그들은 선물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주일 학교에서 말씀과 진리를 배워 성인으로 성장할 기초를 닦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된 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기를 결심하게 된다면 어린 시절의 이기적 동기는 결국 선한 결과를 낳는데 이용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기심에 대한 참된 이해를 주셔서 우리의 영이 더욱 더 수행되게 하신다.

본문의 후반부는 우리가 이미 발달시켜 놓은 세상적 삶의 기반 위에 동방 현인의 방문으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스웨덴북은 한 개인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곧이어 시험이 오도록 허용된다고 말한다. 헤로데는 과거의 삶을 통치해왔던 악과 거짓이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을 파괴시키려고 발광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악과 거짓은 주님의 씨, 곧 영적 삶의 근원은 악과 거짓이 차지했던 마음속에서 싹트고 성장할까봐 갖은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의 씨를 우리의 기억 속 즉 이집트에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즉 우리가 첫 시험에 승리할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 뒤 이 씨앗은 외향적인 행동을 상징하는 갈릴래아에서 양육되기 시작된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심정(hreat)으로부터 싹터 지성(mind)에 의해 확증되어지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바깥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자리 잡은 악과 거짓들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곧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나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향,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 28

### 세례를 받으신 주님

####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교리 요약

\* 세례란 거듭남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회개와 개혁을 뜻한다.

## 상응 연구

물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생활을 정화함  
성령세례 = 주님의 진리로 생각을 정화함  
불세례 = 주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심정을 정화함  
비둘기 = 순수함 또는 순진함

## 해설

본문과 더불어 마태복음 11장 7-15절, 마태복음 17장 10-13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그리고 「천국의 신비」 9372항을 읽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한은 스스로 증언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였고, 예수께서도 요한이 말라기 4장 5-6절의 예언을 성취시켰음을 증언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주님의 오심으로 지상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지지 않도록 특사(요한)를 보내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이가 악한 생활을 영위해 온 나머지 진리나 올바른 것을 까맣게 잊어 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후 그가 어떤 계기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고, 자신은 그 진정한 삶으로 돌아 갈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준비도 없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신을 질책하며 “나는 죽일 놈이다” 혹은 “나는 죽어 마땅한 쓸모없는 인간일 뿐이야”하고 한탄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정말 죽이는 파멸로 치닫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벌어진 돌발적인 자살은 때말아야 할 악과 과오가 너무 엄청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보여 도피하다보니 취하게 된 극단적 선택인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올바름에 대한 지식 없이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다. 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아마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번개의 고압전류와 같았을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우선 스스로의 악한 길에서 돌아섬으로서 천국의 영향력이 그들을 감싸춤으로서 그들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 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우선 우리의 행실을 고쳐 나감으로서 기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들 속에 깊이 감추어진 악들이 드러내질 수 있게 되어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들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

행실에 있어서의 나쁜 점들을 깨우치고 고치며 궁극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계명과 가르침에 대한 순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 요한”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 중 특히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욱 극명히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장차 올 엘리야”라고 불린 이유이다. 그가 입고 있는 낙타 털옷은 말씀을 입히고 있는 성서 글자를 표현한다. 그의 가죽띠란 외적인 것들이 서로 묶여져 영적인 뜻과 연결을 맺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가 먹은 메뚜기와 들꿀은 가장 외적인 진리와 그에 따른 기쁨(delight)을 표현한다.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거주했는데, 이는 교회의 몰락한 상태를 묘사한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3장 10-14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게 온 각 층 사람들의 악들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악들로부터 되돌아서도록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만 할 뿐 자신의 죄를 버리고 정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회개는 “미안합니다 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우며 죄가 반복됨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언약에서 우리의 몫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내기 거절한다면, 주님은 그분의 몫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을 완성 시킬 수 없게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죄가 있는 곳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 오히려 과오를 위한 변명을 찾기에 분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의 과오들과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악들에

대해 슬며시 눈 감아 버린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하여 과오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악이 내안에 있음을 인식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과 싸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염두해 주님께서 “집안에 있는 자가 자기 원수”라고 하신 것이다.

물세례는 회개에 대한 상징적 표시로서 주님의 진리에 의거한 외적 삶 즉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을 뜻한다. 요르단 강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땅 즉 영적 삶으로 들어가게 해 줄 진리들을 상징한다. 이 진리들이란 말씀에서 얻는 단순한 진리를 뜻하며, 단순한 진리는 십계명에 가득 포함되어 있다.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르단 강에 그의 몸을 일곱 번 씻음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구약 성서 속의 모든 씻음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거룩한 씻음 즉 할례를 대신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성찬식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번제나 축제를 대신하는 행사에 해당된다. 유아 세례는 세례 받는 유아의 부모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아이를 양육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로의 입문을 상징한다. 또한 스웨덴북에 따르면, 세례식은 말씀에 쓰인 그대로 수행되어 지므로 그 자체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천국의 천사들과 그의 영이 연결되며, 상응을 통해 어린이는 어린이 천사와 어른은 각자에 맞는 천사들과 연결되어 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례 받은 후 천국적 분위기를 느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요한은 또 다른 세례에 관해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베푸실 세례 즉 “성령과 불”의 세례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적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축복할 수 없다. 물세례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는 후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 나가면 전에 횡행하던 이기적 영의 자리를 주님의 영이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정(heart)속에 들어와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행함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불세례이다. 스웨덴북이 회개는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 깨끗한 심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가 진정으로 선한 생활을 위한 필수 단계임을 본보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 요한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식하여 그분이 자기에게 나올 때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이 입고 있던 인간성으로 인해 그분은 세상에 누적된 모든 악에 대한 경향성(tendencies)을 지니셨다. 따라서 그분도 모든 악을 느끼며, 우리와 같이 말씀을 수단으로 그것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정화시켜 신성한 형태로 변화시키셨다. 주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내외의 일체를 이룬 것임을 상징한다. 그분이 받은 세례는 그분의 삶의 외적 평면을 신성화시키신다는 표시이며, 우리의 거듭남의 원형(prototype)이 된다. 비둘기와 하늘로부터의 음성이란 이 일의 내적 결과에 대한 상응적 표시에 해당된다. 이 일이란 그분이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인성에 있던 악을 몰아내는 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분의 인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작업을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신성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인성을 뜻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 3) 주님의 공생애는 몇세에 시작 되었는가?
-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셨는가?
-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 15) 세례의 세 가지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 16) 세 가지 세례의 효용들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15) 회개, 개혁, 거듭남
- 16) 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불리게 되고  
 ② 그가 주님을 알고 따르며  
 ③ 그의 삶의 안과 밖이 모두 거듭 나게 되는 것

## 29

### 시험을 받으신 주님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램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 \*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영계에 존재하여서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 양쪽 모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 상응 연구

돌 = 진리, 특히 자연적 평면의 진리  
빵 = 사랑의 선

## 해설

시험이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마음 즉 바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바램이 자신에서 비롯된다고 느끼지 못한다. 또한 시험에 대항하려는 바램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낮은 자아와 보다 높은 자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것들을 휘저어 우리의 의식세계로 가져오는 자극제는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부터만 생겨날 뿐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의 영향력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르고 싶은 자극을 선택함도 자유롭도록 섭리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이 우리에서 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 하신다. (고린도전서 10:13) 사람들은 때로 “이번 시험은 나에게 역부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상황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올바른 행하도록 돕는 집단과 잘못되도

록 유도하는 집단 즉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늘 있었다. 우리가 이 세상 주위의 집단 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집단도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된다. 우리는 선한 영적 집단과 악한 영적 집단 중에서 어느 한 집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들 집단의 영향을 느끼며, 때로 그들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임의로 생겨나 있게 되는 좋고 나쁜 생각들이나 느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우리에게 있다. 분노, 미움, 시기심, 양심, 탐심 혹은 자만심 등은 해하기 좋아하는 악령들에 의하여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악하고 폐악한 집단들의 행동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악하고 폐악한 집단들은 악한 일로 기쁨을 느끼는 자들의 집단이므로 곧 악령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하고 폐악한 집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듯이, 나쁜 생각들이나 느낌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여 따르지 않는 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악한 집단의 제안에 대해 “NO”라고 잘라 거절하듯, 악령들의 제안에도 우리는 단호히 “NO”라고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선한 것을 보지 못하면 선택 자체조차도 우리에게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선택이란 양자택일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우리가 자신내의 악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악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에 따라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악들을 이용해 악령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선들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힘든 운동을 열심히 해나가면 우리의 근육이 단련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더 깊은 악에 노출됨에 따라 더욱 발달되며 강건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잘 알지 못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악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에 정면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위해 우리 안에 준비해 두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그분이 지상 생활 마지막까지 날마다 극복해 가셨던 모든 시험을 상징한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기사 내용의 세부 사항들은 상응물이며 명백한 비유이다. 앞서 공부했던 세례자 요한의 내용과 같이, 유다 광야란 당시 교회의 상태를 표현한다. 주님의 세례는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정화하시겠다는 결심을 묘사하는 것이다. 인성이 정화됨으로, 그분의 혼이신 신성이 그 힘을 인성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세례 직후 즉각적으로 수반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적용되는데, 시험이 옴과 동시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또한 찾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한다. 본문에서는 시험자가 “악마”로 불리며 “사탄”으로서 말해지고 있다. 이 둘은 개개인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악에 속한 모든 힘이 “악마”라는 용어로 함축된 것이다. 거짓에서 오는 모든 힘은 “사탄”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지옥의 모든 세력의 공격을 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은 삶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있게 되는 시험들을 망라한다. 돌이란 자연적 평면에 있는 진리들이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은 가식적인 선행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수준으로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만족을 뜻하며,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목적은 선행을 통해 기대되는 명예나 칭찬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인도자시며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심을 믿지 않는 상태이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한 사탄에게 하신 주님의 답은 인간이 원칙적으로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뜻하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지적 평면의 시험으로서 “믿음만, faith alone”으로도 충분히 구원된다고 생각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노라고 말만하면 그분이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성전 꼭대기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의 만족을 표현한다. 성전은 교회속의 교리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진리를 따르려는 노력 없이 삶의 높은 상태로

부터 삶의 낮은 상태로 가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데 게으름이 없으나 그의 마음에 '나는 신앙이 아주 좋으니 저 사람들보다 더 낫지' 또는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인데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더 배려해 주실 거야.'와 같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싹튼다면 그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 오는 시기이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인용문을 신명기 6장 16절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대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함과 “주님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해야”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로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더욱더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 수준의 선행들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선한”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아주 선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서 있어서 '아차!' 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심정 속에 든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어야 하며, 그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주님께서 겪으신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깊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성의 자연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기심이 우리 심정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일에 자아를 우선시함은 "사탄에게 절하며 예배 하는" 것에 해당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인간적 이기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자아로 삼아 버리는 것은 곧 악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되고 지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 시험의 양상과 관계없이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의 힘과 인도를 주님으로부터 찾으며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구원될 수 있음을 다짐해야 한다. 즉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매 시험에서 주님의 대답은 성경에서 온 인용문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시험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음양으

로 겪은 시험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시험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지옥 중에서 지옥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선택해내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성서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도와주시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다. 말씀은 실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꼭대기에 계신 주님에게로 올라가고 주님의 진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 발밑이란 땅인데, 사다리가 연결시켜준다. 사다리란 우리 마음속에 든 말씀의 글자에 해당된다. 우리가 시험에 답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때는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며, 주님과 천사들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화와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 18) 세 가지 시험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왜 주님은 시험 받으셨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 9) 광야 10) 40일 11) “악마”
-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18) ① 선함을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② 우리가 어리석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③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19)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30

### 주님의 첫 제자들

####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
- \*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상응 연구

고기 =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착

배 = 넓은 측면의 교리

그물 =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짜놓은 교리

질병들 = 영혼에 있는 무질서들

악마에게 소유 당함 = 자신의 이기심과 악한 포부로 움직이는 것

미친자(lunacy) =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서 더 나은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태

중풍병자 = 자기의 선한 의도를 꾸준히 이행하는데 무능력함

## 해설

주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심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신성에 속한 그분의 진정한 능력이 물질계까지 내려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주거지를 나자렛에서 갈릴래아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이 상징한다. 바다란 기억 안에 수집되어 있는 지식을 뜻한다. 고기란 단순히 기억된 지식을 쓸모 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지식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은 어부였으며, 본문에서는 가진 지식을 어떻게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어부로 상징되고 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그물을 버렸다. 즉, 그들은 간직해 왔던 그들의 철학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자연적 진리 대신 영적 진리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인해 주님의 왕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첫 네 제자들은 열 두 사도 중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사도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우리 속의 모든 능력을 표현한다. 즉, 자연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다가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바뀐 모든 능력을 표현한다.

요한계시록 설명 820-821항에서 첫 네 명의 제자들의 의미와 그들과 주님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그들을 부르시는 기사는 실제적으로도 같다. 그들을 부르신 순서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출생 서열과도 유사하다. 베드로는 르우벤과 같이 진리 또는 믿음을 표현한다. 요한 복음(1:35-42)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아는 주님을 미리 알아서 그분에 대해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증거 한다. 이것은 진리 또는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순종을 바라는 것을 상징하는 안드레아가 먼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안드레아는 성경 이야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구약 성서의 후기에 시므온이 유다에게 흡수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있다면,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던 초기의 바램이 선행 (charity)의 삶 안에 녹아들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레위와 같이 선행을 표현하며, 요한은 선행의 행위(일)를 표현한다.

스웨덴복은 진정한 질서로 발달되어 가는 단계는 먼저 순종하려는 바램으로 출발하여 하느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선 뒤에 선 또는 선행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선한 일로 끝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요한이 다른 제자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격 발달의 진정한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선한 일 혹은 통상적으로 말해지는 외향적 선한 행위는 그것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근원하지 않으면 순수한 선이 아니다. 스웨덴복은 이를 인공적인 과일과 비교하여, “인공적인 과일도 외형상에 있어서는 진짜 과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은 아스팔트 같은 먹지 못할 유해한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DP 21513)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속의 각 층 즉 생각과 의지와 행동 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목격하도록 허락 되었다. 또한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장차 올 일들이 말하여졌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말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많았으며 더러는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갈릴래아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제 23절에 요약되어 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다가설 때에 우리 삶의 외적 평면에 있게 되는 그분의 일들을 묘사한다. 주님은 먼저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는 우리의 모든 자질을 유용하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그 후,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즉, 우리가 진리를 받으려는 상태에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리를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보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람들 중에 있는 온갖 허약함과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는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나쁜 습관이나 그릇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다. 이 일은 더 넓어져서 우리의 종교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취미나 활동분야까지도 주님에게 나아오게 되어서 올바르게 정립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 25절에서 요르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온 많은 무리로 표현된다.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병이 언급되는데, 그것들은 우리 속의 세 가지 평면에 있는 악을 묘사한다. 악마에게 소유당한 이들 즉 마귀 들린 사람은 심정에 있는 악을 표현한다. 간질병자는 지성 속에 있는 거짓을, 중풍 병자는 우리의 선한 의도를 수행하려는 것을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표현한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되는 모든 선한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완고함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11) 바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고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사람의 어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11) 기억 안에 모아진 지식 12) 지식에 대한 애착
- 13) 주님의 왕국으로 다른 이들을 이끄는 것

## 31

### 산 위에서의 설교

####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힌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리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러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니을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 교리 요약

- \* 주님의 진리 위에 인격이 세워져야 한다.
- \* 복이란 주님에 의해 주어진 행복을 위한 규율이다.

### 상용 연구

모래 = 인간의 의견들  
 폭풍 = 시련이나 시험

### 해설

산상 설교는 어느 설교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인간의 설교보다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한 절의 말씀이 가지는 교훈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산상 설교이다. 또한 과거에 산상 설교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언제나 새롭게 들려온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경이로운 사실은 산상 설교가 주어진지 수많은 세월이 경과했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에 의해 읽히고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행복의 조항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규율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주 읽으며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규율들을 중심 원리로 삼았는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 즉 겸허한 마음, 애통합, 온유함 혹은 박해받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진실로 믿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진리들 역시 이와 같다. 말씀의 각각의 구절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신뢰하는 자연적 추세와 반대되어 있으며, 우리의 자연적 유전성과 무관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것은 본문의 5장 1절에서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된 이유이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을 때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그들의 심정과 지성을 보고 계셨다. 주님은 그들을 악들과 파괴로 인도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셨다. 또한 주님은 삶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위해 하느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함도 보셨다. 주님이 산에 오르심이란 사람들이 익숙해져 온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 끌어올려져야 함을 뜻한다. 이렇게 끌어올려진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명백하고 실용적인 교훈들을 주셨다. 즉, 그분은 그들이 행복하고 복 받는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순서를 밟아 가셨던 것이다. 주님은 특별히 지적하시는 말씀과 독단적으로 보이는 설교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명백히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이 권위를 갖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주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듣고 있는 무리에 속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산 위로 가서 영적 생각을 해야 하며, 권위를 갖는 유일한 그분으로부터 삶의 길을 배워야 한다. 자아추구, 자아신뢰 혹은 권력이 삶의 성공을 가져 올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불안, 거절, 고통, 실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다준다. 주님께서 직접 이를 말씀하고 계신다. 진정으로 끝없는 행복은 겸손하고 순수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만 온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실용적 가르침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는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감추어 놓은 등불과 같다.

- \* 계명은 영원한 진리로서 영원히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깨뜨려지지 않는다. 주님 스스로도 계명을 초월하시지 않고, 그것의 일점일획까지 성취하셨다.
- \* 율법의 글자(형식)만 지키는 것은 충분치 못하므로, 우리는 심정으로 그것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미움은 진짜 죄이며, 살인은 미움의 행동적 결과일 뿐이다.
- \* 되돌아 올 것을 기대하고 주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보여주려는 능력에 달려 있다.
- \* 우리의 인격적 완전함의 이상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 목표를 완전하지 못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 \* 우리가 칭찬, 보상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의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는 영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선행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 세상적 성공을 얻지 못함을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악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 \*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할 바가 현재에 의를 행하고, 장래를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타인을 비평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을 먼저 비평해야 할 것이다.
- \* 우리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발견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옳은 길 보다 잘못된 길이 훨씬 많으므로, 우리는 옳은 길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말씀의 글자에서 나오는 힘 이상의 것을 음미할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위한 대체물과 생각을 표현해내는 단순하거나 더 기발한 방법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산상 설교 자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일 것이다.

산 위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반석(rock)이나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구절의 “돌”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즉 임마누엘이라는 진리를 뜻한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인격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우리의 사상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다. 바람이 불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사막의 모래 산이나 파도에 휩쓸리어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는 인간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을 상징한다. 이러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에 따라 형성된 인격이 곧 모래위에 지은 집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에게는 어떤 안전성과 항구성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비 바람은 두 가지 형태의 집에 똑같이 불어 닥친다. 비 바람 즉 시련이나 시험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다. 세상적인 번영이 선함을 약속하는 곳은 결코 없다. 자신에 기초하거나 다른 인간 존재 위에 신뢰를 둔 사람들은 비 혹은 바람에 부서져 버린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에 기초한 이들의 선함은 비 혹은 바람에도 버티어 나간다. 「사별(bereavement)」을 예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했었던 사람이 간 곳은 영계이고 그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곳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선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심도 알게 된다. 따라서 견디기 힘든 손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이며 어쩌면 필수 사항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게 된다. 우리는 이 세계에 생존하는 한 수행할 선용(uses)이 있음과 수행된 선용은 이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계에서 어떤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명랑하고 희망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세상 삶 이상의 어떤 삶을 보증 받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할 때 어떠한 지혜나 선용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별만을 슬퍼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력만 낭비될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격은 단단한 반석 위에 있지 않아서 점점 더 침식될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3) 매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 질문의 답

-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씌였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10)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나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 32

# 주님의 공생애

###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왔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

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끼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 교리 요점

- \* 모든 치료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
- \*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말씀 속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결함 혹은 어떤 약함과 상응된다.

### 상응 연구

문둥병 = 진리의 모독  
 열병 = 내면의 나쁜 바람이 불타고 있음  
 마귀 들림 = 악한 생각과 바람의 노예가 됨

###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도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초능력을 기꺼이 신봉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적에 대한 어떤 증거도 거절한다. 이러한 자세는 지식 혹은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은 의지의 충동적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물

안에서 권능을 행사하며 조절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연의 힘에 하느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 이미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전기는 태초부터 세상에 있어 왔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우리가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합리성 인데,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법칙조차도 알거나 이해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현상, 정교한 뼈들의 구조 혹은 수많은 일상생활의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위한 주님의 법칙으로, 그분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신다. 자연의 법칙은 기적이 수행되었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란 하느님의 권능이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를 따름이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수행한 기적들에 작용한 하느님의 권능이나 본문에 작용한 하느님의 권능은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도구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치료 역시 주님께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 지금도 꾸준히 역사하시는 기적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경 속의 기적들은 시간적으로 보다 빠르며 때로는 즉각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왜 지금 발생치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상에서 인간의 눈에 나타나는데 극히 짧은 세월을 가지셨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히 외적이어서 외향적 평면에서만 감동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부활은 물질 주의적 역류와 감각적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기적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확신시켜 주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초능력의 존재를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에 의해 여러 차례 영적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진짜(real)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경과되고 그 느낌이 퇴색되면 그들은 이러

한 경험들을 환상 또는 꿈이었다고 단언해 버린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을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수행하셨다. 주님이 쫓아낸 진짜 마귀들은 쫓김을 받기 전 그분의 권능을 믿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도 믿음의 측면을 아주 명백히 보여 주신다. 그 이유는 말씀의 모든 기적에는 그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적을 수행하신 또 다른 목적은 그것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기록된 기적은 영적 진리가 포함되는 궁극의 형태인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서 성경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때문이다. 기적들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 건강 그리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과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각각의 기적들은 특수한 교훈을 준다.

본문의 기적은 세 가지 형태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주님의 권능이 자연 위에 군림함과 더불어 자연 과학의 한계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우리는 풍랑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여기며 정확하지 않은 일기예보를 불평하기도 한다. 기상대 직원들은 전국의 대기 조건을 파악하고, 바람이나 구름을 따라 오는 폭풍을 미리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정확한 일기를 예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바람의 경로에 무언가가 발생하여 폭풍을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발생”은 우연이 아닌 법칙에 따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칙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깊거나 높은 법칙이다. 주님의 의지는 그분이 갈릴리 바다의 배 안에 계셨을 때처럼 자연 안에서 실제로 움직인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영적 필요성에 따라 자연을 지휘한다.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또한 진실이다. 단지 이런 진실은 기적 안에 포함된 가르침 중에서 가장 바깥부분에 해당된다.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신 기적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도 와 닿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치료의 원인을 좋은 약, 명의, 의사를 신뢰함 혹은 타인의 기도 등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치료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신체의 요인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은 주님의 의지이다. 우리의 건강 회복과 우리의 지속적인 고난 그리고 영계로 건너가기까지 지휘 감독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본문의 기적들은 각각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하나가 공부의 과제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병은 영적 상응을 갖는다. 또한 이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모든 세부사항도 의미가 있다. 다른 성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도 각자 세세히 연구해보자.

###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 3) 기적이란 무엇인가?
-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 질문의 답

-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에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 12) 주님이 낮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 33

###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낫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밑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밑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들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공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 교리 요점

- \* 하늘나라의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룬다.
- \*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받고 있다.
- \*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 상응 연구

씨 = 말씀에서 온 진리

가라지 = 거짓

진주 =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이해

## 해설

비유란 그 속에 어떤 교훈을 가진 이야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 형체에 담아 준다. 우리는 그들이 추상적 서술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님의 견지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이에 불과하다. 인간의 마음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훈련되었다면, 주님의 진리 중 아주 소량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복음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말씀에 있는 주님의 생각들(진리)이 자연물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주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의 형체는 아주 순박한 형체인데, 이는 우리 경험의 일부를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수단을 예비하지 않은채 모든 이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군중들에게 말씀한 단순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 있게 된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 더욱 배우길 진정으로 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들을 상기하여 이야기의 속뜻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들을 배울 때 그것들을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만 받아들인다. 사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이란 교회 한 구석에 놓아둔 사탕이나 연필자루 보다도 관심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의 진리가 이야기라는 껍질 안에 담기게 되면, 어린이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수월 해진다. 이렇게 진리가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진리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우리 기억속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불을 밝혀 주실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 이야기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거룩한 땅에서 넓게 뿌려진 진리의 씨로부터 비롯된 참된 지식은 우리가 글자적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세세한 사항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길가란 야생초로 우거진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잘 다져진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돌밭이란 거의 표면까지 돌로 덮여 있어서 약간의 흙만이 지면에 있는 밭이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란 밭의 한 구석들 즉 야생초들이 자라도록 내버려둔 장소들을 뜻한다. 주님이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군중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말씀을 받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인간의 심정과 지성을 보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주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씨란 주님이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즉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 원하신 하느님의 진리이다. 그분의 입을 통하여 올려 퍼지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라는 배아(germ)를 가진 씨이다. 그 씨가 올바르게 받아들여 잘 관리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열매를 맺는 식물로 자란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자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주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빵”이라고도 부르셨다. 주님이 군중을 향해 입을 여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심정을 각각 헤아려 알고 계셨다. 즉, 주님은 오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광범위 하게 뿌려져 있는 씨들을 보셨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밭들은 그분의 진리가 뿌러지기 전에 보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그림에 색칠을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는 일곱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스웨덴본은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인류로부터의 천국”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은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천국에 도달할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하늘나라에 대해 알려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해성에 도달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며 우리의 의지에 강력히 호소해 오셨다. 일곱 가지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때부터 성장하기까지에 대한 회화적 묘사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회화적 묘사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어떻게 씨가 뿌려져 받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선한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실재(spiritual realities)가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악령들이 우리 마음에 거짓된 씨를 뿌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밀과 가라지가 싹트는 초기에 선과 악을 전혀 식별할 수 없다. 그리하여 진리와 거짓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된다. 우리는 오로지 열매를

맺었을 때에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천국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천국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수확 하려는 “밀”은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되어서 기가 죽고 풀이 꺾여 처음부터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도한 것이 비록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성장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장차 나무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 비유는 저세상에서 우리의 천국적 인격이 성장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취되어진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에 관한 것으로, 또 다른 영적 발달의 단계를 취하게 해주신다. 누룩은 묵은 밀가루의 일부로 거짓을 상징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거짓을 상징하는 누룩 또한 좋은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누룩이 없으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맛있고 소화도 잘되는 빵을 만들 수가 없다. 거짓 역시 주님에 의해 선용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발효시키고 가볍게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방하여 진리가 쉽게 안착하도록 즉 소화되기 쉽도록 하는데 쓰인다는 뜻이다. 영적 전투 혹은 시험은 영적 면에서 발효(fermentation)에 해당된다. (AC 7906)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베르가모 교회의 위험은 그들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독려하신다.

위의 네 가지 비유는 주님이 균중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후의 세 가지 비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시험 중에도 주님을 계속 섬겼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적 삶의 상태들이다.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어 놓인 보물은 하늘나라를 묘사한다. 영적 삶의 진정한 행복을 실감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을 견뎌 낸 이들은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판다. 즉, 생명이 있는 주님의 길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버리게 된다. 여섯 번째 비유는 보물을 “값진 진주”로 요약한다.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린다. 스웨덴북은 진주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며, (AE 1044) “값진 진주”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AR 916) 또한 그는 AR 916항에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란 교리 속에 든 보편적인 모든 사항과 그 교리로부터 오게 되는 교회 속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기독교에 입문한 처음부터 이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지 않던 이가 갑자기 부흥회에 한번 참석함으로 인해 10년 동안 그분을 믿어온 이의 믿음 속에 있는 경험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을 알려고 하고 오랜 세월동안 영적 생활을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된다.

마지막 비유는 이 세상 삶의 막을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가득해 있다. 경험들은 선악에 관계없이 한 그물 안에 수집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무게가 측정되고, 선한 것만 천국의 새 생활 안에서 영원히 발전되도록 주님 앞으로 운반하여진다. 우리는 성서본문의 번역에서 “세상 끝 날....., end of the world”은 잘못된 번역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어로는 ”시대의 종말, consummation of the age”을 뜻한다. 즉, 우리 한 개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말씀(the word)의 어느 부분에서도 물질적 우주의 파멸(종말)은 말하지 않는다.

본문의 마지막 사건은 전 가르침을 정리하고 강조한다. 즉,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필수 요건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7) 씨란 무엇인가?
-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라.
-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속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 34

###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옛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교리 요약

- \*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찌울 때만이 중요하다.
- \*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진리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 \* 진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된다.
- \*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 상응 연구

넓은 측면에서의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고 있는 진리들

모세 = 역사적 측면의 말씀

엘리아 = 예언적 측면의 말씀

부름 = 글자적 측면의 말씀

### 해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큰 광경을 목격하도록 선택되었다. 이는 그들과 예수님의 가까운 관계와 성경의 내적 의미에서 지나는 그들의 역할 때문이다. 열 두 제자들은 우리 안에 교회를 건설하는 모든 선하고 유용한 애착들을 묘사한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능력 면에서 그들 모두는 교회를 표현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세 개의 큰 필수조건들을 표현한다. 조건들이란 믿음(faith), 선행(charity) 그리고 선행의 일(the works of charity)을 뜻한다. 주님께 헌신하는 면에서 보면, 그것들은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동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셋은 세상과 개인의 측면에서 교회를 상징하도록 선택되었다. 세 가지 필수조건 의 충족은 높은 영적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높은 영적 상태, 즉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오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면 보다 낮은 우리의 애착들은 일시적으로 뒤에 남기게 되고 주님께 대한 본질적 헌신에 해당되는 애착 만이 그분에 의하여 “따로” 들리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들리어진 애착 들은 훗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발달에 필요한 때가 오면

깊은 계시를 받는 그릇들로 사용된다. 이 경험은 “옛세 후에” 오게 되며, “옛세 후”란 노력과 투쟁의 시기가 끝난 후를 뜻하는 창조의 육 일로서 어떤 영적 달성에 앞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세 제자들이 본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물질적인 육체를 취한 신성 곧 신성한 사람(the divine human)이다. 이 분이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신 주님이시요, 말씀을 살아내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영혼은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얼굴은 “내용물(interiority)”들을 표현한다. 변모 가운데서의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가장 깊은 면이 우리의 심정을 따뜻하게 하는 신성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영계에서 주님이 해처럼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저세상에서의 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옷 (garment) 은 그분의 사랑을 스스로 옷 입히고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옷은 제자들에게 빛같이 희게 보였다.

세 제자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시험과의 투쟁과 가르침에 의해 준비되어졌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게 되고 그분의 마지막 신성화 하심의 수단인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스웨덴북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을 준비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주님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저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초를 쌓지 않은 영적이며 신성한 것들을 볼 수 없다. 우리 또한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그분을 뵈듯이 주님을 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대해 공부하며 하느님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정되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그대로 살아감으로서 그분의 진리를 삶으로 확증하게 된다면 그분을 뵈 수 있다.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거룩한 성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뵈울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뵈오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뵈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한다. (시편 17:15)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구절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을 흠모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더욱 명확하게 그분을 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님의 육체(flesh)를 만드신 것은 말씀 자체이다. 스웨덴북은 변모에 관해 말하면서 “주님은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셨다. 이 신성한 진리란 말씀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인성(Human)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잉태 때부터 이미 그분 안에 있어 왔던 신성 자체에 인성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인성도 신성한 선(Divine Good)으로 만드셨다”라고 설명한다. (AE 594-2) 주님은 성경의 진리를 갖고 예수로 살아내셨음을 제자들에게 명백히 하기 위해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허락하셨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두 개의 큰 부분 즉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눴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들을 대표했다. 후에 주님은 율법서와 예언서들이 그분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일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기도 했다. 또한 누가복음(24:27)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한다.

이 환상은 우리를 위해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계는 구약 성경의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구약이 단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보여줄 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변모의 환상 중에 주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구약 성경이 내적으로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것과(시편 119:89) 구약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하여 떼어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에 관해 알기 위해 언제나 구약을 읽고 공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 중 하나이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공부해야 한다. 변모의 환상에 있는 이러한 외적 연결은 살아있는 내적 연결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을 얻게 된다.

베드로는 환상이 율법과 예언의 거룩함을 알려 주었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세 개의 초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초막(tabernacle)이란 예배를 상징한다. 내적인 의미로서 베드로의 바램은 진정한 예배 속에 있는 세 겹의 특질 즉 심정 측면에서의 예배와 외향적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사교 측면에서의 예배를 표현한다. 그러나 글자 차원에서 그의 제안은 그의 혼란스러

움을 보여준다. 주님은 그의 제안에 대답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환상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적인 주님의 대답이다. 제 5절을 읽어 보자. 빛나는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가 그 속의 신성한 진리로 인해 빛을 발하게 (illuminate)됨을 뜻한다. 여기서 소리란 신성한 사랑이 말하는 것이며, 말(words)들이란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진리 안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고개(눈)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에서 눈을 들어 올림이란 이해성을 들어 올림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 진 환상은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 예수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또한 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2:9) 이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여호와 하느님이심을 뜻한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주님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주님뿐이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주님은 부활이 있을 때까지 환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는 부활이 세상을 위한 일반적 “표시(sign)”가 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변모를 믿지 않더라도 부활이 있게 된 후에는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산했을 때 세례자 요한의 일과 선교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환상이 있는 산 위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이라는 수련장으로 내려갈 때 새로운 빛으로 과거의 경험을 볼 수 있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 14) 변모하심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얼굴이 바뀜
- 4) 높은 산 5) 모세, 엘리야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8) 예수님만 보았다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y)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 14)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에게 본문의 환상은 가능하다

## 35

### 종려 주일

####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엮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퍼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야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엮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서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우리 속의 “왕”이다.
- \*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벗어 던지게 된다.
- \*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혼 속의 “성전”을 깨끗케 하실 수 있다.

## 상응 연구

나귀 = 자연적 이성

종려나무 =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원리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힌 사상들

## 해설

거룩한 땅의 세 부분은 우리 삶의 세 영역을 의미한다. 갈릴래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의 삶, 사마리아는 생각하는 영역에 속한 삶을 그리고 유다는 의지 영역의 삶을 뜻한다. 또한 그 영역들은 주님의 바램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나타남과 세 영역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림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 즉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을 보내심은 인간이 주님을 영접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인간의 가장 깊은 의지에 대한 탐색을 묘사한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내의 정치적 권력은 주님의 적들에게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하게 만들어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주님은 과거 구약시대에 왕이나 판관들이 했던 관습과 같이 부활 일주일 전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군중들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환영했고, 그분의 길 위에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으로써 승리를 표현했다. 그들은 그분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오시도록 대대적인 환영을 할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첫째는 외적 삶의 극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님의 권능을 인식할 때이다. 둘째는 우리가 병들게 되도록 방치한 자질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게 될 때이다. 그리고 셋째는 게으름이나 남용으로 인해 죽게 된 자신의 소생을 맛보게 될 때이다.

왕이란 통치하는 자다. 백성들은 왕의 법을 용납하여 순종하고, 왕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간주한다.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일들로 묘사된다. 주님의 법칙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 바램이나 포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분의 법칙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길을 단번에 두 쪽으로 갈라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은 “Stop!”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는 주님의 법칙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로 상징되는 이기적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비록 수는 적지만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군중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애착들을 의미한다. 군중은 우리의 영혼 속 깊은 추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기독교인의 마지막 시험은 인간의 본질인 이기심의 꼬임에 슬쩍 눈 감아 버리고 허용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눈 감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법칙을 거절하는 것이오 이미 주님의 법이 올바른 것이며 최선의 것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말이다. 우리들 중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적 삶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이오 따라서 기독교적 생활 지침의 결과로 오는 명확한 혜택을 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지침을 질서있게 기꺼이 살아 보려고도 한다. 우리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치 않는다. 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개개인에게 있는 변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정말로 열려고 하고 우리 전체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려는 지배 아래 복종케 하려고 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든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의 힘이 너무나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파국적인 영적 상태가 살인자인 바라빠를 놓아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으로 치닫는 것에 상징되어 있다.

즈가리아 9장 9절에서 주님은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스웨덴봄의 저술(AC.2781)에 의하면, 나귀(ass) 또는 망아지(colt)란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natural man)을 그려주며 주님이 나귀 위에 타셨다함은 그분이 왕이나 관관의 특권을 되찾으셨을 뿐 아니라 심정과 지성의 자연적 평면을 신성에 종속 시키셨다는 사실(fact)을 보여준다고 한다. 마가복음 11장 2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망아지(colt)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망아지라고

기술된다. 이는 주님만이 자연적 평면의 것들을 질서 아래로 환원시켜 진정한 선용에 봉사하도록 만드실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주님이 타실 나귀 위에 펴 놓았다는 기술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고침에 자신들의 사상을 복종케 하는 제자들의 진정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군중들이 “그분의 길에 그들의 겹옷을 깔아” 놓는 사실로도 표현된다. 종려나무는 “영적 선” 또는 “진리의 선”을 그린다. (AC 8369) 이 나무가지를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 함은 신성한 진리를 위한 진정한 애착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주님만이 각 사람의 삶 안에서 승리될 수 있도록 하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수확의 축제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도록 명령되었고, (레위기 23:40) 솔로몬의 성전의 문과 벽에 종려나무 모양이 돌을새김 되었던 것이다. (열왕기 상 6:29,32) 요한의 환상에서 보좌 앞에 선 무리들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7:9) 이들이야 말로 시편 92편 12절에서 노래하는 “의로운 사람”들로서 진리를 실질적인 생활에 응용하여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으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게” 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첫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예배를 악용했으므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할 수 있다.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의미된다. 즉,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지성과 심정을 주님에게 열고 우리의 약함과 그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은 글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제물로 바칠 동물의 판매 행위와 통용되는 금전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줌이 성전 자체의 틀 안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들이 행한 외향적 경건심을 자신들을 위한 권력이나 명예로 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환전상이란 성경을 이기적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둘기 장사꾼이란 명예나 존경을 받을 목적으로 경건한 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그분이 행하신 첫 일은 성전을 깨끗케 하심이었던 것이다.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질 때 과거의 종교생활에서 있어왔던 모든 이기적 동인들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가? 기독교인은 자신의 결점을 늘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배우기 위해 늘 순수한 바램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체면이 아닌 진실로 원하여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이런저런 잡된 것들을 자신에게서 몰아내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깨닫게 해 준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밤을 지내시지 않으셨고, 베다니아에 있는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때가 낮 동안이다. 이런 낮의 상태에서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하게 된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갖게 된다. 성경에 있는 세 나무 즉 올리브, 포도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한 나무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무화과나무는 바깥 행동 지침, 즉 일상생활에서의 선을 표현한다. 당시의 교회들은 전적으로 외적 교회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그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음이란 그 교회들이 적절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과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대표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으로 상징된다. 또한 이 사건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의해 곧 저질러 질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설교한 것들이 실체화 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영적으로 죽는 것임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 13)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종려나무가지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은 우리 삶의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겹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겹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 13) 그분만이 그분의 자연적 이성을 신성의 지배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 14)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 15) 그분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며 그 규율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

## 36

###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이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염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과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피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서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알려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쩡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 가 경비원 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야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현금 께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용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용기장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관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였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나?”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면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 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고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 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 교리 요점

- \* 십자가란 악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를 상징한다.
- \* 우리는 주님이 맞서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직면하지 않는다.
- \* 성만찬은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거행된다.

### 상응 연구

성찬에서의 빵 = 신성한 사랑

성찬에서의 포도주 = 신성한 지혜

성만찬 =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야 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해설

성찬식은 기독교에 있는 큰 축제 중의 하나이다. 이 행사는 과월절이나 고대 히브리 교회에 지시되었던 모든 축제 혹은 바치는 제물들 대신에 거행된다. 과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반면 성찬식은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여진 어린 양(the Lamb that was slain)”이시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물이며, 이 상징물은 그분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성한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빵”은 신성한 선이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포도주”란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악과 거짓에 맞설 수 있도록 강건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찬에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게세마니(Gethsemane)”란 “기름을 짠다(oil press)”라는 뜻을 지닌다. 기름이란 사랑에 대한 상징이다. 기름을 짠다는 것은 사랑의 측면에서의 시험에 대한 그림이며, 이 시험은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심도 깊다. 주님은 마지막 식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에 있는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셨다. 그분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데 동참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 그분이 느끼셨던 육체적 고통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던 그 순간 그분의 생각 안에서부터 이미 큰 고통으로 느껴지셨던 것이다. 즉, 주님은 지성 안에 그분 자신을 결코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서 거절될 뿐만 아니라 육(flesh)의 약함을 드러낸 그분의 추종자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것에서 그들 모두를 구하셨다. 즉,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있는 거꾸로 된 의지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분의 참 신성한 능력의 힘으로 그들을 구하시고자 갈망하셨던 것이다. 가장 깊은 시험조차도 그분이 입으신 인성(Humanity)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그분의 기도의 형태 변화에서 보여 진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셨다. 이는 세 평면에서 모든 것이 신성(Divine)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한다. 첫 번째로 가장 외적인 기도는 그분이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질서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적 실재에 대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에 무능력한 우리와 진리로 잘 가르쳐졌음에도 생각 속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경향성 그리고 세상적 표준과 가치관을 도구삼아 생각하려는 우리를 그려준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

기독교계에서 유다는 가장 비열한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이의 심정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분의 사도가 되도록 복음서 앞부분에서 이미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왜 주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유다와 표현적인 유다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제 27장에서 보면, 유다는 자기 죄를 인식하여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 보려고 노력했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목매달아 자살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은 「진정한 기독교(True Christian Religion)」 책이 완성된 후 처음의 열 두 사도(original twelve apostles)가 재립을 선포하기 위해 영계의 전역에 파견되어 졌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깊이 고려해 보면, 인간적인 유다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의 저술로부터 유다는 예배의 외적인 것들(externals)만을 사랑하는 당시의 교회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외형적인 예배에 대한 애착(affection)은 필요한 것으로서 가치도 있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 치중할 경우 아주 쉽게 배반해 버린다. 우리가 당시의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과 같이 세상적 존경과 권력 또는 우리의 이기심을 덮어두는 덩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외향적 경건심만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키스를 하여 배반하는 유다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향적 예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취지를 함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다의 배반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분을 잡으러 온 적들에게 대항하라는 명령도 내리시지 않으셨다. 적들이 혹독한 짓을 하게 내버려두시는 일은 후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분의 의지가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불러 적들을 쳐부수도록 했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유로이 놓아두시는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대치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원치 않는 타인에게 진리를 강요하고, 스스로의 무기로 악과 싸우려 하기도 한다. 진리는 꾸준하면서도 비강제적이다. 거짓만이 선두권을 잡기 위해 폭동적이며 악랄하다. 주님이 붙잡히시자 그분을 구하겠다고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는 베드로의 약점이 바로 그분이 심문 받는 동안 베드로로 하여금 그분을 부인하게 만든 약점이기도 하다. 약점이란 물질적 권능이 영적 권능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다. 이런 약점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널리 퍼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것에 자기도 동참함으로써 교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이들 그리고 성공적인 번영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버리는 이들은 모두 똑같은 약점을 드러낸다.

주님은 가야파라는 대사제와 무리들에게 먼저 심문 받으셨다. 국가라는 면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교회 또는 우리와 주님과 관계 표현함을 상기해야 한다. 진짜 심문이 날마다 거행되는 곳은 우리 속이다. 주님은 가야파와의 논쟁을 거절하셨고, 그분에게 덮어씌우려는 거짓 증거에 대한 답변도 아예 회피하셨다. 주님은 단지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고, 그들의 심판관으로 나타나실 때만을 지적하신 후 그들이 선택한 결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신다. 우리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 복음서는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주장에 관한 확실한 기록으로, 전 시대를 위해 굳건히 서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분에 관한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기 원치 않아서이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안내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은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데 따라 추론함으로써 스스로 확증하려는 것을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의 처음에 십자가를 신학적 혹은 실제적인 하나의 별로써 간주하려고 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도 주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고, 우리의 벌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죄인을 대신한 예수의 희생(Vicarious Atonement)”이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이 교리를 거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믿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 받아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설사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며 생활하거나, 성경이 그분에 관한 유일한 지식의 근원임을 소홀히 하더라도 자신들은 구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느낌 속에 있는 십자가란 패배나 비극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스스로 고통 받으신 사실에 그들의 동정심을 부추긴 후 스스로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러한 것은 새교회 교리에 없다.

십자가의 고난은 유한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주님의 마지막 승리이다. 주님은 그분이 준 선물을 인간들이 악용함에 따라 창조되어진 악의 권세를 만나고 극복하기 위해 유한한 인성을 입으셔야 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자발적으로 입으셨고, 유한한 인성을 마지막으로 벗으심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십자가는 선과 진리에 대항할 능력이 악과 거짓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 질문 정리

-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3) 주님은 마지막 과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19) 성찬 때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2) 과일절을 지키기 위해서 3) 성찬식(Holy Supper)
- 4) “나를 배반하리라” 5) “그게 저입니까?”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 7) 키스함으로 8) 도망갔다 9) 주님을 부인함 10) 아님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 12) 닭의 울음 13) 가야과라는 대체사장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19)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20) 악과 거짓은 선과 진리에 맞설 어떤 힘도 실지로 없다는 것

## 37

# 부활하신 주님

###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셔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 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교리 요점

- \*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고집적인 것이지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 \* 부활절은 미래의 삶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초월한 사랑의 힘과 거짓을 극복하는 진리가 모든 삶 안에 있어야 함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 주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그분을 뵈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 상응 연구

여인들 = 애착들

산 = 높은 관점 또는 영적 관점

## 해설

본문 10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으로, 단순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슬픔에 잠긴 여인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그분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온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아주 많은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마치 만사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은 봉인된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대신, 열린 무덤, 텅 빈 무덤과 흰 옷에 빛나는 용모의 천사들을 발견한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하며 주님이 일어 나셨고, 갈릴래아의 그들에게 오시게 되리라고 말해준다. 그 후 그들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달려갈 때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뵈는다. 부활의 광경은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이루어 졌다. 밤이란 영적 어두움의 시기를, 새벽은 새로운 영적 시기 혹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상태를 말한다. 본문 서두의 안식일이란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다. 이 안식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안식일이요, 주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으니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분이 없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함에 있는 쉼의 상태이다. 그리고 지진에 의해 시사된 변화는 교회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무덤을 봉인한 돌이란 성경의 글자에 대한 거짓 해석을 표현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해석을 앞세워 사람들이 성경 글자 속에 든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게 한다. 말씀의 글자에 대한 거짓 해석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강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가오고 있다. 거짓 해석을 치워낼 때 봉인한 돌이 굴러져 내리는 것이요, 주님 자신이 축복하시며 권세를 펼치시기 위해 앞으로 나와 보여 지는 것이다.

무덤에 처음 있었던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분이 죽으신 후까지도 그들의 스승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분을 섬기는 가장 빠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이 묘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착들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 사상으로 가득해져서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그분을 섬기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섬김을 사랑하려는 영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가 먼저 있게 되는 것이다. 경비병들이란 주님을 무덤 속에서 못 나오도록 애쓰는 우리 마음속의 거짓 논쟁들을 표현한다. 거짓 논쟁들은 그리스도가 한낱 역사적 인물일 뿐임을 확신 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논쟁은 부활의 권세 앞에서 흔들리며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우리 안의 진리에 대한 애착들을 격려하며, 이러한 애착들은 우리의 생각이 부활의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도록 권유하며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갈릴래아에서 만나도록 해준다. 자발적 섬김의 갈릴래아란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평면이다. 산이란 생각의 높은 상태를 말하며,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비중과 그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의지를 수행해 나가며 그분의 살아있는 영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능동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가 가진 주님에 대한 지식은 죽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건이 본문에 또 하나 있다. 여인들은 실제 주님을 보았을 때 “가까이 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있었다. 주님의 “발”이란 그분의 행동의 가장 바깥 평면을 말하며, 바로 거기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의 행동지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활은 약속되어진 “예언자 요나의 기적”이다 (마태복음 16:4). 주님은 3일째에 일어 나셨고, 그 뒤 40일 후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스스로 고집스럽게 억지로 눈을 감는 이들의 영적인 눈은 단혀 질 수밖에 없어 그분을 볼 수 없다.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또한 그들은 슬퍼하는 일과 의아함 그리고 의심하는 것조차 그만두었음을 누가복음 24장 13-21절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 시키는 것조차 실패했을 정도이다 (마가복음 16:10-11, 누가복음 24:10-11).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전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과거에 스스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을 상기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전진할 태세를 갖추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 순교도 불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은 아주 확고하여 타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줄 수 있었고, 기독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기도 했다. 사실 기독교회의 실존 자체가 부활의 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이다. 신성화 하신 주님의 영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을 바꾸게 했고 시민 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야기 시켰다.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없다.

우리가 부활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에게 동여 매주는 도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부활로 세상에 하나의 큰 표시를 주시어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증거물이 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함과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 우리 마음에 특별히 가져야 할 또 하나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측면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그분이 하느님이심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언제나 기나긴 삶의 측면에서 승리뿐이며 거짓과 악은 외관(appearance)이 아무리 보기 좋다하더라도 결국 패배뿐임을 입증하셨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함을 삶의 지배적인 원리로 채택하여 꾸준히 행해 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적으로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사는 매우 힘든 것으로, 마치 재난과 같이 바깥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 곧 지상의

삶의 끝이라는 해를 가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낡은 육신을 내던지는 것일 뿐 우리는 영계에서 더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가는 입구일 뿐임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가치에 대한 확실성을 갖도록 해준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즉, 우리의 신체적 눈이 주님을 볼 수 없다하더라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천국이라는 머나먼 곳에 떨어져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필요성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속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 문 열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우리의 어느 친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들으실 준비를 늘 하고 계셔서 듣는 즉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조언을 받아 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또한 그분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우리는 복음이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염두 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는 우리 자신 속에 든 사상이 아니다. 스웨덴봄의 저술에서는 주님의 영이 거짓을 통해서는 역사되지 않음이 거듭 강조된다.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분이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실재하심 (presence)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길을 연다면,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성공될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언급된 낡은 어떤 날인가?
-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 19) 여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 질문의 답

-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일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려진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 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다시말해 생각의 높은 상태인 영적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기 때문.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설사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 38

### 요한의 환상

####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디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넘어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 (revelation)을 의미한다.

####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 교리 요약

- \* 부활하시고 신성화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본문 1장에 있는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 \*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charter)”이기도 하다.

## 상응 연구

황금등경 =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  
금띠 = 신성한 사랑

## 해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오래 살도록 허용되었다. 경이로운 환상이 그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다. 이 환상은 파트모스 섬에서 주어졌는데,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Domitian) 통치하인 A.D. 95년경 기독교 박해 중에 그곳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나이는 당시 약 90세 정도였다. 이 환상이 영계 안에서 보여 졌다는 것은 본문 10절의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라는 기록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교회들의 상태와 장차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해준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태초 교회로부터 있어온 교회의 상태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심판 바로 전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다룬다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전 역사를 망라하여 환상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응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스웨덴북에 의해 밝혀진 상응의 법칙만이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된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경건하게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환상의 힘을 경험하기도 하고, 젊은이들 역시 그 말씀을 경청하기 좋아한다. 하지만 재림이 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환상을 총명히 사용하지 못했다. 새교회인은 “믿음의 오묘함

안에 지적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본문의 환상을 과거 구약성서 속의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한편의 드라마 혹은 천사와 사람들을 위해 영계 안에서 공연된 방대한 살아있는 그림들로 생각할지 모른다. 각 예언자는 이런 드라마의 본질적 용모를 기록하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지상의 언어라는 최말단의 형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도록 선택된 증인이다. 따라서 환상들의 글자적 세부사항은 아주 힘이 있어 놀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환상들의 궁극의 값어치는 그 안의 상징적 의미에 있다. 주님은 요한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시작 초부터 이미 존재하는 영적 힘에 대항하는 악과 진리와 거짓 그리고 천사와 악마들의 전투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과 악, 즉 천사와 악마의 전투의 결과가 명백해질 때까지 악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수확의 때까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선과 진리의 최후의 승리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환상이 열려진 후 즉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접한다. 요한이 교회들에서 인정된 지도자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교회들의 이름 하에 주님의 진리를 받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형태들이 기술되는데,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형태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형태에 대한 특별한 위험들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 보좌, 봉인된 책, 어린 양 그리고 말씀들 통한 세상에서의 영적인 과정 즉 말씀에 문을 닫고 있던 마음이 점진적 열리는 영적인 과정이 주님의 섭리로 어떻게 지휘되는지 보여준다. 이 후 말씀의 열림으로 인간의 지성과 심정을 구석구석 뒤져 더 깊은 악들을 어떻게 들춰내는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용과 짐승으로 표현된 악과 거짓의 권세가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 주님과 천사들에 맞서고 있는 것, 악과 거짓의 권세가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신 것, 선한 이들이 시험에 맞서 싸워 극복하여 주님의 권능 안에서 보존된 것 그리고 투쟁의 중간에서 태어난 새 교회가 보존되어 주님의 왕국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우세해질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새 교회의 현장”이라고 불러 왔다. 그 이유는 새 교회의 설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교회의 도래는 말씀의 전 과정에 대한 우리 공부의 마지막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을 전 말씀의 왕관이요 인간 역사의 최고점이며, 개인적 혹은 인류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영적 발달이 대단원의 드라마에 있게 되는 마지막 행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스웨덴북(Swedenborg)을 통해 허락하신 이 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접한다면 더욱 더 많은 영감과 광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저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또는 「계시록 풀이, Apocalypse Revealed」를 참고해 보자.

본문 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림을 보여준다. 요한은 그분을 “인자, Son of man”로서, 즉 세상에서 알았던 스승이심을 인식한다. 주님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은 천상천하의 영원한 하느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와 더불어 시작된다.

요한이 주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전 이미 많은 이들, 출애굽기 24장 9-10절의 모세와 칠십 장로들도 주님을 뵈었다. 모든 환상의 공통된 특색은 빛남 혹은 불의 나타남이고 주님의 인간 형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있다. (에제키엘서 1:26-28 참조). 불과 빛남이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성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분은 이 사항들을 늘 명확히 하셨다. 그분만이 실제로 사람인 바, 참 사람(Very Man, ipse homo)이시다.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궁극의 형태를 가졌을 때, 즉 강림 이후에야 그분에 대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욱 특별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주님에 관한 그림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시대의 화가들이 흠모해 보려한 상상적이며 유한한 표현에 불과한 그들의 그림 대신 본문의 그림을 곰곰이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다. 만일 우리가 뚜렷하지 않은 주님의 초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진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초상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그림처럼 머문다면, 그것은 화가가 그린 초상화처럼 인식 되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초상의 세부사항 중에는 우리 상상 밖에 있는 부분도 있고 화폭에 그려 넣기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유한한 인성을 넘어 신성한 인성으로 신성화 하신 주님을 상상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이를 공부하되, 이미 친숙해진 상응들을 상기하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상기해 보자. 옷은 진리를, 금은 사랑을, 머리는 지휘하는 총명을, 머리카락은 진리가 말단 까지 뻗쳐 나가는 응용력을, 희다함은 순수함을, 눈은 이해성을, 발은 가장 바깥쪽 지침을, 낫이나 구리는 자연적 선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말단에 있는 신성 혹은 우리에게 와 닿는 신성한 진리를, 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을, 좌우에 날이 선 검은 악과 거짓을 공격하며 선함을 보호하는 신성한 진리들, 안색(얼굴)은 인격 속에 든 내용물을, 해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그리고 등경(촛대)은 지상의 교회 혹은 신성한 진리를 받아서 인류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직무를 상징한다. 스웨덴붉은 짧은 구절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다. 사실 이 환상 자체는 잠깐 동안에 읽혀질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기억에 담을 수 있는 구절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기억에 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간직되어 주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그분이 직접 계발시켜 주시며 지휘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바,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16) 금띠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 교회들과 천사들
-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 16) 모든 것을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 17)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려 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 39

###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콜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누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  
 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누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달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 교리 요점

- \* “선행과 믿음 안에” 있는 정도만큼 삶 속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
- \*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는 하나뿐이나 인간이 그것을 받는 양상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다.
- \*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서계신다. 문을 열고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상응 연구

에페소 = 생활의 선이 아닌 교회의 진리에 집착하는 이들

스미르나 = 생활은 선하나 교리에 거짓이 있는 이들

버가모 = 모든 것을 선한 일에 기초하려고 하나 진리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이들

티아디라 = 선행에 근거한 믿음과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들

사르디스 = 죽은 예배

필라델피아 = 선에 근거한 진리 안에 있는 이들

라오디게이아 =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

### 해설

본문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는 제 1장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 제 65-66항에서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 함은 새 하늘에 있는 새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지상에 있듯이 천국에도 있다. 그리고 그곳에도 말씀에 근거한 교리가 있고 그로부터 설교도 한다. 영계에서도 별로 가득한 창공은 자연계에 서와 같이 나타나고, 이 나타남은 천국의 천사들의 사회로부터 있다. 거기에 있는 각 사회는 그 사회 아래에 속한 이들에게 별처럼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사들의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 함은 천국에 있는

교회 전체로, 새 하늘(New Heaven)을 의미한다. 일곱 등경이 일곱 교회라 함은 지상에 있는 새 교회를 의미하며, 이 새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일곱 등경이라 함은 일곱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교회 자체로는 하나이나 받는 양상에 따라 다양해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 왕의 왕관에 박힌 많은 보석과도 비교된다. 또한 그것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 혹은 기관과도 비교된다.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지닌 세포와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룬 것이 완전한 하나의 몸인 것이다. 모든 형체의 완전함은 다양한 것들이 질서에 맞게 배열되면서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새 교회 전체가 다양하다는 것이 일곱 교회로 기술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명심해 둘 사항은 교회는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서로 구별되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교회가 연계되어 있는 천국의 사회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의 교회 운동을 생각할 때도 이 점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만의 것이 이상적라고 말해서는 안 됨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들 각각이 이상적인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본문의 메시지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새 교회의 메시지가 주는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생각해야 하고, 조직된 새 교회 안에서도 본문에 주어진 여러 형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곱 개의 메시지에 있는 비슷한 양상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메시지를 받는 이들의 형태에 따라 호소되도록 주님의 나타나심이 특별한 면에서 있다. (2) 주님은 각 형태에 있는 좋은 특질을 격려하시고 (3) 주님은 각 형태가 주목해야 할 약들을 지적하시고 (4)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자 한다면, 주님은 각각에 대해 달성 가능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5) 주님의 메시지를 수용 혹은 거절함은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음을 상기 시켜 주신다. 즉,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계시록 풀이」의 제 2장과 3장의 서문 목차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구분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리의 진리를 제일로 삼되 생활의 선이 있지 않은 이들은 에페소교회로 의미된다. 생활면에서는 선하나 교리 면에서는 거짓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스미르나 교회로 의미된다.

선한 일에 교회 관심의 전부를 두나 진리 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이들은 베르가모 교회로, 선행으로부터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속에도 있는 이들은 티아디라 교회로 의미된다. (제 3장) 죽은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독교계의 사람들, 즉 선행과 믿음이 없는 이들은 사르디스 교회로 의미된다. 주님의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자신으로부터의 믿음과 때로는 말씀으로부터의 믿음을 교대로 가져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은 라오디게이아의 교회로 기술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새 교회로 불려진다.”

위의 마지막 문장은 각 일곱의 장점이 새 교회에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마 교회의 완전성을 위해 필수적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다른 측면이 희생될 때 견책이 발표된다. 어떤 교회가 그들의 중심원리를 교리에, 어떤 교회는 선한 의지에, 어떤 교회는 선한 일만 고집하는 것에, 어떤 교회는 믿음과 선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데에, 어떤 교회는 교회의 형식을 사랑하는 데에, 어떤 교회는 잘 조화된 기독교인에, 혹은 어떤 교회는 자기 검증과 신실하며 꾸준한 헌신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데에 두어서 어느 한쪽 면만 본다면 유용하지만 결국은 다른쪽 측면이 결여된 상태가 된다. 그러나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교회로서의 충분한 선용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형태의 각각을 인정하며 공헌한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조화된 삶을 꾸준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수 있다. 이 비유는 외적 선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쉽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유 후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이야기,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에서 (누가복음 10:38-42)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가 시중드는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동생 마리아에 대해 불평할 때 주님은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에는 진리에 대한 중요성과 선한 일의 중요성이 균등하게 강조되어 말씀의 어느 구절이 한 쪽만 강조하는 데에 쓰여서 다른 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롭다는 질책은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할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을 극복한 이들에게는 모든 것 중 가장 높은 보상인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심이 뒤따른다.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시험 속에 언제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쉽게 보이는 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심령을 다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의지를 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우리는 내가 져야할 책임을 살피는 대신 내가 책임질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헌신보다는 눈치껏 적당히 하며 몸조심하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하신다. 쉽고 대중화된 길을 찾는 것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 문을 닫아서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모압에 대해 (예레미야 48:11)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 하였도다.”라고 말했다. 천국적 인격은 “술 찌꺼기 위에 있음”으로, 즉 쉬운 방법을 택함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회들, 섬김을 위한 개인적 선용 그리고 달성함에 따른 특별한 왕관을 주시고 계신다.

### 질문 정리

-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하다고 말했는가?
-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 18) 왜 라오디게이아의 미적지근함이 심하게 비난받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 18) 극복하는데 가장 힘든 결점이므로

## 40

### 거룩한 성

##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염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

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단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나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교리 요약

- \* 거룩한 성에 관한 기사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형체에 대한 환상이다.
- \* 성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란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말한다.

### 상응 연구

거룩한 성의 성벽 = 말씀의 글자적 의미  
 열 두 대문 = 선과 진리에 관한 입문적인 모든 진리  
 주춧돌 = 천국적 인격을 짓기 위해 기초되는 진리  
 보석 = 영적인 빛을 받아 빛나는 개별적인 진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밝히 알려진 말씀으로 된 진정한 체계  
 황금거리 = 섬김을 사랑하는 길

### 해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요한 계시록 설명」 제 879항에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도성(city)은 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는 우리의 집인 인격을 어떤 교리라는 성안에 지으며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관을 맺으며 그들을 돕기도 한다. 예루살렘은 “교리적 측면에서의 교회”, 즉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도성을 말한다. 그 성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예배가 수행된다. 실존하는 예루살렘성은 단지 표현적 의미를 지닐 뿐이며, 그곳의 주민들이 외적 예배까지도 곡해시키자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여러 교회가 있어졌으나 교회들의 신봉자들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되어서 더 이상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바램으로 그들의 예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교리의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 역시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 전체를 망라하여 때가 되면 멸망하지 않을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해 멸하지 않을 진리를 밝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진리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짓부수고 점점 커져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운 돌이다. 이는 또한 요한에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듯한 성이 하늘님께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스웨덴북은 예루살렘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AE 881) “요한은 이것을 하나의 성으로서 처음에 보았고 다음에는 신부(a Virgin Bride)로서 보았다. 성은 표현적으로 본 것이고 신부는 영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방식은 천사들이 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도성에 관해 읽거나 듣거나 볼 때, 보다 낮은 생각 속에서는 성으로 보게 되고 보다 높은 생각 속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의 교회로 보게 된다. 그후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면, 그들은 아리따운 처녀로서 보게 되며 그들 속의 교회의 품질의 여하에 따라 다르게 입혀져 있는 신부를 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도 허락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약혼자를 위해 말씀으로 잘 차려 입은 신부, 결합과 결혼을 위한 신부 외에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결합되는 교회를 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부의 겉옷 같은 이 성의 벽은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진리가 ‘잘 짜여진 성벽’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을

만든다. (시편 122:3)”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해 밝혀진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지침을 지키고 그것들을 명확히 만들거나 혹은 분명한 한계를 긋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 안쪽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된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교회의 세 번째 기본 교리를 떠올리게 한다. 세 번째 교리는 삶(생활)의 교리이다. 스웨덴봄이 가장 많이 인용하거나 쓴 문장 중의 하나는 “모든 종교는 삶 속에 있고 종교의 삶(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All religion is of the life and the life of religion is to do good”이다 (Life 1). 이 문장은 정말 아름답고 진정한 서술이다. 그러나 모든 서술들이 그렇듯이, 이 서술 역시 거짓화 될 수 있다. 만일 이 서술이 그것의 체계적 진리를 뽑아내서 그 체계에 반대되는 사상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놓인 돌을 빼내어 바빌론의 성벽을 쌓는 경우와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악용되는 예를 들어보자면, “교리”가 좀 부족해도 어떻겠느냐는 식에 대한 변명에 이용되거나 우리가 이웃에 친절하며 자선을 베풀기만 하면 즉 “선한 일들”만 하면 되지 계명을 꼭 들먹거리야 하느냐 혹은 주님을 배우며 그분께 예배하러 꼭 교회에 가야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들을 지지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웨덴봄이 말하는 “삶(생활)”이 의미하는 것, 즉 “선을 행함”이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삶” 또는 “선을 행함”이란 외향적인 행동만이 아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27)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따라서 “삶”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곳(inmost), 즉 인간의 심정이다. 종교의 삶은 이 심정 안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한다. 주님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한 일”이란 우리가 인정을 베풀기 위해 주는 돈의 액수에 의해서와 사회적 개혁에서 큰 공헌을 남긴 것에 의해서도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개인적 공의, 공정, 자비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으로만 측정될 뿐이다. “선을 행함”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해서 하는 행동과 내 이웃이 선하다고 여겨서 하는 행동에도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함”이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선이라 믿으며 말씀과 그 속의 의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배운 것을 행하고, 죄는 하느님에 적대하는 것임을 알아서 죄의 근원이 되는 우리안의 악을 멀리 하려는 것이다. 개인적 삶이 주님께의 순종과 겸손이라는 품성(quality)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바깥 행동에 관계없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을 행한다면 그것들은 선이요 자아로부터 온 선을 행한다면 그것들은 선이 아니다.” (DL 9)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하느님께 적대되는 죄로 알고 스스로 금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 속의 악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면 즉 우리가 자신 속의 악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면, 우리는 진실로 인도자로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게 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사회와 새 교회의 가르침으로 살아내지는 그림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천국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도 내려오는데, 모든 개개인이 가르침대로 사는 정도만큼 내려온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똑같다.” 그리고 측량자는 사람의 자요 “천사들의 자”이기도 하다.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라는 세 치수란 사랑과 지혜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그 치수들이 똑같다 함은 완성된 삶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무지로 망쳐진 선한 바램이 없으며 실제 하지 않은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 아닌 행위도 없다.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선한 애착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열 두 사도로 표현된다. 이것들은 성으로의 진입의 수단이며, 성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거기에 있다. 그 문들은 전혀 닫히지 않는다. 들어가기로 원하는 모든 이는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은 어떠한 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는 것 또는 순종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그곳에 들어가기로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곳의 아름다움이 모두 표현이기 때문이다. 보석들이란 각기 다른 마음에 의해 다양하게 보여지는 진리들이며, 그 진리들은 영적 의미에서 반투명체이다. 금으로 된 거리란 섬김을 사랑해 가는 길을 뜻한다. 생명수의 강이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오는 진리를 뜻하며,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생명수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천국적

유용함(use)의 모든 형태들이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지기를 사랑하고 선 자체가 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아름다울 뿐이다. 도성에서의 예배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있고 모든 빛과 영화로움은 그분으로부터만 존재한다. 이는 진실로 선한 삶에 대한 보상과 면류관에 대한 그림이다. 진실로 선한 삶, 즉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며 계명에 따른 삶만이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 11)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 16) 거룩한 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 질문의 답

-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느님을 경배하라
-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16) 교리의 진정한 체계는 열린 말씀 안에서만 발견된다.
- 17) 그 이름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어 보라는 도전장과 같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